

권두칼럼

지역연구 특집 1

지역연구 특집 2

부산정신, 부산기질

CEO 포커스

전문가의 눈

부산의 도시 디자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현황과 진단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인터뷰

명사 에세이

역사산책

김홍희의 포토 에세이

부산 스토리텔링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어떻게 지내십니까

위기 때에도 꿈을 꾸면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버킷 리스트 '루트 777/택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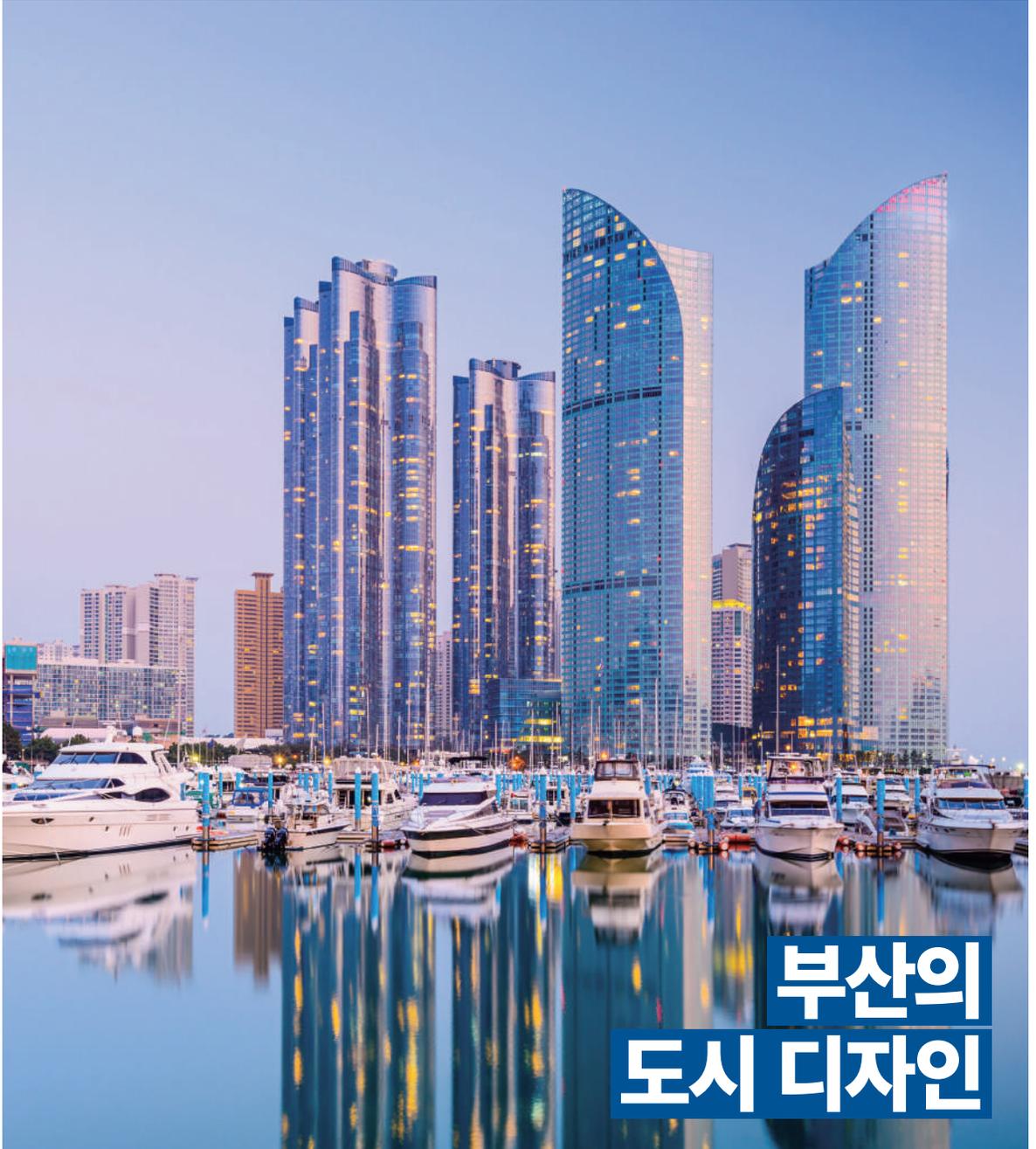
부산 사상구 강선대(降仙臺)

제갈삼 교수(피아니스트) 인터뷰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터뷰

地域社會 지역사회

2021년
여름호



부산의 도시 디자인

DSU NEWS

동서대학교 뉴스 2021년 1월~6월



2021년 신년 예배 및 신년 하례회
학교법인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동서대학교 건축공학과

2020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학과 선정
(2021년~2025년)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건축공학과,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SW중심대학사업단 '동서 AI 언박싱' 개최



2021학년도 입학식 개최



2021 K-Move스쿨 전국 4년제 대학 최다 6개 과정 선정





엠디엠(MDM)그룹 동서대학교 발전기금 5억원 기부



광고홍보학과 세계 3대 국제 광고제 '클리오어워즈' 은상 수상

Keynote | 9th June 2021, 14:20~15:40 (KST)

사회혁신과 디자인, 교훈과 전망

Ezio Manzini

- 밀라노 폴리테크닉 명예교수, DESIS네트워크 설립자
Founder of the DESIS Network and Honorary Professor at the Politecnico di Milano
- 세계 다수의 디자인 스쿨 초빙교수로 재직
Guest Professor at many design schools around the world
 Elisava Design School and Engineering (Barcelona), Tongji University (Shanghai), Jiangnan University (Wuxi),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PUT (Cape town), Parsons - The new School for Design (NYC)
- 주요저서 Major Publications
 "Design, When Everybody Designs", "Politics of the Everyday"

zoom ID:
833 7708 9321

YouTube
<https://bit.ly/2SokKXE>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SDSN 공식회원 승인 및 봄학술대회 개최



2021년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4년 연속 선정



개교 30주년 기념 기부 릴레이

地域社會

통 권 3호

발 행 인 장제국

편 집 인 장지태

발 행 일 2021년 7월 1일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315호

T e l 051) 320-1708

F a x 051) 320-1691

E-mail pusamo21@dongseo.ac.kr

인 쇄 처 CCA

인 쇄 인 정형권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004 권두칼럼

내일을 위한 진단

장제국

COVER STORY



006 지역연구 특집 1: 부산의 도시 디자인

미래와 기억 사이에서 도시를 디자인하라	이코 밀리오레
일상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휴먼시티	최경란
도시 고유의 장소성 살려 시민에게 감성적 힐링 주길	우동주
일찍부터 여러 계획 세웠지만 공원녹지 부족 등 과제 산적	우신구
시민 만족감 극대화 위해 보행 중심 도시로 진화시켜야 할 때	한영숙
감천문화마을·F1963,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바탕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윤지영
미래 생존 위한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 이 시대의 유일한 지향	강동진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 지향을	박부미
사용자와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김동식
부산·한국·아시아 문화 가치에 기반한 디자인 연구의 거점	장주영

009 지역연구 특집 2: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현황과 진단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형 메가시티' 모델로 800만 시민 행복 추구	전호환
수도권에 밀려 '노인과 바다' 도시로...	
글로벌 시티 도약 위한 절박한 선택	박충훈
동남권 '1시간 생활권'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 및 운영체계 개선	김승길
4대 거점도시 중심으로 행정·생활·경제·문화 4대 공동체 구축	김태영, 하경준
'지역 주도 + 정부 지원' 구도 긍정적...재정보조 긴요	강윤호

101 부산정신, 부산기질

의리·저항의 정신과 집합성·투박성·무뚝뚝함 기질이 특징	김형권
--------------------------------	-----



108 CEO 포커스 :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열정의 ‘신공항 전도사’ 명성…

지역 현안 ‘팔방미인’ 해결사로 큰 역할”

장지태

116 전문가의 눈

How South Korea Can Turn Washington-Pyongyang Talks to Inter-Korean Advantage

Brian Myers

123 명사 에세이

위기 때에도 꿈을 꾸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현희

131 역사산책 : 배산성 이야기

역사 속살 드러낸 신라시대 부산 상황 알리는 대표 유적

박수정

137 김홍희의 포토 에세이

나의 버킷 리스트 ‘루트 777/택리지’를 시작하며

김홍희

141 부산 스토리텔링 2

달이 지기 전에

이미욱

146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2 : 제갈삼 교수(피아니스트)

“유치환, 이상근, 고태국, 금수현 선생 등 기억 새롭고, 베토벤은 음악인생 지켜주는 평생의 스승…”

정두환

152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생 5막 계획이요? 이제 손자나 보며 편히 쉬고 싶어요”

임봉수

내일을 위한 진단



장 제 국 동서대학교 총장

“

내년 초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공약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정확한 미래진단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과관계 명확한 정책을 내어놓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몇 주 전에 일본 NHK-TV에서 방영된 '게놈 테크 놀로지의 빛과 그림자'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유전자 연구의 현주소를 조명한 것이었는데,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유전자를 미리 진단하여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를 삭제함으로써 미래의 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예 병의 근원을 수정란 상태에서 퇴치해 버리는 기술이다. 2030년이 되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과학 분야는 이처럼 정확한 미래진단기술을 통해 장차 다가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분야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결코 미래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측 따로 정책 따르기가 원인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인구통계야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이다. 인구급감은 이미 오래전에 정확하게 진단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인구감소문제는 아주 먼 훗날에나 일어날 일이라는 식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절벽 쓰나미는 우리 사회를 삽시간에 덮쳤다. 당장 지역대학은 정원 미달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젊은이가 떠나간 지방도시 이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 소규모 도시를 가보면 사람이 없어 황량하기까지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바로 코앞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간 무엇을 해 왔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동안 투자한 천문학적인 돈은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

경제 분야를 보더라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 원에 육박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처음 200%를 돌파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고, 각 경제연구기관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은 풀리고 있고 앞으로 더 풀다고 한다. 기업은 고질적인 각종 규제에 인하여 안정적 미래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고층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치 건강진단 결과가 조금 더 무리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줄담배를 피워대는 환자의 모습 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은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곳이다. 대학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보장된다. 곧 맞이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대학 환경을 예측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곳도 대학이다. 이미 미국과 같은 고등교육선진국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적응형 수업(Adaptive Learning)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계 교육시장 개척을 위해 활발히 접근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등교육의 '신대륙'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들은 빛바랜 각종 제도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구대륙'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고등교육 경쟁력이 급격히 약해질 것은 자명한데도 속수무책이다. 최근 발표한 THE(Times Higher Education) 아시아 100대 대

학 순위에 우리나라 대학이 12개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제는 정확한 미래진단을 기초로 한 인과관계가 정확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극히 근시안적이고 여론 추종적 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콩을 심으면서 팔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기가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내년 초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공약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정확한 미래진단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과관계 명확한 정책을 내어놓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화려하게 꾸며진 겉봉지에서 꺼낸 꽃씨라고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포장지 디자인은 볼품이 없어 사람들의 눈길은 끌지 못하더라도 꽃씨가 좋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법이다. 포장지 말고 꽃씨를 살펴보는 올 하반기가 되면 좋겠다.

01

COVER STORY : 지역연구 특집 1

부산의 도시 디자인

- 01 **연결과 공유**
미래와 기억 사이에서 도시를 디자인하라 이코 밀리오레
- 02 **'휴먼시티디자인 서울' 스토리**
일상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휴먼시티 최경란
- 03 **공간과 감성**
도시 고유의 장소성 살려 시민에게 감성적 힐링 주길 우동주
- 04 **역대 시 계획 검토와 향후 방향**
일찍부터 여러 계획 세웠지만 공원녹지 부족 등 과제 산적 우신구
- 05 **부산 근린 재생**
시민 만족감 극대화 위해 보행 중심 도시로 진화시켜야 할 때 한영숙
- 06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
감천문화마을·F1963,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윤지영
- 07 **원론적 지향점**
미래 생존 위한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 이 시대의 유일한 지향 강동진
- 08 **해양 스마트도시 부산과 가로환경**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 지향물 박부미
- 09 **환경디자인**
사용자와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김동식
- 10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부산·한국·아시아 문화 가치에 기반한 디자인 연구의 거점 장주영

미래와 기억 사이에서 도시를 디자인하라

이코 밀리오레(Ico Migliore)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동서대학교 석좌 교수



도시의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디자인의 관점 안에서 무엇보다 도시의 기억을 재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많은 도전적인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다.

“도시는 인공적인 것 중 탁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알도 로시(Aldo Rossi, 밀라노 1981-1997)는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건축 이론가로서 그는 도시의 주제와 1960년대 역사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도시 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모데나 묘지 확장,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 축조된 세계 극장, 라코니카 모카 포트 등 20세기의 많은 중요한 건축 및 디자인 작품을 설계했다.

도시는 탁월한 인위적 가공품이다. 한편으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표현이며 과거와 미래의 지속적인 상호 참조를 통한 새로운 행동을 조절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외형(facies)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그렇다. 이 맥락에서 디자인은 삶의 질에 깊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의 집단적 집으로서 도시가 정리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를 기억의 표현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시공간(chronotope)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로시는—최초의 이탈리아 프리츠커상 수상자(1990)—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 문화를 보여주는 자신의 에세이집 『도시의 건축물』(1996)에서, 이 콘셉트를 반영하며 도시를 살아 있는 건축의 유기체로 해석한다. “건축은 감정, 세대, 공적 사건들, 개인의 비극, 새롭거나 오래된 사실들을 담고 있는 인간사의 고정된 장면이다.” 따라서 로시는 건물의 강력한 집단 비전의 개요를 제시하면서 도시 및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분야가 갖는 역할을 탐구한다.

도시는 건축적 사실의 유기체, 건축물의 형태로서 로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건축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눈에 보이는 도시의 이미지와 그 안의 모든 건물의 집합보다는 오히려 건설로서의 건축을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의 축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는 질서 정연한 마그마의 시스템 같은 것처럼, “페인팅, 책, [도시]는 모두가 해석할 수 있는 집단의 작품”이 된다. 도시는 발전하고, 스스로 재고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층위를 형성한다.

이 부분은 도시의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분석에서 공간과 시간에서 도시에 의해 형성되는 모양에 따른 고유한 건축적인 측면으로 초점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초점의 이동은 형태라는 주요 주제를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불러오며 그 결과로 건축가의 역할의 변화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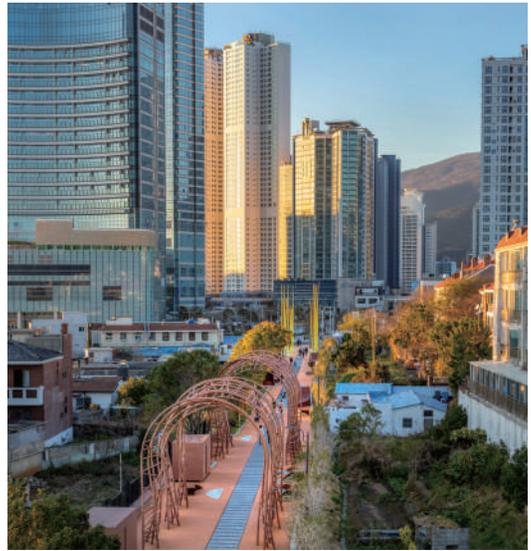
카를로 아르간(Giulio Carlo Argan)과 주변 환경으로서 인테리어

아킬레 카스틸리오니(Achille Castiglioni, 밀라노 1918-2002)가 늘 이야기했듯, 필자는 인간 행동이 디자인 접근법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카스틸리오니는 “디자이너는 물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모든 것이 인테리어”라고 했던 줄리오 칼로로 아르간(토리노 1909-로마 1992)의 주장을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와 ‘인트로노(intorno, 주변 환경)’의 해석과 의미의 겹쳐진 층위는 우리가 디자이너의 시각을 넓혀 모든 공유된 도시 공간을 포괄하도록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어려움들은 이러한 주변 환경을 향하고 있다. 이 도전적인 문제들은 특별히 현재의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가시화되는데, 더욱더 사적인 실내공간의 형태학과 대등하게 도시의 형태학을 재정의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듯하다. 공공의 공간은 따라서 우리 개인 공간의 확장이자 우리의 집들에서 파생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만큼 공공의 공간의 한계가 더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접경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모든 인간 사회에 적절한 자연과 연관된 충동을 표현할 수 있는 도시 내에서 안전한 장소를 짓고자 하는 욕구는 현대 도시 설계의 진화에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이는 도시(cité)의 수직적 기질과 함께 더욱 학제적 성향

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포용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이동해 가면서 도시는 반드시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 전체를 통해 오랫동안 버려졌다고 해도 큰 잠재력을 제시하는 경계 공간을 강화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13 미포 블루라인 정거장

부산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부산의 철도 폐선 구간이 있는 약 5km의 도시 지역을 선형 보행자 전용 공원으로 바꾸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작업을 했다. 목적은 환영의 장소로 만들어, 한편으로는 위대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내포한 대지의 광범위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0월에 처음 개장한 블루라인 파크는 해운대에서 송정 해변 리조트 근처로 연결되는 폐기된 철도 재개발의 일부로 조성된 공원으로 보행자 경로의 측면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열차가 설치되어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13 미포정거장 앞 미포 블루 라인 광장

공원의 총예술감독으로, 보행자 길의 설계, 휴지부의 설치물들, 시각적 정체성과 표지판의 설계에 책임을 갖는 우리는 주민들과 버려진 해안 지역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단계에 착수했다. 바다의 관측소와 두 개의 새로운 역을 위한 계획—이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은 파노라마식의 케이블카를 길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다—은 한국 스튜디오 무영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관계적, 자연주의적, 유희적, 스포티하거나 관광을 위한 등등의 몇 가지 수준에서 상호 공간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목적의 특성을 갖는 버려진 기반 시설 (이전 철도, 전차로, 고가 선로 등) 같은 잉여 도시 영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몇 가지 주기적인 설치물을 설계하여 그 길에 휴지(休止)를 둔다. 잔디의 거대한 풀잎을 닮은 높은 노란색 기둥은 인간과 자연의 풍경 사이에 전환점으로 공원의 입구를 의미하며, 넓은 코르텐 강

철 벤치는 철도를 따라 뻗어 있어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강철 아치는 부드럽고 간헐적인 곡선과 어우러져 새로운 사각형의 윤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설치물 중에는 오래된 콘크리트 터널의 아치 모양의 틈새에 단계별로 투명 크로마틱 필드와 함께 채색되어 열차가 지날 때 열차의 안쪽 혹은 밖으로부터 스트로보스코프(물체의 회전 진동을 관찰하는 장치) 같은 역동적인 풍광을 만들어내는 무지개 터널이 포함되어 만화경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방문객들은 이 장소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자연의 장관이 상호 연결된 길을 밟고 가면서 선형 구조물을 가진 공원을 통과하여 걷게 된다. 이 여정은 방문객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이야기 속 뼈대를 이룬다. 이 선이 따라가는 것은 단지 오래된 철도 선로로 되찾아 가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장소의 과거와 현재의 형태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공원 그 자체와 공원이 가능한 장소, 즉 경험에 의해 되살아나는 장소 사이에 통합된다.

따라서 본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포용과 지역 강화의 예를 통합 가능한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를 집단적 집으로서 바라보는 디자인 접근법을 근거로 진행된다.

디자인 포용력

포용력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려움이다. 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려는 요구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유럽대륙의 맥락에서 종종 아름다움의 쇠퇴와 거부가 나타나는 우리 도시 주변부의 장소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식과 계획을 영토의 관점으로부터 요구한다. 이러한 거부는

형태에서 본질로 전이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범 죄에 의해서 특징지어진 어려운 사회적 맥락의 개요를 보여 준다.

도시의 변방에서 제외되는 느낌은 사회와 공동체의 주변부로 주제를 이끈다. 이 맥락에서 디자이너는 이러한 소외를 해소하고 공간을 분해하는 임무를 갖게 되어 시민들이 도시공간의 중심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포용력을 염원하는 삶의 다양한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조화롭고 마음을 끄는 공간을 재창조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우리의 주변 환경(intorno) 이 가치를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중요한 것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깨닫게 된다.

디자인 실례에서, 이는 르네상스 건축가의 비전을 희미하게 회상하는 다성부(polyphonic) 도시의 건설 그리고 강력한 미학적 윤리적 가치로 구조화된 조정된 도시의 건설로 해석된다. “도시의 역동적인 과정은 보존보다는 변화를 향하는 경향이 강하다.”(알도 로시). 그렇다면 이것이 거주지역의 문제와 함께 도시를 정의하는 특성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장소의 혼)

그렇다면 모든 불가피한 변화가 가져오는 격변을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디자인의 열쇠는 무엇이 될까? 이 시점에서 나는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라틴어 표현으로 ‘장소의 정령’을 나타낸다. 장소가 되고 있는 혹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 “고대인들은 이것을 인간이 반드시 어떤 장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해해야만 하는 반대자로 인식했다”고 노르웨이의 건축가이자 비평가 크리스

티안 노르베르크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오슬로 1926-2000)는 자신의 에세이집 『지니어스 로사이, 건축의 현상학에 대하여』에서 쓰고 있다.

건축가가 새로운 공간의 설계에 접근할 때, 그들은 이러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 주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정체성 사이에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특정한 환경을 구분 짓는 사회 문화적 그리고 행동적 특징을 살핀다.

노르베르크 슐츠의 회상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행동이 일어나기 위한 올바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 장소는 따라서 행동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장소와 관련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다. 장소는 따라서 상관 관계에 있으며,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역사적인 공간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 지점에서 디자이너는 반드시 장소의 변형(morphing) 과정의 촉발을 시작해야만 한다. 나는 같은 이름의 책 『Space morphing, Temporary architecture, 공간 변형; 일시적인 건축』 파이프컨티넨트에디션, 밀라노 2007)에서 이렇게 이론화했고 따라서 전시 분야에 적용했다.

지역의 정체성과 집단의 기억은 살아 있는 독립체로서 이는 인간 공간의 건설을 위해 장소의 정신적인 것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정신적인 것에 의해 생성된 변형의 지속적인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소환된다.

토리노의 예 : 사건과 정체성

마라 세르베토와 이탈로 루피와 함께, 필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건의 고무적인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토리노 시(이탈리아 북부)를 위한 설치물을 만

들었다. 첫 번째는 2006년 제20회 토리노 동계 올림픽 픽이었으며, 두 번째는 그 후 2011년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 행사였다.

첫 번째 경우, 우리는 「도시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탈리아 도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행사 중 가장 크고 광범위한 대중을 위해 조직된 영상 프로젝트였다. 여기에는 토리노 중심부와 그 지역에 고정된 역동적인 250개 이상의 설치물의 그룹이 포함되었다.



이탈리아 토리노시 곳곳에 설치한 조형물 - 이코 밀리오레 작

우리는 도시의 역사에 의존하여 도시환경 장식, 식별 표지를 개발했다. 이곳은 기념비적 건축물이 풍부했으며 과거에는 사보이아 왕가의 권력의 중심으로 유명했다. 이는 하나의 사건이 그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장을 촉발할 뿐 아니라 또한 집단의 기억 깊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일시적인 사건을 알릴 기회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도시의 정신 그리고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전달할 기회였다.

선홍색으로 된 11,500개가 넘는 요소에 의해, 우리는 토리노 시내의 격자무늬 위에 일종의 도시 휴지부를 건설했다. 이는 교외를 향해 뻗어나간다. 이것은 리브랜딩(re-branding) 절차였으며 이 절차를 통해 도시는 전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고 스스로와 지역 문화 유산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기억할 만한 개인적인 도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강력한 기준에서, 향후 몇 년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 설치물들을 계속해서 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마을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로마의 토리노, 과리니, 주바라, 비토네의 바로크 시대의 토리노, 아토넬리, 메테 트루코, 렌초 피아노의 근대 토리노, 강력한 산업 도시는 화려하게 채색된 진부한 광고들로부터 소통을 막기 위한 간섭을 형성하고 있다. 2차원적인 그래픽과 3차원적인 간섭물들은 스스로를 복잡한 도시 영상 프로그램에서 간결하게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였다. 포스터, 간행물, 안내 책자, 플래카드, 배지 등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에서는 없었던 것들에 의해 편성되었다.

혁신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올림픽 위원회의 요구를 면밀하게 고수해야 하는 많은 가변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복잡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것은 열정을 가진 시민들이 마주하게 된 큰 성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전체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의 모습」이라는 작품이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토리노 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열정의 분위기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2011년 토리노 시에 작업을 위해 돌아왔다.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의 행사로 우리는 토리노와 로열 베나린 성을 위한 설치 경쟁에서 우승했다. 이 집단 기억의 주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탈리아 국가의 첫 번째 수도로서 이탈리아 공화국의 역사에서 토리노의 주요한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피에몬테의 토리노를 위한 새로운 도시 장식과 소통을 위한 그래픽을 디자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색인, 인디고와 라벤더 사이에 중간쯤에 독특한 색인 '리소그리멘토 블루(Risorgimento Blue)'를 특징으로 한다. 이 색은 집단의 상상에서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 색은 삼색기-이탈리아의 백, 적, 녹색의 국가의 사용에도 부합한다. 즉 여전히 널리 사용된다. 특징적 방법에서 해석된, 삼색 이탈리아의 상징은 깃발을 광학적으로 재창조한 모자이크 패치워크의 조합에서 변화하고 해체되었다.

몰레 안토넬리아나에 조명 설치-역사적인 건축물이며 토리노의 주요 상징-는 이탈리아 깃발에 바치는 특별한 헌사이다. 이는 또한 문화적 식별을 위한 지형지물로 여겨진다.

이 인상적인 조명 설치 때에 이탈리아의 깃발은 돔의 꼭대기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밝은 정사각형 모양의 매달려 있는 조명 프레임들로 요약된다. 백, 적, 녹색의 LED 조명으로 이루어진 이 우아한 밝은 목걸이는 9개월 동안 기념의 강력한 반복적인 상징이 되었고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소통 그리고 전시 간섭물들은 영토 전체에 펼쳐져 있었다. 이것은 2011년 3월에 설치되었으며 이 도시의 시민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면서 이 설치 기간은 2012년까지 연장되었다.

도시 구조를 넘어서서 두드러지고 밤의 스카이라인에서 더욱 기억되도록 만들어진 이 설치물은 토리노와 과거 토리노의 시민들이 했던 선도적 역할을 상기시켰고, 통일의 길고 어려운 과정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었다.



Via Montebello, 20, 10124 Torino TO, Italy 몰레 안토넬리아나

적을수록 지루하다

토리노 프로젝트를 특징지어온 의미와 표지의 층위의 겹침은 건축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또 다른 문제에 강세를 둔다. 바로 복잡함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면서 복잡함은 매끈하게 바꾸고 거부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었다. 반대로, 필자는 복잡함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디자이너에게 그 잠재력이 달려 있다고 믿는다.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 필라델피아 1925~2018)-주요 포스트 모던 이론가 중 한 명인 미국 건축가-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선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건축에서의 복잡함과 모순'(1966)에서 건물의 복잡함과 모순적인 활력은 항상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생각을 도시의 기구로 옮기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이것 역시 일정한 수의 모순과 일관성 없음의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고, 복잡하고 비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하여 도시의 공간의 잠재적인 저변의 불규칙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이다.

사실, 복잡함은 현실을 표현한다. 삶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실인 영토가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에 의해 복잡함은 현실에서 나올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이론가가 주장한 것처럼 '적을수록 지겹다'는 것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이렇게 덧붙여야 할 것이다.

팬데믹이 디자인에 끼치는 영향



이코 밀리오레 교수가 설계한 패턴에 따라 500m 해안 길에 40명의 예술가가 색을 칠한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어쩌면 벤추리는 지난 2년간 삶을 편안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디자이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코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논리에 따라 도시 지역을 디자인하라는 요청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부산시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프로그램의 틀에서 필자가 요구받은 것이다. 그 틀에서 필자의 스튜디오는 아트소향 갤러리와 몇몇 한국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영구 내에서, 사실 40명의 예술가가 해안가를 따라 500m 길이의 좁은 길을 정의하기 위해 필자가 대규모로 디자인한 패턴에 색을 칠하여 민락수변 공원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켰다.

그림 그 자체로 해변을 따라 길을 표시하고 여기에서 멈추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거리를 제안한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미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다른 지역의 디자인은 과도 표시와 해상요소들에 의해 주어진 지속성에서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이야기의 리듬은 주제와 관련된 시각형들로 구성된 4x4m인 더 넓은 지역과 2x2m의 더 작은 지역에서 전개된다. 각각의 지역은 길의 휴지부를 위한 특정 색상과 그림으로 특징지어지며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하게 된다.

결론

“도시는 시간의 모양을 형성한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와 두려움에 의해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라고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지식인이자 20세기 작가(하버나 산티아고 1923~이탈리아 시에나 1985)『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말한다. 그리고 필자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인간사에 따라 조절되는 도시의 능력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모든 프로젝트는 같은 매트릭스를 공유한다. 도시의 역사와 기억을 보전하는 동안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의 그들의 모습에서 달라질 것이라 상상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발자국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정 기억은 또한 칼비노의 비전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도시』를 우연히 상상해 낸 것이 아니다. 그 또한 미래를 위한 모델로서 작용하는 과거에 닿을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미래는 말할 필요도 없이-최초에 지어져야 하고, 그리고 디자인되지만 우선 상상되어야 한다.

칼비노의 책을 읽는 것은 상상의 정신적 과정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비노의 작품 『독자의 추론』에서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트 에코(알레산드리아 1932-밀라노 2016)가 이론화했듯이, 독자의 추론은 무형적이며 이론적인 수준에서 작가가 상상하는 것을 디자인의 사물과 대상에 기초한 수준에서 재생산하도록 고무된 건축가의 추론이 된다.

칼비노는 건축가에게 도시의 상상을 본질적으로 우리의 도시들이 동정하는 물질의 쇄신 과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도시적 상상을 제공한다. 만약 그의 책에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들이 유명한 작가가 어딘가 다른 곳을 상상해낸 세상을 번역해 낸 것이라면 이는 건축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마치 현대의 폴리치노¹⁾처럼 보이지 않는 실을 다시 구성해야만 한다. 도시 구성 전반의 관계, 이는 그저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또한 도시의 이미지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관계이다.

진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어려움은 수직적인 유희 혹은 단순히 피상적인 포용을 목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준화에 이끌려가지 않고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이 도시의 외형적인 면뿐만

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기억의 회복에 의해 가능하다. “도시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간의 측정과 과거의 사건 사이에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 과거는 도시에 담겨 있다. “마치 손금처럼 길거리의 한편에, 창문의 격자에, 계단의 난간에, 안테나의 피뢰침에, 깃대에, 굽힌 자국, 틈니, 절개, 저밑에 의해서 자국이 남은 모든 조각에 쓰여 졌다.”(칼비노)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임무는 그 도시에서 배어나오는 정체성, 그 기억을 탐색하는 것이며, 근대성의 수단으로 그것을 심하게 부정하는 위험성을 피하고자, 대신 끊임없이 검증되기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포괄할 수 있는 관점 안에서, 그것을 포함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코 밀리오레 프로필

건축가로 콤파소 도로(Compasso d'Oro)상을 3회 수상하고 레드 닷 디자인상을 11회, 독일 디자인상을 2회 수상했다. 밀라노의 폴리테크닉대학교 디자인과 교수이자 동서대학교의 석좌 교수이다. 1997년 마라 세르비토와 함께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밀리오레+세르베토 스튜디오(Migliore+Servetto Architects)를 설립하여 중요한 국제 브랜드 및 박물관 연구소, 그리고 도시들과 협업하고 있다.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작품은 공간 디자인과 정체성 사이에 관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또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형태를 목적으로 하는 빛과 새로운 기술의 표현이 특징이다.

1) 부모가 산 속에 버린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동화 속 어린 주인공의 이름-역주

일상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휴먼시티



최경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인간적인 도시(Human City), 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서 길을 찾는가?

오늘날 약 77억 명의 인구로 추정되는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로의 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중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생태 기후 변화, 경제적 격변, 도시화를 향한 범지구적 현상은 인류 삶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조엘 코트킨(Joel Kotkin)은 그의 저서, 'The Human City: Urbanism for the Rest of Us'에서 '휴먼시티(Human City)'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코트킨은 도시민 가족 일상의 필요와 삶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둔 '인간 중심의 도시' 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가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혁신 도시'와도 맥을 같이하는데, 이제껏 도시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물리적 인프라, 차량, 기술에 집중하느라 간과해온 사람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평화롭던 일상과 활기찬 도시의 삶이 불안, 격리, 단절이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 안전, 지속가능성의 미래,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적인 가치가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의 일상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디자이너만의 고민이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의 삶의 주체인 사용자인 시민, 즉 거주민들에 의한 능동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과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우리들의 도시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의 행복한 일상 회복에 디자인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해본다.

일상이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휴먼시티 디자인' 가치를 실현하다

여기서 서울시가 2018년 이래로 '휴먼시티 디자인'과 관련하여 노력해온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휴먼시티 디자인'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다. '휴먼시티 디자인'은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위하여

도시, 삶, 사람, 사회, 환경, 자연 등의 디자인 문제를 다루었는지 즉, 도시 일상에서 삶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를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민·관·학·지역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변화되고, 그 속의 일상이 행복해진다.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 일상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2010년도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네트워크(WDO)로 서울시가 선정되었고, 서울시는 2010 WDO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을 기념하는 서울디자인 한마당을 주최하여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디자인 단일 행사로는 국내 최대 콘텐츠와 규모의 축제를 통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의 대중화에 힘썼다. 또한 2015~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선언 이후 서울시는 유엔 SDGs 연계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의 미래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 지속발전가능 목표 2030'을 발표하였다.



[사진1] 서울 DDP에서 열린 2019 HumanCity Design Award 시상식

2018년에는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들을 중심으로 디자인계가 함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여 '휴먼시티 디자인'의 정신을 선언하였다. 첫째, '디자인 문제해결의 관점이 창의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과급효과가 있는가?', 둘째, '디자인이 인류와 환경이 공존

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의 문화와 문명의 미래 비전 제시에 기여하는가', 이 두가지가 바로 '휴먼시티 디자인'의 정신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아젠다 속에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여 세계적인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제창한 '휴먼시티 디자인 선언'은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휴먼시티디자인 서울'은 사회적 디자인 개념과 아시아적 유기체적 세계관이 조화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Human City Design Award)'를 2019년 제정하였다. '휴먼시티 디자인 선언'으로 탄생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는 공존, 환경, 협력이라는 희망의 출구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 어워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복합적인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사람, 사회, 환경,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디자이너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한다.

지난 2019년 제1회 시상식에는 총 25개국 75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최종 대상에는 남아공 빈민촌의 아름다운 혁신을 이룬 '두눈(Dunoon) 학습 혁신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2020년 2회에서부터는 '사람, 사회, 환경,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창조'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에 기여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이 상은 사람중심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어떻게 함께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제2회의 공모전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30개국 99개 프로젝트의 참여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인기가 확산된 가운데, 2021년 3월 8일

DDP에서 시상식 및 일부 주제발표 행사가 온라인 화상중계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제2회 휴먼 시티 디자인 어워드 대상에는 이탈리아의 카운트리스 시티즈(Countless Cities)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외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서울시 관계자, 수상 국가의 대사 및 외교관, 디자인 관련 단체장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사진2-2] 서울 DDP에서 열린 2020 Human City Design Award 시상식

행복한 일상의 회복,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별보다 빛나는 디자인이 피어나다 -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수상 사례들

사람이 디자인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협력과 소통, 변화와 용기가 채워진다. 세네갈의 소녀가 새로운 분수정원에서 교과서를 손에 잡게 되었다. 브라질의 쓰레기 더미에선 새로운 희망을 담은 희망의 타일이 만들어진다. 이탈리아의 마피아가 휩쓸던 마을에선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화의 향기가 다시 피어난다. 태국의 이방을 떠돌던 쿠키족과 꼬끼리는 고향의 안식처를 되찾았다. 한국의 추모공원에선 기억과 휴식, 그리고 모임과 세미나가 함께 한다. 인도네시아의 빈민가에선 벽화와 문화공간이 활기를 불어넣는다. 중국에선 공중 산책로가 도시를 이어줘 자연을 그대로 즐기게 한다. 콜롬비아의 강으로 나뉘었던 마을은 식물공원으로 이어져 교

류한다. 일본의 쇠락했던 도시는 호텔로 변신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브라질 빈민가에선 그 지역의 브랜드가 줄을 이어 탄생하고 있다. 빈부 격차, 갈등과 좌절, 낙후와 불평등을 몰아내는 것은 결국 사람. 사람이 중심에 서는 순간 협력과 소통이, 변화와 용기가 그 자리를 채운다. 디자인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환경, 변화와 긍정을 릴레이하게 한다.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는 그 릴레이를 잇는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창의도시 부산의 도시디자인에 또 다른 새로운 시사점과 생각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도서관과 운동센터의 디자인을 통해 어린이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두눈 (Dunoon) 학습혁신프로젝트



[사진3] 제1회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받은 두눈(Dunoon) 프로젝트

제1회 어워드 대상을 받은 두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 두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가난한 동네로 지난 몇 년간 빠른 도시화와 그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슬럼에 사는 아이들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방법

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 없이 혼자서 보내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마약 거래나 기타 범죄 행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2013년, 리제 크루거-파운틴은 지자체 및 지역민과 함께 대형 컨테이너를 활용해 버려진 필지에 지역 도서관을 세웠다. 이어서 분수와 체육관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모이고, 놀고, 책을 읽고, 손과 얼굴을 닦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2)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버려진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다

- 이탈리아의 파바라 도시의 카운트리스 시티즈 (Countless Cities) 프로젝트



[사진4] 제2회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받은 이탈리아의 '카운트리스 시티즈(Countless Cities)'

제2회 어워드 대상을 받은 '카운트리스 시티즈 (Countless Cities)'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황폐한 시골마을 파바라에 열린 커뮤니티, 예술 중심지 공간으로 바꾼 비엔날레 개최 프로젝트이다. 지역민, 예술가, 건축가 및 세계 도시들의 참여로 버려진 농촌 도시 전체를 활성화시켜 도시, 국경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넓혔다. 거의 버려지고 폐허화 되었던 파바라 중심지를 현대 예술을 전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야심찬 도시 재생 프로젝트이다.

파바라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아름다운 마을이었으나 오랜 세월 쇠퇴하면서 도시는 마피아에게 공간을 내주고 쇠락했다. 2010년 마을 최초로 팜 컬처럴 파크(Farm Cultural Park)라는 민간 문화센터가 예술, 문화, 교육을 도입해 버려진 역사 지구를 주요 관광명소이자 문화 명소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자신감과 열정이 지역에 확산되며 파바라를 젊은이들을 위한 도시로 변모시켰다. 문화 예술의 도시, 실험의 도시,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적 창의적인 생각의 실천으로 작은 세계 디자인 창의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실천에는 다음 세 가지의 핵심이 있었다. 거버넌스, 회생과 탄력적 도시민, 그리고 깨어난 청년들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전시와 파빌리온은 파바라 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와 자기 자신을 계발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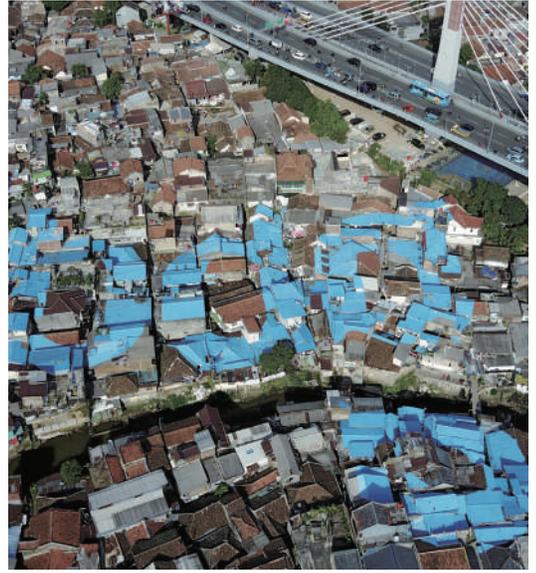
사회적 기업에서 시작한 프로세스의 주안점은 도시의 개선에 있어 각 시민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이 직접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10년 안에 파바라의 모든 시민이 주차장, 임대주택, 문화센터, 어린이집의 일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 파바라 협회는 도시의 경제 엘리트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인 참여의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 훈련과 직장에 젊은 피를 수혈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파바라에 와서 살고 싶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들은 도시에서 좋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파바라 지역에서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풍부하고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거주지의 제공, 교육 및 직업의 제공,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전략 및 행동의 채택 등이 그것이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시골 마을 파바라 중심부에 위치한 낡고 반쯤 버려진 집을 현대 미술 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삶에서 도시를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심사위원장 찰스 랜드리는 “예술의 영감을 받은 도시디자인을 통해 도시 전체를 재 활성화한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팀 디자이너 안드레아 바르톨리 (Andrea Bartoli)는 “예술가나 전시회가 유목민이 되어 육체적, 정신적 국경을 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이는 국경을 초월하여 언어와 문화를 모든 방향으로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세계 도시 비엔날레인 ‘카운트리스 시티’의 최초 에디션을 개최하였으며,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신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3) 비행기 교차로 옆 슬럼을 문화적 명소로 일으키다 - 인도네시아의 에어본 닷 반둥(Airborne.bdg)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반둥시 비행장 옆 슬럼 지역 ‘링가와스 (Linggawastu)’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소속감,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옥상 벽화 프로젝트로써 반둥 창조도시포럼 (BCCF)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옥상벽화를 통해 공동체 문화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에 대한 반둥의 약속의 일부이며, 반둥의 브랜드인 ‘bdg’의 도시 규모의 물리적 외관을 구축하여 UCCN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의 도시로서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bdg’는 (‘점’ 앞에 언급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별적 특성과 반둥시를 향한 집단적 소속감(‘점’ 뒤에 ‘bdg’로 약칭)을



[사진5] 반둥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작품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2008년에 만들어졌다. 로고/브랜딩은 또한 ‘dot com’ 시대, 연결의 정신, 그리고 사회 혁신을 위한 기술의 역동성을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Airborne.bdg이 적용된 위치인 링가와스는 반둥이 ‘디자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구현하는지를 대표하는 곳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실천하는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다.

에어본 닷 반둥, ‘Airborne.bdg’의 뜻은 지상 40m에서 반둥 브랜드인 ‘bdg’가 완전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최종 결과를 나타내며, 공기를 통해 창의력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옥상 벽화 그 자체는 링가와스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년간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 시민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이다. Airborne.bdg 옥상 벽화는 또한 디자인과 창의성을 계속 실험하고, 도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전략적인 방법이 입증된, 그 지역의 거대한 ‘스탬프’라고 볼 수 있다.



[사진6] 에어 본 닷 반둥(Airborne.bdg)의 스탬프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반둥시 슬럼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디자인, 창의성, 공원 녹지, 하천, 공공예술, 집합적 도시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향식 시범사업으로 2013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 BCCF는 지역 폐기물 은행과 협력하여 재활용 제품을 개발하고, 인근 사회적 및 창조적 산업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수년간 지역민들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계획이 단계별로 잘 실행되어 드론의 도움으로 투영된 .bdg 패턴에 따라 약 150개의 옥상이 도색 되었다. 심사위원 스테파노 미셀리는 “공예와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상향식 개발 지역 브랜드와 사회적 정의를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4) 마케팅 기획과 디자인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환경을 가져오다

- 브라질의 벨로오리존치 도시

‘Design Meets The Corre, Fa,vela’ 프로젝트

브라질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자 도시의 빈민층 중 3번째로 큰 벨로오리존치(Belo Horizonte)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Fa,vela’는 브라질 최초의 빈민층 기반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가속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 커뮤니티의 기업가적, 기술적,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조직이다.

홍합 껍데기 재료로 건축 타일을 만드는 작업이 대학연구소, 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디자인 미츠 더 코히(Design Meets The Corre : 디자인 일상을 만나다)’ 프로젝트는 2016년 낙후된 ‘파.벨라’ 지역의 기업을 위한 시각적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창출을 목표로 브랜드의 탄생과 성장 촉진을 지원하였다. 프로 보노(pro bono publico)에서 일하는 도시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힘을 모아 미용실, 음악학교, 커피숍 등 90여 개 사업체의 새로운 브랜드와 로고를 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새로운 기회의 개발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환경에서 사업체들을 참여시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것이다. 90개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고 167개의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598개의 새 직업이 만들어졌다. 디자인의 본질은 디자인을 통해 그 주변 삶을 행복한 일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이다. “디자인과 마케팅이 결합해 창의적인 제품개발로 빈민가를 실제로 변화시킨 활기찬 프로젝트”라는 심사위원 찰스 랜드리의 평을 통해서 이 사례의 특별함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래 행복한 도시 일상을 위한 디자인을 꿈꾸며

이상과 같이 디자인을 통한 도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의 공통된 특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민들의 공감과 지속적인 실천이 긍정적인 도시의 에너지들을 만들고, 그 도시의 거주민들만이 아닌 방문자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속 가능한 소통의 참여 의지가 있



[사진7-1] 홍합 껍데기가 가져온 신화



[사진7-2] 지역산업 이끈 디자인 커뮤니티



[사진8] 사회변화로 경제활성화 사례



[사진9] 홍합껍질의 산업 제품으로의 변신

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공감하고 실천하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라는 디자인상의 의미를 넘어 우리 도시민의 미래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디자이너들에게는 인간 중심의 도시의 가치를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도시의 디자인이 이제 산업·경제적 수단을 넘어서서, 도시민의 일상 삶과 소통하고, 환경과 같은 공공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여 그 가치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해외사례는 부산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디자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와 행복한 일상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디자인의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치유기능을 확대

해나가는 ‘인간 중심의 도시디자인’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티의 창의적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룬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준 가치지향적 도시디자인의 접근법을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해보면 어떻게?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에 기여할 ‘휴먼시티 부산’을 새롭게 그려보며, 그 속에서 행복한 부산시민의 일상을 상상해본다.

최경란 프로필

2001년부터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 생테티엔 디자인 비엔날레(Sain-Etienne Design Biennale) 한국관 초청 감독, 서울디자인한마당 총감독(2010), 트리엔날레 디 밀라노(Triennale Di Milano)에서 열린 <바이탈리티 : 코리아 영 디자이너 Vitality : Korean Young Designers>전 기획 총괄 및 초청 큐레이터(2011~2012),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2015) 등을 맡았다. 2020년 12월 이탈리아로부터 기사(Cavaliere) 작위 및 친선 훈장을 수훈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2018.04~2021.04).

도시 고유의 장소성 살려 시민에게 감성적 힐링 주길



우 동 주 (주)상지건축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처음 수채화를 배울 때 일이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팔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솜씨였지만, 그림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 순간 나는 '몸은 늙어도 사람은 감성이 살아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성의 힘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인간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좋은 음악과 그림, 아름다운 풍경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평소 벗어날 수 없지만 인식하고 있지도 않아 소홀하기 쉬운 것이 공간에 대한 감성이 아닐까? 실제로 현대인들은 분위기 있는 카페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행복감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시간과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매일 살아가는 집과 사무실 그리고 도시와 같은 공간이 주는 감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공간과 감성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드물다.

TV에서 7일간의 기적이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실험과정으로써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새로운 공간

보다는 익숙한 장소가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오래전의 익숙한 장소란 젊은 날 생명력 넘치던 그 시간 속의 기억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이 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공간 속에서 단 7일 동안의 생활만으로도 건강이 훨씬 나아지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공간에서의 감성은 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편리한 새 아파트보다 낡았지만 오래 살았던 집을 노인네가 고집하는 이유를 일견 이해하게 된다.

미국의 로저 울리히(Roger S. Ulrich, Ph.D., EDAC) 박사는 수술환자들이 병실 공간에 따라 회복 기간이 달라짐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1984년). 자연풍광이 바라다 보이는 병실에서 지낸 환자가 벽체만 보이는 환자보다 회복이 빨라 일찍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창문의 조망이 면역체계의 치유과정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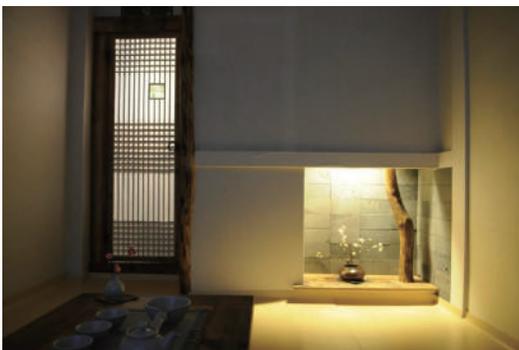
영국의 해밀턴(Dr. David R. Hamilton) 박사는 2012년 'How your mind can your body'라는 책을 통하여 힐링된 마음은 몸까지 치유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경건축학회(2002)가 발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경건축연구회’ (2010)가 발족하여, 공간에서의 감성 변화가 뇌와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 사람은 왜 첫 월급으로 의자를 살까』라는 책에서 저자 오자와 료스케는 공간에 있어서 의자와 같은 소품이 가지는 공간감성에 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덴마크 사람들은 의자를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갖추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란다. 첫 월급 타면 주로 옷을 산다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말하자면 행복한 삶의 원천은 곧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노 케이쥬는 『부자의 방』에서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를 경제적 투자가치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감성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가꾸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사진은 획일적인 아파트 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한옥 분위기로 바꾼 경우이다.



아파트 방을 다실로 꾸민 경우



아파트 방을 한옥으로 변경

범위를 넓혀서 도시 스케일에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그동안 광범위한 도시 개발과 재개발을 진행해왔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 개발이 획일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특성 있는 도시공간이 훼손되거나 고유한 장소성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다.

입지적 특성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과정에서 기존의 장소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시해온 개발패턴으로 인하여 디자인은 점점 단순화되었다.

정육면체 건물과 똑같은 도로 계획이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장소와 공간이 서로 비슷해져서 이제는 구분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획일화되어 가는 일상의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감성에 맞는 다른 공간을 찾는 일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가거나 산책로를 개발하는 등 자신만의 힐링 스페이스를 찾기도 한다.

‘슈필라움’ (spielraum) 용어는 나만의 여유 공간, 나만의 놀이공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감천문화마을 골목



영도구 현여울 마을



장소성을 구현한 가로형 단지 개발(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얼마 전부터 기장 해변의 카페가 인기다. 최근에는 낙동강 샛강이 바다라 보이는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러한 곳이 현대인들에게는 힐링할 수 있는 감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일 것이다.

획일적 개발패턴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서 디자인 영감 이끌어내야

그렇다면 공간은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

이제는 확 밀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개발패턴을 지양하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던 장소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 사업의 개념도 지역 고유의 특성으로부터 디자인 영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확 밀어버린 양정2지구 재개발 지역

주택개발의 경우 기존 가로와의 맥락 관계를 살펴보고, 대단지의 경우는 소규모 블록으로 나누어 조닝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변의 환경적 요소를 섬세하게 고려하여 장소적 특성을 강화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 환경을 무시한 획일적 탑상형 주거 단지를 만드는 디자인은 흔해 빠진 장소로 귀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근대화과정의 산물인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편과정을 벗어나 그 도시 고유의 장소성을 복원하는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시대적으로 근대화 이전 양식의 감성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서울의 청계천이나 부산의 동천 복원은 그 지역 고유의 장소가 지니고 있던 공간적 감성의 복원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디자인교육은 여전히 단일 건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 공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공간을 규정하는 행위는 공적 공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건축디자인의 공적 공간에 대한 기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도로와 교통 같은 기능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과정에 원인이 있다. 이

러한 계획과정이 끝난 후에 남겨진 공간으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자연히 그 결과는 무미건조하게 마무리되기 십상이다. 하나의 건물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감성적으로 풍요로운 장소를 만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에는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장소가 적지 않다. 감성적 힐링이 될법한 장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것은 도심에 산이 많아 경관이 매력적인 곳이 많고, 강과 바다가 가까이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이란 바꿔 말하면 시간이고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이 달라지면 생활의 질과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작은 공간에서부터 도시공간까지 감성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우동주 프로필

대한건축학회 부·울·경 지회장(전), 동의대 명예교수, (주)상지건축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해운대 미포 길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계류장

일찍부터 여러 계획 세웠지만 공원녹지 부족 등 과제 산적



우 신 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디자인, 왜 중요해졌는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사이의 경쟁보다는 도시 사이의 경쟁이 더 주목받았다.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업들도 모여든다. 세계의 많은 연구소, 국제기구, 신문사와 잡지 등의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도시 사이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순위의 상위권에 랭크된 이른바 글로벌시티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 도시들은 글로벌시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정책을 집중시켰다.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케팅해야 하는 상품이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한 교통 터미널이나 광장에는 각 도시의 광고판이 주요 자리를 잡았고, KTX 객실 모니터에서도 도시의 광고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도시를 마케팅할 때 관광객, 기업 혹은 새로운 주민들에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 제도, 세제, 물류, 교통, 서비스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

인 중의 하나가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이다. 도시디자인을 통해 잘 디자인된 장소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¹⁾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자체들은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조직을 앞다퉈 설치하였다. 부산시에서도 2008년 행정부시장 직속의 도시경관기획단을 신설하여 경관정책, 경관조정, 공공디자인, 디자인지원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을 주요정책으로 도입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주요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7년에는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두 개의 법이 제정되었다. 바로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이었다.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대상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며, 공간환경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포괄한다.²⁾ 따라서 건축기본법의 적용 대상도 개별 건축물 뿐만 아니라, 가로와 광장을 비롯한 공공공간까지 포함하는 도시디자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English Partnerships & Housing Corporation, Urban Design Compendium 2 : Delivering Quality Places, p.3

2) 건축기본법 제3조

경관법에서는 ‘경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³⁾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는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⁴⁾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률은 2016년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 공공디자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사용되었으나, 법은 꽤 늦게 제정된 편이다. 이 법에서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⁵⁾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산의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계획들이 수립된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의 결과물로 나타난 부산의 현재 도시디자인을 반성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부산 어메니티플랜 (1994)

부산이 경관이나 미관과 같은 도시환경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수립된 <부산 어메니티플랜>이라

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어메니티(amenity)’라는 용어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어메니티란 “총체적으로 쾌적한 물리적 환경의 상태로서 환경의 질”이며, 어메니티플랜은 “현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으로 가장 기본 좋다고 느끼는 쾌적한 물리적 환경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생활공간 전체를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고 창출하는 물적 계획과 프로그램적 계획”을 의미하며, “지역의 환경적·사회적·문화적 특성 등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기능과 성격을 파악·분석하고 그것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구체적 시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⁶⁾

<부산 어메니티플랜>은 주거환경 어메니티, 도시가로환경 어메니티, 역사문화환경 어메니티, 자연환경 어메니티 등 분야별로 도시의 어메니티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가로경관 개선, 스카이라인과 야경의 보전과 개선, 워터프런트의 활용과 관련한 계획방향과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5년 부산시는 도시계획과에 도시미관계를 신설하고, 1999년에는 부산의 볼거리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연자원, 공원녹지, 역사자원, 문화자원, 생활자원을 모아 ‘부산 어메니티 100경’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부산 어메니티 100경’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자 ‘관공서의 폐쇄적 형태’, ‘무질서한 간판’ 등 부산 어메니티를 저해하는 10대 요소를 선정하여 개선운동에 나서기도 했다는 점이다.⁷⁾

3) 경관법 제2조

4) 경관법 제9조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6) 김세용 외, ‘어메니티플랜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1호, 2003.01, p.176

7) 연합뉴스, 1999.11.20.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던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도시어메니티보다는 농촌어메니티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개별 시설물이나 공원 녹지 등의 구체적 장소의 쾌적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도시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점점 사라져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2003)과 부산건축기본계획(2012, 2018)

부산에서는 매우 특이한 건축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03년 부산에서는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에서 건설되는 건축의 목표를 정립하였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도시경관·가로환경 및 건축물 높이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 이 계획이 단순히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도시환경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마스터플랜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지어지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건축상의 이름도 ‘부산다운 건축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른 도시에서는 대부분 그 도시의 이름만을 붙여 ‘00시 건축상’ 혹은 ‘00시 건축문화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향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한 시도였다.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에는 ‘부산다운 건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부산다운 건축은 부산성을 살린 건축”이며, “부산성은 개방성, 민중성, 해양성”을 바탕으로 하며, 부산성의 건축적 이미지는 “다양한, 열린, 투박한, 역동적인, 끈질긴, 어우러

진” 등으로 나타나며, 부산성 가꾸기 기법은 “장소별, 건축물별, 경관별로 차별화된 보전, 육성, 창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⁸⁾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부산다운 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많은 건축물들이 ‘부산다운’을 바다, 파도, 바람, 갈매기 등의 피상적인 형태의 건축화로 이해하여 갈매기를 형상화한 지붕이 있는 자갈치 시장과 같은 건축물이 2006년도 부산다운 건축상의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매년 ‘부산다운 건축상’의 심사위원회에서도 ‘부산다운’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건축전문가들은 ‘부산다운 건축’에 대한 논란을 그만두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2019년에는 결국 ‘부산다운 건축상’의 명칭을 ‘부산건축상’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시대에 건축의 ‘지역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건축의 보다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여 세계적 수준의 건축을 지향하지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때 유행했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요즘 잘 들리지 않는 것도 비슷한 변화가 아닐까?

비법정계획이었던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은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산건축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으로 대체되었다.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대상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며, 공간환경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포괄한다.⁹⁾ 따라서 <부산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대상도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와 광장을 비롯한 공공공간 까지 포함하는 도시 디자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부산광역시,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 2003, p.31

9) 건축기본법 제3조

이 계획에서는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부산의 건축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부산의 건축이 지향해야 할 9가지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형태의 논란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였다.

2012년에 수립된 제1차 <부산건축기본계획>은 공공성, 심미성, 역사성, 사회성, 지속성, 환경성, 안정성, 문화성, 경제성 등 9개의 가치를 설정하였고, 2018년에 수립된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수준 높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요구,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 등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심미성, 역사성, 사회성, 안정성 대신 경관성, 혁신성, 생활성, 안전성을 새로운 가치로 설정하였다.

부산 녹화마스터플랜 (2003)

2003년에 수립된 <부산 녹화마스터플랜>은 '삼포지향을 이루고 있는 녹지골격을 보전하고 정비한다', '다양한 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녹지기반을 만든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복원한다',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부산포의 기적을 일구어 낸다' 등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시가지구역 내의 공원녹지의 면적을 7.3%에서 15%로 확충하여, 시민 1인당 실제 공원면적을 1.07㎡에서 3㎡로 늘리고,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형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가지공원 조성, 가로 및 공공시설 녹화 등 신규 녹지자원을 창출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와 녹화협정 등의 프로그램도 제안하였다.¹⁰⁾

공원과 녹지에 대한 계획은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정계획인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1년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부산 전역을 6대 산림축, 5대 하천축으로 잇고, 서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의 3개 권역에 상징공원 6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다.¹¹⁾

흥미로운 점은 총 4조4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 수립을 2015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일몰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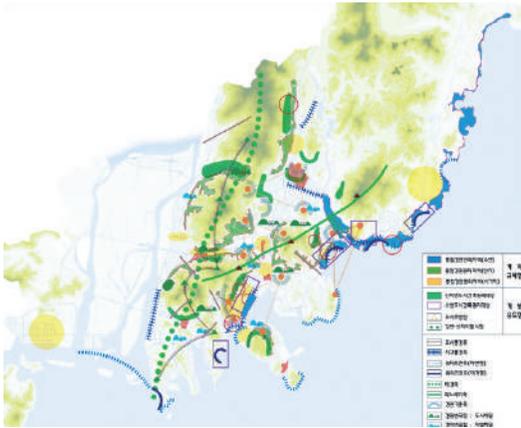
부산도시경관 기본계획(2005)

부산시가 도시경관을 도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하여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2005년이였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2020년의 부산 도시경관의 미래상을 '자연과 소통하는 Dynamic Metropolis'로 설정하고 '보전·육성 : 자연지형을 기본골격으로 한 산과 바다로 열린 경관', '체험·참여 : 일상 속으로 경관을 끌어들이 삶의 질 향상을 제감', '조정·관리 : 개선, 회복, 제거, 복원 등 수법을 동원한 도시경관 혁신' 등의 3대 경관관리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부산시의 경관기본계획은 사실 국가에서 '경관법'을 제정한 2007년 이전에 수립된 비법정계획으로 상당히 선진적인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에는 법정계획인 <경관

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2005, pp.159-162

1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nbtnews/166816>)



부산광역시 경관기본계획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경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부산의 경관을 산지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으로 경관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로 일반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경관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제시하여 경관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시한 테라스형, 지구형, 회랑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경관역과 녹지축, 수변축, 도심축의 세 가지 경관축, 랜드마크형과 결절점의 두 가지 경관핵은 이후 경관 관련 계획에서 자주 참조됨으로써 부산의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부산시 도시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된 이듬해인 2010년에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관을 다루는 도시경관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을 다루는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즉 이 계획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 내에는 경관현황조사 및 자원조사, 도시경관 미래상 설정, 경관계획, 실행계획,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었다.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공간디자인 현황조사 및 자원조사, 도시공간디자인 미래상과 추진전략 설정, 도시공간디자인 계획단위 정립, 도시공간디자인 실행계획, 시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매뉴얼을 포함하였다.

이 계획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이듬 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 이전의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경관 가이드라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다.

색채계획과 야간경관계획

2009년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특정 경관계획의 하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부산의 경관색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색채의 유도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계획 기준년도인 2008년 현재 부산의 현황색채를 바탕으로 부산의 지역색을 추출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부산의 이미지색을 도출하여 부산의 경관색을 설정한 것이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색은 부산을 대표하는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별, 지역별 색을 추출하였다. 부산이미지색은 해운대, 갈매기,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광안대교, 자갈치시장, 불꽃축제, 금정산, 부산항야경 등



부산색채계획의 수변권-해안권 경관색

16가지의 경관, 장소, 건축물, 구조물, 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에서 연상되는 색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선정한 부산지역색과 부산이미지색으로부터 주조색 12색, 보조색 12색, 강조색 12색 등 모두 36가지의 도시경관색을 설정하였고, 권역별로 경관색을 구분하였다. 부산을 크게 수변권(해안권, 하천권), 내륙권(주거지권, 가로권), 산지권(해안산지권, 내륙산지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권장하는 경관색을 팔레트로 구성하여 건축물, 가로시설물, 교통시설물 등에 활용함으로써 '부산다운 색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색채계획은 부산경관색을 부산시나 자치구·군의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도시구조물, 건축물, 공공시설물의 색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경관색의 사용을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의대상은 부산의 경관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높이나 스카이라인 등은 경관계획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더 높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색채의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은 부산의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획의 하나이지만, 과연 특정한 색채군을 특정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집중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야간경관계획은 2004년에 1차적으로 수립되었고, 2007년 경관법의 제정에 따라 색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특정경관계획의 하나로 "부산의 정체성 강화 및 글로벌 미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서 야간경관조성"을 위해 2015년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었고, 2020년 이 계획을 보완한 2차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이 재수립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1, 2차 계획 모두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의 '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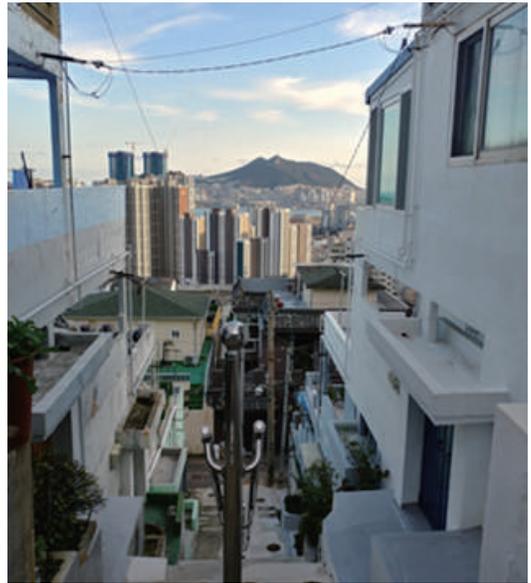
부산의 도시디자인의 현황과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시는 일찍부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공원녹지, 도시디자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경관기획단 같은 조직도 비교적 일찍 설치하였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어메니티와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건축, 공원, 경관, 공공디자인 등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들을 활발하게 수립하였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부산이 산업도시에서 탈산업도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변화와 겹친다. 부산의 경제를 지탱했던 제조업들이 역외나 해외로 이전 하면서, 부산은 관광, 금융, 영상, 물류 등 서비스 산업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의 도시디자인 현황은 부산시의 이런 오랜 노력에 합당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과거 도심 근처에 자리한 공장 굴뚝이 매연을 뿜어대고, 하천이 오염되어 악취로 진동하고, 불법 건축물과 간판들이 난무하던 산업시대와 비교하면 부산의 도시환경은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아리아부대를 반환받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수영강이나 온천천, 낙공강 등의 수변공간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광복로와 서면 문화의거리, 해운대 구남로 등은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시민을 위한 보행자 가로로 변한 대표적 거리들이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들이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에 들어서면서 지역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숙제로 남아 있다. 고층 아파트의 난개발로 인한 경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 조망이나 시민공원 조망을 위한 아파트들 사이의 높이 경쟁으로 시민들 사이의 조망권 갈등은 최근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북항재개발 지역과 원도심 중앙로 주변 상업지역의 고층 개발로 산복도로지역에서의 조망이 최근 크게 훼손되었다. 산복도로인 망양로(望洋路)에서 더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지역의 조망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높이는 여전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부족은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오히려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도시공원조차 개발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에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상되어 왔고 많은 계획을 수립했지만 일몰제를 막지도 못했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지도 못했다.

지금도 부산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공간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역시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설치 주체가 만든 각종 형태와 색상의 시설물이 각자 자리를 잡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잠식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 갈매길을 비롯한 수많은 탐방로들이 조성되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부산을 '걷고 싶은 도시'로 인정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

이다. 산지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산의 길에서는 보행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도 이동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의 도시디자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부산 도시디자인의 장기적인 비전의 설정과 공유가 필요하다.

도시디자인은 작은 시설물에서 대형 건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형성하는 결과물이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형성된다. 부산에서 수립된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도시 관련 이슈의 영향을 받았거나, 당시 시정의 목표를 추수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도시디자인의 장기적 비전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 목표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디자인을 위한 행정과 시민의 협치가 필요하다.

도시디자인의 장기적 비전이 바뀌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이 장기적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시장이 바꾸려고 해도 시민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지켜야 한다. 최근 부산시는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계획단이 제안한 도시의 분야별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반영한 바 있다. 평양과 같은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도시는 국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 행정만 단독으로 만들 수 없다. 도시디자인 협치는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민계획단 활

동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보다 지속적인 협치가 가능하려면 실천력을 갖춘 추진체계와 지원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가 좋은 참고점이 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의 지향이다.

지난 5월 우리나라는 P4G 정상회의를 주최하였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유치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를 늘리고, 공공건축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되고 있다. 민간건축물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단열기준 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이다. 자동차의 사용을 전제한 도시구조는 여전히 있다. 실내는 쾌적한데, 외부공간은 불쾌한 도시는 결코 지속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속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회복탄력성도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이 팬데믹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가 아니라 우리 집 주변의 작은 공원이기 때문이다.

우신구 프로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아시아도시경관상 한국대표 심사위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관문심사위원 및 평가위원,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2019-2020)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아미동 이야기 : 포개진 삶, 겹쳐진 공간』, 『도시재생 실천하라 : 부산의 경험과 교훈』(공저),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공저), 『일상과 주거』(공저) 등이 있다.

시민 만족감 극대화 위해 보행 중심 도시로 진화시켜야 할 때



한 영 숙 사이트플래닝 대표

일상 깊숙이 들어온 4차 산업혁명과 도시민의 삶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다. 다양한 사람이 도시에 모여들면서 생각의 교류가 많아졌고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로 혁신적인 발명과 발전이 가능했다. 창조는 다른 생각들이 만났을 때 스파크처럼 일어난다. 도시는 그런 우연한 만남을 가능케 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도시는 다양한 생각의 융합을 만들어내는 용광로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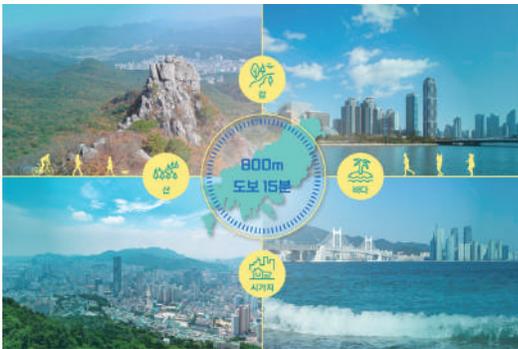
2021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시변화의 방향도 정해졌고, 속도도 내고 있는 중이다. 라이프스타일(일상의 행복), 스마트(똑똑하고 현명한), 그린(탄소제로)라는 새로운 사회인프라 위에 다양한 주제로 연대하는 플랫폼 공동체가 결합되어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요구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된 도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신인류(디지털네이티브)의 삶을 들여다보자. 첨단산업에 종사하거나, 다양한 플랫폼노동을 제공하며 이 동시간을 최소화한 직주여가가 결합된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확보한 잉여시간은 요리, 홈트, 산책, 가드닝, 서핑, 동호회 활동 등으로 일상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개인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20대들은 개인의 만족감만큼이나 최근의 이상기후와 COVID-19로 에콜로지라이프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이들에게 부산은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을까?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도시는 존재해야 한다. 지금은 자연과 삶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 자체의 매력을 어필하고 일상에서의 도시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보행 중심으로 도시를 진화시켜야 할 때이다.

부산의 매력을 살펴보자. 부산은 산, 강, 바다가 공간적으로 밀도 높게 응축된 다이나믹한 지형을 지녔다. 자연의 경계에서 시가지까지의 거리가 800m 내외여서 집을 나와서 10분 정도 걸으면 갈맷길이

나 해안이나 수변산책로, 동네 뒷산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자연과 일상의 공생이 너무나도 쉬운 도시가 부산이다. 최근에 다양한 테마가 있는 카페와 함께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걷고, 책 읽고, 쉴 수 있는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가 부산이다. 가는 곳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공간에서 다른 상상이 가능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인 셈이다.



산/바다/강이 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부산

훌륭한 자연환경의 틀이 있지만, 압축적인 개발과정에서 부산의 삶터는 국가 재건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반성으로 출발한 북항재개발 사업이기에 시민 중심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준공(2022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 이후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등도 특별한 시도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부산원도심'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항구를 품은 도시, 즉 '부산항도심'으로 바뀔 예정이다. '부산항도심'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항도심'의 지형골격을 들여다보면, 보수산, 구봉산, 수

정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보수천, 초량천, 부산천이 부산항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서면도심'은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의 지천들이 도심에 모여 큰 줄기의 하천인 '동천'을 만들고 북항이라는 바다와 만난다. 부산은 자연스러운 산수(山水) 생태계 속에 있다. 이러한 자연의 공간과 기존의 시가지와 산업공간, 새로운 도시공간이 결합되어 유니크한 부산다움의 공간으로 가꾸어 갈 때 경쟁력 높은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일상에서 도시혁신을 실천하는 시민들

부산의 산복지대와 도심부 하천, 항구와 바다가 이어지는 절절부에 위치한 곳이 동천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10여 년 간 추진되었던 북항재개발, 부산시민공원, 문현금융단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기존에 원도심에서 추진되었던 부산시의 정책사업들이 종합되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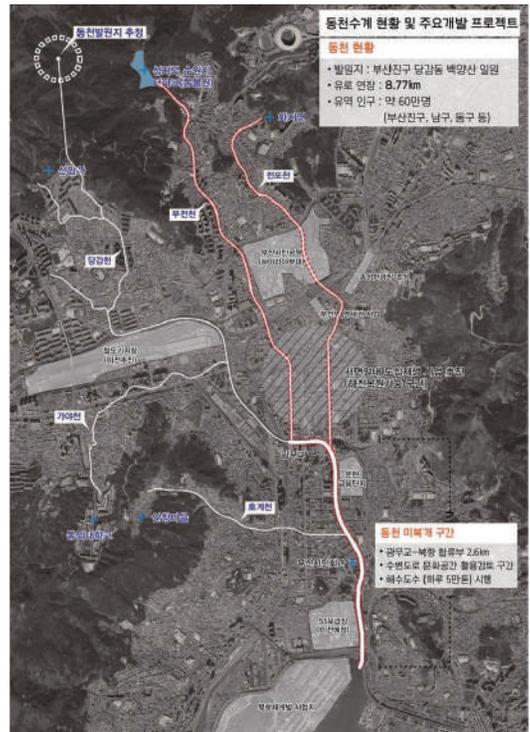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담당하게 된 부산은 급격한 산업화를 비교적 평지였던 동천 주변의 서면도심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동천변으로 공산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평지에는 공장, 배후산지는 집들이 뻗뻗이 들어서면서 동천은 오염되었고, 냄새나는 골치덩이가 되었고, 덮어버리고 싶은 하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부전천은 땅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2013년 겨울, '동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동천 시민참여단'을 지원운영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동천을 다시 만났다. '동천 시민참여단'은 동천 기본구상 활동에 참여할 만 20세 이상 시민들을 모집하여 생태환경팀·도시설계팀·유역공동

체팀으로 운영하였다.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동천과 관련된 교육을 듣고, 동천과 동천유역을 함께 걸으며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행정과 토론을 통해 동천재생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어나갔다. 특히, 맨홀 뚜껑을 열고 영광도서에서 시민공원까지 도로 밑으로 들어가본 풍경은 잊을 수 없다. 짊짊한 수로였지만, 비교적 부유물이 없는 깨끗하게 흐르는 동천을 만날 수 있었고,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들어온 햇빛에 작은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물이 공기와 햇빛을 만나면 썩어가지 않고,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 경험으로 단체 이름을 '숨쉬는 동천'으로 짓고 '동천탐사 트레일개발', '어린이 동천탐사단 운영', '숨쉬는 동천학교 운영', '호계천 현황과 수질개선연구', '동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동천에 대해서 배우면서 작은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부산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성급한 정비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부산만의 방식을 찾자'가 '숨쉬는 동천'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던 워크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호계천, 가야천, 당감천, 부전천, 전포천 등의 지천들이 살아서 동천(광무교~55보급창/북항)으로 흐를 수 있을 때, 산수가 연결되는 생태도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비점오염원의 관리,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 등 산적한 해결 과제가 많지만, 우선 지천과 지천마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천과 지천마을 주변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적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쇠퇴한 지역에서 '친환경 주거지에서 생태적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곳'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현재 지천마을의 지천은 콘크리트로 복개한 곳도

있지만 호계천과 당감천처럼 일부 구간은 열려 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의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천에 오물이나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 쓰레기가 있다면 꺼내는 일, 소하천 주변을 관리하는 일, 우수를 관리하는 방법 등 소하천의 재생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소한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동천과 동천유역(지천)의 현황

도심산업 융합과 걷는 도시, 부산

'부산항도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심의 산업을 재편하는 일이다. 물류가 나간 곳에 도심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기업의 유무로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이터로 보면 부산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이 대구보다 떨어지고, 지식제조업만이 일부 들

바다와 산지의 매력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계획

제조업과 물류업이 빠져나간 도심 상업공간을
지식서비스 기반의 해양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계획

일터(WORK)와 삶터(LIVE), 그리고 놀이터(PLAY&LEARN)가 함께 어우러져
쾌적하고 즐겁게 연결되는 북항과 원도심



부산항도심의 복합생활권

어서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내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기업 유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동남권 메가시티플랜의 주변도시와의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공간 연계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해양중심지(IMC, Inrenational Maritime Center)로의 리-포지셔닝이 필요하고, 해양 관련 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상호작용하여 발전한 도시, 물리적 활동인 인프라 중심 IMC에서 전문서비스 중심 IMC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프라(항만, 공항, 철도, 수변 및 친수공간 등 사회기반 공간인프라), 해양산업(조선·물류 등 전통산업과 과학·금융·바이오 등 신산업), 중추기능(R&D·금융·법률 등), 항구에서 보수산/구봉산/수정산이 보행으로 연결되면서, 북항은 콤플렉스 센터럴, 상업지는 비즈니스 벨트, 주거지는 창의주거, 산지일원은 도시여가문화벨트로 만들어 생활권 내에서 글로벌 교통을 중심으로 일, 여가, 주거 용도가 공존하는 도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기존 산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기에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산업 고도화가 어렵고, 신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관련 기업들과 인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학졸업 후 서울/수도권으로 취직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어서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개성이 강한 MZ세대가 소비자로서 부상하면서 특별한 경험, 유일한 장소, 나만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혁신 인재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열려 있는 해양도시가 가진 개방적인 DNA가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고,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며 계속 살아갈 것이다.

‘부산항도심’은 걷는 도시로 계획되어야 한다. 걷기로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바다부터 배후산지까지 위요(圍繞)된 시가지 안에서 걸어서 일하고, 만나고, 놀고, 살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기에 적합한 도시다. 그러기에는 배후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네로 바꾸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항구와 상업지역, 주거지, 배후산지까지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관되고 상호

작용하는 활력있는 길 위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감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우리집, 우리 이웃, 우리동네를 애착을 가지며 볼 때, 같이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배우고, 경험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다양한 삶의 패턴이 있는 생태지족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기회가 닿으면 시민으로서 소소한 실천도 잊지 말자.

보행환경 개선

건기 좋은 보행로 조성, 생활도로 다이어트



‘걷기도시 부산’이 만들어 낼 도시의 진화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고지대 이동 편의 개선



충혼탑 경사형 엘리베이터 하부 승강장

보행 활동 활성화

매력보행 증진을 위한 주제길 특화사업, 보행공간의 다기능화 전환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플라마켓'

한영숙 프로필

부산을 멋지게 가꾸고 싶은 대한민국 건축사로 건축공학, 디자인학,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2006년 사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경관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감천문화마을 보전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김해 봉하마을 마스터플랜, 북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용역, 산복도로 아카이브센터 계획, 우암소마마을 주거환경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다.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전략(교육, 포럼, 문화행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상은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의지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행복한 동네살이를 위한 33가지 이야기』(국토연구원), 『감천문화마을, 풍경이 된 공동체』, 『보수동의 공간과 시간』 등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공원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F1963,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바탕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윤지영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1. 시작하는 글

도시재생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비전과 방안'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¹⁾ 도시재생은 21세기 도시디자인에 있어 핵심 주제로 부산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도시재생 디자인 측면에서 부산의 대규모 사업으로는 2011년 시작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2014년 개장한 부산시민공원, 2020년 개장한 동해남부선 블루라인 파크, 2008년~2022년까지 진행되는 북항재개발(BPA와 부산시 공동)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키스라이어센터(고려제강 기념관, 2014년)도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재생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가운데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디자인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거재생 사례인 감천문화마을, 방치된 옛 공장건물을 새롭게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한 키스라이어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의 도시재생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산의 도시재생 디자인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1) 감천문화마을 : 문화예술로부터 커뮤니티의 재생까지

부산시는 2010년 창조도시본부를 만들어 민간전문가를 본부장으로 하여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추진하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장기간 손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산복도로 지역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 성공 여부가 전국적 관심을 모았을 정도로 부산시의 역점 재생 사업이었다. 2021년 현재까지 10여 년에 걸쳐 역사문화가 담겨있는 낙후된 산복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재생을 추진하였다. 과거에는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개발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자체, 전문가, 마을활동가, 주민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동구의 경우 이바구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으며, 특히 '초량 이바구길'은 사하구 감천

1) Peter Roberts & Hugh Sykes, URBAN REGENERATION, SAGE Publications Ltd., 2016

문화마을과 더불어 산복도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중구와 서구에 걸친 망양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거리갤러리미술제’ 등 공간재생을 매개로 문화 재생과 생활 재생이 연결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아미동 비석마을, 감천동 태극도 마을이 ‘문화마을’로 재탄생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²⁾



<그림 1, 2> 감천문화마을 작은 박물관 http://www.gamcheon.or.kr/?CE=about_02, 벽화와 녹화로 흥미롭게 재탄생한 마을 박물관이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

가장 대표적인 감천문화마을은 전쟁 이후 태극도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게 된 감천동 산복도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고자 처음에는 공간 중심의 재생이 이루어졌다. 뜻 있는 예술가들

의 ‘문화마을 만들기’ 작업으로 출발하여 점차 지자체, 설계사무소(사이트플래닝), 많은 전문가와 예술가,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공간적 재생뿐 아니라 문화콘텐츠가 담긴 장소로 재탄생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공스토리를 만들었다.

감천문화마을은 형형색색의 파스텔톤 계단식 집들과 하나로 이어지는 미로 같은 골목길, 마을 곳곳의 예술작품과 갤러리, 문화창작공간들이 한데 어우러진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지방 없는 미술관’으로 불린다.³⁾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목욕탕을 개조한 커뮤니티센터, 폐가를 활용한 기념품 샵, 바다 전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등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재생 디자인 사례들이 실현되었다. 물리적 환경은 예술가와 주민들, 마을활동가의 참여로 아름다운 벽화와 예술적 장치로 새 옷을 입게 되었으며(그림1, 2), 승효상, 김인철과 같은 유명 건축가의 전망 파빌리온이 설치되었고 공동화장실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도 점차 개선되었다. 또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민박)를 운영하거나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일부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도 향상되었다,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전시, 세미나를 포함한 문화 활동, 사회적 모임, 교육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와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2020

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00107.22009002200> 국제신문

3) https://m.gamcheon.or.kr/?doc=sub_05_03&act=view&skin=&tbl=news_01&stx=&sco_opt=&sco=&sort_field=&p=&idx=630&a_p=1

년 11월 감내 행복나눔센터가 개소식을 했고 감천 문화마을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감천집 등 밝히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협의회는 2014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고 2020년에는 '부산시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도자기·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마을신문 발행 등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천문화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림 3>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오래된 목욕탕은 커뮤니티센터로 변신했다. 목욕탕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로 탕 안에는 어르신 모형이 진짜인 듯 놓여 있다.



<그림 4, 5> 벽화로 꾸며진 한평공원과 마을 전경. jyyoon©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좁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곳을 떠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고달픈 주민들의 한숨 소리는

여전하다. 또한 이익을 보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간의 갈등, 방문객들에 의한 주거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담당했던 한영숙 소장의 이야기처럼, 공동체 건축이나 공동의 공간에서 건축적 심미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가능할 때 비로소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키스라이어센터 : 산업유산건물에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키스라이어센터 f1963' 조성사업은 폐산업시설인 고려제강 옛 수영공장(8925㎡)을 민관이 함께 사회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해 전시, 공연, 교육, 상업, 휴식 기능이 합쳐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f'는 factory(공장)를, '1963'은 수영공장이 만들어진 해를 의미한다. 기업이 주도해 시민을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 메세나 활동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⁵⁾

키스라이어 센터는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세계적 와이어 생산 기업인 고려제강의 철학과 문화를 담은 공간이다. 와이어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 와이어가 핵심적으로 쓰이는 현수교의 원리를 적용하

4) 김형균 외, 『도시재생 실천하라』, 미세움, p199-200

5) <https://ko.wikipedia.org/>

였다. 와이어의 장점과 특성을 건축의 구조에 작용하여 28개의 와이어만으로 지붕을 지탱해 729㎡(약 220평)의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누르는 힘과 와이어의 당기는 힘의 공학적 계산을 통해 기둥 없이 넓은 내부공간을 확보하였다. 지형에 순응하면서 와이어를 건축적으로 풀어낸 센터는 획기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2014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⁶⁾

키스와이어센터의 물리적 재생은 방치된 공간의 재사용, 버려진 폐자재의 업사이클링, 대나무 숲길, 옥상 정원(텃밭), 수공간과의 조화 등 생태적 요소들로 가득하다. 1963년부터 와이어를 생산하던 이 공장은 2008년 멈춘 채 버려져 있었다. 2014년 부산 비엔날레 전시로 재탄생을 시작하였고, 조병수 건축가는 넓은 공장을 f1963 전시장으로, 방치되었던 중정 공간은 야생의 풀과 꽃들이 자라나는 야외 공연장으로 디자인하였다. f1963 전시장을 들어오는 입구는 대나무 숲길과 이어져 산책과 휴게를 하는 이의 눈과 마음을 힐링한다.

경사진 지면을 따라 올라가면 예기치 않았던 수공간과 와이어로 연결된 광안대교의 모형을 만나고, 수공간 앞 기념관으로 들어가면 고려제강의 와이어 관련 기업역사 전시를 무인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기념관 한쪽 벽은 전면 유리로 처리되어 한 폭의 그림 같은 외부 수공간의 차경이 펼쳐진다. 와이어로 설치된 실내 경사로(오름길)를 따라 올라가면 빨간색 쪽문을 통해 옥상정원(텃밭)과 연결된다. 옥상정원에서 보는 탁 트인 전망도 놓칠 수 없는 이색적 즐거움이다. 광안대교를 비롯해 많은 국내의 대교에서 사용된 와이어를 생산해 온

고려제강을 대표하는 와이어는 상징성 있는 건축 구조재이자 디자인 아이콘으로 여기저기 등장하여 심미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역시 넓은 공간을 재활용한 카페 테라로시는 천장을 와이어로 엮고 공장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업사이클링하여 독창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키스와이어센터의 경제적 재생은 감천문화마을과는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천문화마을이 주거 재생의 사례로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과 커뮤니티의 사회적 회복을 주요 목표로 진행되었다면, 키스와이어센터는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폐공장을 활용하여 부산 다른 지역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이컬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키스와이어센터는 문화적, 예술적 특성으로 가득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부산 시민들의 문화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명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카페 테라로사 입구에 손몽주 작가의 와이어를 활용한 조형물은 공간 정체성을 보여주는 멋진 포토존이다. 또 하나의 명물인 'YES24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가족의 책놀이 공간이자 아기자기한 예술작품 관람공간이자 디자인 문구샵이자 커피를 마시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여기에 복순도가, 프라하 993, 국제갤러리 등의 전통 주점, 해외 유명 맥주, 그리고 저명한 갤러리가 어우러져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업유산 공간으로 탈바꿈한 재생 사례가라고 할 수 있다.

키스와이어센터의 사회적 재생에 관련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부활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키스와이어센터의 홈페이지 첫 장면에 '와이어

6) http://cms1.ks.ac.kr/webzine/WebzinePage/view.do?hosu_sqlNum=91&ton_seq=190(경성투게더91호)



<그림 6> 고려제강의 상징인 와이어를 활용한 외관 디자인
<http://kiswiremuseum.com/php/index.php>



<그림 7> 와이어를 감는 도구를 활용한 기업 전시공간 jyyoon©



<그림 8> 기업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문화공간 카페 테라로사



<그림 9> 야외무대로 변신한 중정 jyyoon©



<그림 10> 공장을 개조한 f1963 전시장



<그림 11> 거실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의 YES24 서점 jyyoon©



<그림 12> 무인피아노 연주가 있는 기념전시관. 와이어구조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의 옥상정원(텃밭)을 만난다



<그림 13> 기념전시관 앞 수공간. 와이어로 광안대교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jyyoon©

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담은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기반으로 산업유산건물을 활용하여 기업과 예술문화의 공유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려져 있던 공장 건물은 부산시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심미성과 생태성과 상징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 수영강을 축으로 동쪽은 영화의 전당, 대형백화점, 백스코, 고급 주상복합건물 등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비해, 맞은 편 서쪽 수영 지역은 문화적 자원이 거의 없었다. 키스 와이어센터는 이런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건축문화제(현 부산건축제) 등 부산의 대표적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 메세나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f1963 전시장과 야외 공연장, 카페, 서점, 식당, 갤러리는 각각의 공간이 디자인적 완성도가 매우 높으면서 동시에 전체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기념관은 정사진 지형을 활용하여 수공간, 옥상정원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와이어 구조의 미학을 실현하고 있어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관련 전공 학생들은 누구나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또한 '한번에 완성'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문화공간을 덧붙여가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3. 마치는 글

본 고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부산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였다. 감천문화마을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키스 와이어센터는 기업의 산업유산건물을 중심으로 환경적 재생과 문화예술공간 구축을 추구하였다. 앞으로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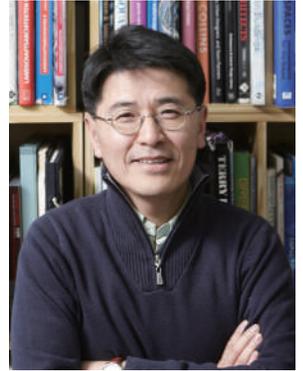
방향으로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현재까지 두 사례 모두 부산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지역재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부산의 도시재생 디자인이 나아가 할 방향을 그 유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크게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작게는 덕천, 반송 지역의 커뮤니티디자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재생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시민, 전문가, 지자체, 업계가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살고 싶은 문화도시 부산,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도시 부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윤지영 프로필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 교수, (주)미래공간 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울경지회 회장,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집행위원, 부산창조도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수영구 경관디자인 자문위원과 부산 북항재개발 자문위원 및 서구, 해운대구, 동래구, 중구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미래 생존 위한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 이 시대의 유일한 지향



강 동 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도시디자인에 대한 오해 풀기

‘환경적 설계(environmental design)’라는 말이 있다. 단순히 주어진 도시환경의 부분 적정화를 도모하는 ‘환경의 설계(design of environment)’에 대응되는 말이다. 환경적 설계는 환경에 적응하는 접근, 즉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단위 간의 관계 조정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후유증을 품어 해결하고, 시민 활력이 도시의 근원이 되며, 개발 행위가 환경 파괴가 아닌 공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설계를 말한다.

20여 년 전부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용어가 있다.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미 흔해 빠진 개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린 이 용어 속의 깊은 의미를 잊은 채 살고 있다. ‘환경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자’로 번역되는 ESSD의 속뜻은 미래의 후손들도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여지의 것(땅)을 최대한으로 남겨두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지는 의미다. 여기서의 개발 자제는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개발 욕구를 참으며 개발 후유증이 적은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개발 자제 = 새

로운 도시 실험과 도전’의 등식으로 연결되며, 그 실험과 도전의 본체가 본 글의 주제인 ‘도시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폭이 매우 넓지만, ‘공공성에 기반한 도시의 바탕과 요소들에 집중’하는 점은 모든 관점의 공통점이 될 것이다. 도시디자인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 질서와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태동된 도시공공정책,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들의 질적인 총합’으로 정의된다. 그 총합의 시스템을 어떻게 짜고 구축하느냐에 따라 세계 도시(지역)의 공간과 환경의 성패와 운명이 결정되곤 했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이런 말을 했다. “도시디자인은 독자적인 분야가 아니다. 물리적인 도시건설과 관계되는 건축, 조경, 토목, 도시계획 등이 서로 간의 학문 분야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타파해야 형성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좋은 도시를 만나거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도시에 있어 도시디자인의 추구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숙명이다. 하고 싶다고 택하거나 싫다고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러

1) 본 글은 부산에 대한 지난 필자의 글들을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한 정의는 다음의 2가지 방향 모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첫째는 '개체로서의 특성 살리기'로서, 전체의 획일적인 가치 지향을 넘어 개체의 차별적인 특성 발견과 적용이 핵심이 된다. 둘째는 '전체로서의 조화 이루기'이며, 도시(부분)가 잘 짜여진 하나의 전체로서 보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짜임새 즉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향의 성취를 위해서는 기존 생각(고정관념)의 폭을 넓히고 그 생각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과 정책의 폭 확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각 분야의 고집과 좁은 시야를 떨쳐내고, 분야 간의 벌어져 있는 틈새에 새로운 생각이 스며들도록 틈새를 더 크게 벌리고 다시 그 틈새를 꼼꼼히 메워가야 한다.

21세기에서 도시디자인의 역할은 또 하나의 디자인 분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 나고 조각난 우리 도시의 참모습을 꿰매어 연결시켜가는 '아름다운 다리'이자, 각자의 길만 주장하는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매력적인 광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도시디자인은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융합적 노력의 장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2. 부산 그리고 부산 도시디자인에 대한 생각

부산은 19세기 중후반 이후 150여 년 동안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과 피란수도기, 국가재건기 등의 흐름 가운데 다소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성장과정을 거쳐 왔다. 이런 연유로 2021년 5월 현재, 부산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정확히 표현하기 힘이 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뭇지 모를 맥락(context)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맥락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걸출한 랜드마크가 없고 비슷한 것들이 어울려 있거나,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되 혼재의 선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

여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산의 이미지를 '각각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무리지어 군집(群集)을 이루어 표출되는 집합미라 정의하곤 한다.

강과 바다와 잇닿은 다양한 높낮이의 산과 구릉들, 온갖 물자와 사람의 소통구로서 기능했던 항구들과 철도, 교량, 터널 등의 인프라, 급작스러웠던



무리진 군집의 대표 풍경(2005년의 감천문화마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곁의 높고 강하고 빛나는 건물들

전쟁과 1023일 간의 피란수도 기간 중에 탄생된 좁고 긴 지형 위의 낡은 주택군, 연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원산업(물류업, 조선업, 수산업, 제조업)의 현장들, 부산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온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오래된 시장들과 스토리가 담긴 길 등. 이들이 어우러져 표출하는 총체적인 이미지는 땅의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가 누적된 '부산의 문화풍경(cultural landscape)'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약 2년 전 수백 미터가 넘는 세 동의 건물이 해운대 모래사장 곁에 불쑥 솟아올랐다. 측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바다와 파도, 구름과 모래로 대변되는 해운대와는 그리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물은 '컨템포러리(contemporary)', 즉 동시대의(현대)건축물로 정의된다. 이런 유사한 건물들에서 인지되는 키워드를 찾자면 '높은', '강한', '빛나는' 정도이지 아닐까 싶다. 현대 사회에서 추구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넘치고 넘치는데 왜 지역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일까. 높은, 강한, 빛나는 것만이 현대인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듯, 철골에 유리로 뒤덮은 수직 건축물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대변할 수 없고 또한 현대도시 부산을 상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부산의 문화풍경을 지키려 발버둥 쳐야 하고 개발 행위에 의한 부산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그것도 건강하게 산 채로. 그렇다면 논제는 토끼몰이의 방법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나서느냐의 것이다. 필자는 그 주체를 '부산의 도시디자인'이라 정의하려 한다. 전술한 것처럼 부산의 도시디자인은 또 다른 디자인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 시민, 전문가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공유하고 성취시켜 가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자 방법론이기에, 고착되고 관습화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자 의식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짧고 부족한 글에 담을 순 없다. 본 글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원론적인 지향점인 자연, 역사, 그리고 시민의 삶이 잘 섞이고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즉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에 국한하여 부산의 도시디자인을 바라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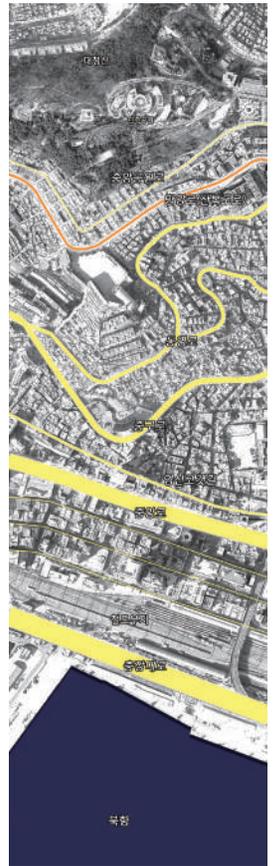
3.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 부산의 지향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은 지역의 처지가 잘 고려되고 반영된 디자인을 말한다. 여기서의 '지역'이란 부산의 땅과 환경을, '처지'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여건, 그리고 미래의 상황까지를 포괄한다. 이런 측면에서 4가지의 지향을 선택해 본다.

3.1 '지형 순응적인' 도시디자인

'지형 순응적이다'라 함은 해당 도시의 지형지세와 어울리고 굴곡있는 지형 분위기에 조화되는 도시디자인의 추구를 말한다. 부산이 가진 땅의 높낮이와 모양새는 매우 자유롭다. 특히 305km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는 더욱 그러하다.

베 짜기에 있어 씨줄과 날줄처럼 길과 길, 길과 필지, 필지와 필지가 만나 도시의 바탕을 형성한다. 이를 '도시조직(urban fabric)'이라 한다. 부산의 도시조직은 장방형의 격자 패턴, 세장한 평지를 따라 발달한 길쭉한 블록 패턴, 높고 낮은 지형을 따라 미로같이 펼쳐져 있는 골목 패턴, 연안을 따라 연이어 있는 교통과 산업인프라에 의해 형성된 대형 필지의 패턴 등 매우 자유로운 구성을 하고 있다. 길게는 수천 년 전부터, 짧게는 150여 년 전부터 시



커를 달리하며 발달한 부산의 지형

간이 만들어 낸 산물들이라 할 수 있다.

높이를 달리하며 선형으로 따라 도는 지형 패턴은 부산사람들에게 다층적인 삶의 커를 제공했다. 연안의 거친 지형에 사람들은 순응했다. 산복도로의 지형을 따라 잘게 조각나 있는 필지들과 이를 연결하는 크고 작은 길들은 모두 도심과 강, 그리고 바다와 한을 한을 정확히 이어져 있다. 이들이 연결되어 만들어 낸 구불한 선들은 부산사람들의 '생존 체계'이고 '애환의 패턴'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체계와 패턴에 대한 섬세한 배려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마치 난개발 같은 개발에 의해 훼손된 지형의 틀을 회복시키고, 또한 마천루와 같은 아파트들로 채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후유증들에 대한 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밀어내어 바탕을 지워버리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조직의 패턴을 존중할 수 있는 '소단위 (재)개발'과 '중저층 고밀개발'에 대한 도전은 어떨까.

3.2 '윤곽선을 배려하는' 도시디자인

사람의 얼굴에 있어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얼굴의 측면에서 느껴지는 볼륨감이 강할 때 '윤곽이 뚜렷하다'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서 윤곽선이 살아있다는 말은 도시의 입체감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도시에서 입체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높은 건축물을 집단으로 지어 다른 지역과 높낮이를 완전히 달리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도시가 보유했던 원래의 지형지세를 훼손하지 않고 이에 조화되도록 도시를 개발하여 높낮이를 지키는 방법이다. 지형이 발달한 부산의 경우 추구해야 하는 입체감은 후자에 가깝다.



최고고도지구로 인해 보존된 산록



급속도로 진행 중인 경관역전의 현상

윤곽선이 드러나려면 도시의 능선부가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지 말아야 하고 독불장군식의 건물이 능선에 자리 잡지 않아야 한다. 부산 연안의 산록들은 특이하게도 산정부가 모두 보존되어 있다. 7부 능선을 위치한 산복도로 위로 올라오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최고고도지구'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에 정해진 이 제도 덕에 연안의 산록들이 보존될 수 있었고, 항구에서 바라보면 균일한 초록색 스카이라인이 인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복도로 아래 중앙로변 곳곳에서 대형 재개발들의 추진과 북향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바다 풍경을 독식하고 바다를 가로막는 병풍 같은 건물들이 들어서며 경관역전 현상, 즉 산복도로에서 항구 쪽으로 높이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최고고도지구의 의

미가 없어졌으니 해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포기할 순 없다.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와 함께 항구와 연결된 도시감성과 바다 풍경을 지켜내는 창의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3.3 '기억을 존중하는' 도시디자인

최근, 문화를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pattern of life)'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장소성과 다양성,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와 이의 전달매개체를 지역자산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이 보유한 지역자산의 폭은 매우 넓다. 간략히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째는 '부산의 원산업(수산업, 물류업, 조선업,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유산'이다. 부산은 수산업과 물류업이 기간기능으로 연속되는 도시다. 조선업과 제조업의 위상은 거제, 양산 등 다른 도시로 넘겨졌지만, 물류업과 수산업만큼은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명맥을 충실히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원산업이 남겨놓은 공간과 시설, 장소와 풍경의 상당수는 산업유산으로 분류된다. 산업유산의 대부분은 옛 도심부나 항구에 존재하고, 공장이나 창고 등 튼튼한 메가스트럭처(mega-structure)인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 재생의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다.

부산의 근대기는 조선업의 발상지, 1950~60년대 국가재건을 위한 제조업 집중지대, 그리고 세계 5위

권의 물류업과 1조원이 넘는 위판고를 가진 수산업의 발달과정으로 채워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겨진 산업의 흔적과 기억들의 대부분이 연안에 입지하여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항의 산업유산들(제1부두, 자성대부두(사일로, 창고군, 크레인 등), 관공선부두(안벽과 물양장 등))과 남항의 수산시장들과 수리조선소 일원(강강이마을), 그리고 봉래동 창고군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섬세한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문화적변의 현상이 된 영도 봉래동 창고군



최고의 미래 잠재력을 가진 사일로

두 번째는 '생활유산에 대한 관점'이다. 부산은 생활유산의 보고다. 하지만 생활유산은 현대인의 삶과는 다소 유리된 대상들이 대부분이며, 불편함과 낡고 좁음의 대명사이다. 시에서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서 그런지 또 여전히 성과주의에 매달리고 있어 그런지

그 과정과 결과가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져본다. 생활유산의 보전과 시민 삶의 개선이 공존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전술했던 소단위(미니) 재개발 그리고 '함께 살자'를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재생'으로 연결되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실천될 수는 없을까.

3.4 '기후 적응적' 도시디자인

자연환경이 발달한 부산에서의 도시디자인은 지역에 대한 부담은 적고(low impact) 자연과의 빈번한 접촉(high contact)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일조와 바람, 습도 등 미기후를 고려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을 줄이려 노력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바람을 예로 들어 본다. 부산에서의 바람은 무서운 태풍도 있지만, 산들산들 불어 드는 미풍과 훈풍으로 대변된다. 그래서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바람의 혜택이 큰 도시이고,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는 부산의 최고 매력으로 꼽힌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높은 아파트를 마구 짓고 있다. 바람이 지나는 자리를 그런 건물들이 차지해 버린다. 배려

없이 지어진 건물들은 바다에서 구름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 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 강에서 계곡을 따라 불어 들어오는 바람들을 겨울에는 추운 골바람과 건물풍으로, 여름에는 도시에 갇힌 오염된 뜨거운 바람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 불쌍스러운 구름 위 건물들은 바다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구름들마저 정체시켜 쾌청했던 지역을 제습기가 필수품이 되어야 하는 습하고 눅눅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건설은 부산의 강점을 죽이는 행위이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산을 평범한 도시, 아니 환경문제로 가득한 평범 이하의 도시로 몰아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지형이 발달한 항구도시인 부산의 경우 태풍, 수면상승, 집중호우, 해일, 침수, 공기오염 등 여러 영역의 재난에 적용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우선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들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 맵을 만드는 일이다. 재난 발생 후에 대응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바람이 통과하는 언덕이나 골에 대한 철저한 분석



기후 적응적인 도시디자인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산(부분)

을 통해 '바람길 댁'을 제작하여 이곳들만큼은 개발을 자제할 수 있는 시민공감의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창의적인 도시 실험의 시행이다. 그 실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산이 보유한 기후 자체의 강점을 활용하는, 결과적으로 부산의 풍경과 어울리고 부산의 자연환경을 지켜가는 그런 도시디자인의 추구를 말한다. 실험을 위한 재원이 문제라면 이런 역할상은 어떻게. 지역에서 건설사업으로 돈을 벌었거나 벌고 있는 공기업들과 건설사들과 함께 도시실험을 하는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행위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실험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동참하지 않겠는가.

4 마치며

부산은 국토의 끝단에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은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맥줄기들 사이로 연결된 도로망과 철도망의 끝점들이 모이는 종점이자 넓은 바다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수점장의 입지 여건은 부산을 우리나라의 '변방(on the edge)'이 아닌 '첨단(on the cutting edge)'이 되게 했다. 이 때문인지 부산은 맨 끝에 있어 앞의 상황이 두렵거나 뒤가 없어 느끼는 허전함을 알지 못한다. 첩첩이 산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앞은 도전 의지를 날게 했고, 바다로 채워져 비어있는 뒤는 무한한 꿈을 품게 했다.

그러나 부산은 국토의 끝에 있다 보니 자기 안주에 빠져 수동적으로 변해버렸고,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해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 발전에 소홀해져 버렸다. 부산은 원래 야성의 도시였다. 정치적 인 이유도 있었지만, 외세와 끊임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 국난 극복의 첨단에 섰던 도시였기에

생겨난 속성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부산은 다소 거칠었지만 진취적이었던 저항과 도전의 정신이 크게 무더져 버린 듯하다. 시민들의 참여나 협치의 수준도 어느 도시들에 비해 다를 바 없게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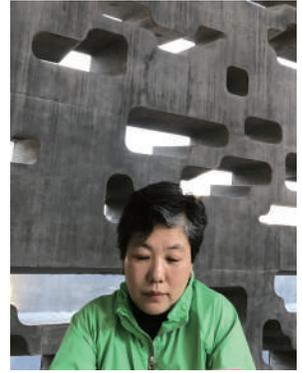
'인간 중심의 도시기능과 인간성의 회복'은 도시디자인이 추구해야 하는 일관된 궁극의 목표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민, 즉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고민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도시디자인은 공익과 개인 이익 간의 상충을 조정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민 이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래서 좋은 도시디자인은 '다독거림'과 '치유'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의 사회적 가치란 지역이 추구하는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 등을 포괄하는 공통의 것이기에,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온 기존 도시디자인의 영역을 훌쩍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의 초반을 지나고 지금, 부산은 국토 끝이라는 첨단 입지적 강점과 진취적인 도전을 서슴지 않았던 부산사람들의 특성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형순응적인, 윤곽선을 배려하는, 기억을 존중하는, 그리고 기후 적응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 밀착적인 도시디자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부산의 진정한 미래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기에, 그 어떤 일들보다 심각히 준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강동진 프로필

역사환경 보전에 중심을 둔 도시설계를 배웠고, 현재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근대유산, 산업유산, 세계유산, 지역유산 등을 키워드로 하는 각종 보전방법론과 재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영도다리, 산복도로, 캠프하리아라, 북항, 동천, 동해남부선폐선부지, 피란수도부산유산 등의 보전운동에 참여하였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사,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 지향을



박부미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환경디자인 교수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4차 산업혁명
은 2016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4의 물결 후보군으로 바이
오산업,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폰들이
선정되며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다. 오늘날 인구증
가율은 지역마다 그 양상이 다르지만, 고령화와 함
께 꾸준하게 상승하며 2050년 세계인구는 약 100억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도시인구 집중화는
4차 산업기술과 스마트도시의 진화를 가속화하며,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SF영화 속에 등장하는 도시
속에서 살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해외국가들의 스마트도시개념과 표준화는 미국
의 2015년 'Smart Cities Initiative 발표', 중국의 2015
년 '신형도시화 계획발표', 싱가포르의 '2014년 Smart
Nation 프로젝트 발표' 등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는 기존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도시 및 도시
계획의 방향성과 연계한 2014년 U-City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에서 본격적인 스마트도시 정책이 시행
되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
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

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도
'XR/eXtended Reality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을 스마트도시의 기반 사업전
략으로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S-Net 구축 및
공공 Wifi 까치온 확대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중점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S-Map
시민서비스 확대와 안전한 골목길 및 관광명소 VR
서비스, 시민이 3D건물을 올려볼 수 있는 가상공간
라이브러리 구축, 골목길 재생지역을 보여주는 파
노라마 뷰 공개, 그리고 'Visit in S-Map'을 통한 문화
재 및 관광콘텐츠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강동구
스마트도시 추진단이 진행하는 서비스전략으로 도
시미관이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폴 기본
모델 수립이 있고, 미세먼지 정화, 냉난방, 스마트
안전시스템 등을 갖춘 가로변 스마트 쉼터 설치, 서
비스 앱을 통한 스마트 주차서비스, 가로등 지주기
반 스마트 폴 설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동아시아의 관문 항구로서 143년 간의 근대화와 산
업화의 역사를 가진 부산은 글로벌 해양 스마트도
시의 비전을 내세우고 북항·영도지구의 국제해양

관광거점 및 친환경 워터프런트 개발, 해양 빅 데이터 센터, 해양 슈퍼컴퓨팅 전문센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의 경우 부산만의 도시디자인 전략으로 ‘스마트 하버시티(The Busan Harbor City)’를 위한 연결(Link), 개방(Open), 플랫폼(Platform)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오픈 플랫폼형의 전시홍보공간 구축과 스마트대중교통, 스마트주차장, 스마트 모빌리티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제시하는 ‘어반 루프 Urban Loop : 초음속 진공을 활용해 도시와 국가를 이동하는 하이퍼 루프(Hyper-Loop) 기술을 이동 여건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1280km(마하 1.06)’는 마스크에서 찬반 논란이 화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먼 미래의 구상으로 넘기기에는 첨단 기술의 진화가 일반인들의 예상을 초월한다. 최근 부산은 기장에서 가덕도를 잇는 수상교통시스템과 워터프런트 지역의 트램(Tram) 구축을 비롯하여 이들과 연계되는 통합 환승시스템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은 가까운 시기 안에 워터프런트형 어반 루프가 구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구나 최근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서두르는 전기차 상용화와 AI를 활용한 자율제어시스템은 스마트정보 탑재와 교통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도시의 스마트교통시스템과 스마트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예감하게 한다.

현재 스마트교통기술은 연결(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통합교통(Shared Mobility), 전기(Electric) 등 4가지 기술로 요약되며, 점차 공유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시스템으로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적극 권장하고 친환경적 차원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도

입과 PM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와 구분되는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 PM)’이란 공기 오염과 주차 공간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칭하고 있다. 현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자전거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도 해당된다.

타 지자체에 비해 PM 도입이 늦은 부산의 경우, 2020년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진출시키고, ‘카카오 T 바이크’, ‘일렉클’(<http://elecle.bike/>), ‘킥고잉’(<http://kickgoing.io/>) 등의 연계 서비스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차도에서 30km 이상을 달리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들의 질주는 보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이용자 모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이나 지상파에서 거론하는 PM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 등은 인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사실 부산은 지리적으로 대부분 해안과 산지로 이루어져 경사가 가파르고, 건물들 대부분이 역사적인 맥락과 지형적 여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있어 타 지자체의 도로 상황보다 열악하다. 일부 도로들은 협소하거나 가파르며, 보·차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고, 기존 자전거도로들도 연결되지 않거나 갑자기 없어져 이용자들이 당황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산의 지역적 실정이나 이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과 PM대중화를 서두르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해양 스마트도시의 트램 및 수변 가로환경 (출처: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City), 1960』를 통하여 케빈 린치(Kelvin Lynch)는 거리(Paths), 가장자리(Edges), 단위(Districts), 랜드마크(Landmarks), 교차점(Nodes) 등의 5가지 도시요소들로 이루어진 가로환경이 곧 도시공간이라고 했다. 도시공간에서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동선, 거리의 주된 사용 목적, 공공의 소망과 즐거움, 사람들의 감성과 행위 등이 결합되어 도시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이며, 경험된 추억들은 도시이미지로 기억되고, 그 기억은 도시의 정체성이 된다. 해양 스마트도시 부산이 지향하는 도시이미지는 첨단기술을 통한 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회·도시의 기능적 특성이나 부산만의 장소성으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이미지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스마트시스템 측면**으로는 정부가 시도하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XR

을 도시기반 사업전략으로 차도·보도·건물을 일체화한 면적 접근의 ‘통합형 가로환경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B-Net’ 구축과 공공 Wifi 확대를 진행하여야 한다.

스마트교통 측면으로는 수륙대중교통·트램·PM 등의 연결되는 통합형 순환교통체계를 권역별·사업별로 우선적 순위에 따른 차별적 진행을 서두르고 보행자와 PM이용자를 위한 도로확보와 통행 및 노선정보를 알 수 있는 ‘B-Map’ 시민 서비스가 필요하다.

안전한 가로환경 측면은 PM면허제, 안전장비서비스, 도로법규 등 PM 이용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이용자 안전교육 및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도시이미지 마케팅 측면은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홍보마케팅을 위한 부산관 및 부산홍보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여 ‘2030 WORLD EXPO’ 유치를 준비하고, 부산 시민을 비롯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에게 다가가는 ‘Visit in B-Map’을 통한 문화재 및 관광콘텐츠에 관한 스마트서비스가 필요하다.

경험의 장소적 측면은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살린 경사면과 해안면의 차별화 된 스토리와 추억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PM 노선 개발과 이를 위한 보행자와 PM 이용자 중심의 복합 환승센터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적 측면**은 부산의 대학들과 협업을 통한 '3차원 XR 공간지도와 콘텐츠 개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PM스테이션 구축', '스마트 가로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추진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기억을 제공함으로써,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해양 스마트도시의 이미지를 조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복합 환승 센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서민호, 국토책임연구원, 2014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 해양수산부, 2020
-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및 디지털 뉴딜』, 2021
- 『스마트서울 도시추진전략 보고서』, 2021
-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박부미 프로필

현: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환경디자인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 건설·교통 분야 기술수준 평가 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경관심의위원. 경상남도 지방건설 심의위원

사용자와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김 동 식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도시의 길을 들여다 보며

도시 부산은 찬란한 바다, 푸르른 산, 그리고 현대적인 발전이 물씬 느껴지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사이에서 어우러진 경관과 공간을 내포하는 도시 이미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숨 쉬고 있다. 이 모든 변화와 오랫동안 함께 한 소중한 도시의 길은 공간을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건축과 비교해 볼 때, 체계적인 발전이 부족하여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서 길은 공공공간으로서 단지 인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아우르는 사용자의 섬세한 이동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 문화나 공간적 특성의 반영이 미흡하여 어디에서나 비슷하게 느껴지는 인도, 가로수, 가로등, 육교, 지하철,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 내부연결복도 등의 보행환경과 늘 접하면서 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보행환경의 질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요소와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장소성, 관계성, 맥락성, 확장성, 이동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한 환경디자인적 접근방법을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 및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소성과 보행환경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이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자리를 환경이라 칭하고, 사용자의 행위 자체에서 중요한 배경장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간은 건축물의 입면을 중심으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리는 크게 생물적 자연계인 자연적 환경, 비생물적 조형계인 조형적 환경, 그리고 사회계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각하고 이동하며 거주해 나간다. 이 속에서 수많은 체험을 하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왕래하면서 삶의 생활을 음미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적 의미'를 인식하고 공간과 결속된 느낌을 소유한 채,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공간과의 '공존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대적인 발전상에 비해 자연적 환경과 조형적 환경들 사이에서 감성적으로 이어주는 사회적인 환경에 관련된 보행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은 웬지 인색하게 느껴진다.

기능적으로 가치 있게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조형계는 자연계와 사회계를 이어주고 시지각적 도시환경의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일 것이다. 만약 도심 속의 여러 가지 조형적인 시설물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행

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복잡한 시각적 충돌이 유발되고 혼잡한 도시 이미지를 자아내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도심 속의 보행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 복잡하게 유발되는 이동공간의 연결에 대한 통합적인 시지각적 일체화가 담긴 '장소성의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보행환경의 조형계를 중심으로 '조형적인 구성방식의 해결유형'을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의 디자인적 개념이 시대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2. 도시와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환경에 있어서 여러 구성 및 표현요소들의 관계를 조화롭고 시지각적으로 쾌적하게 계획하는 전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시각적으로 중경과 원경에서 바라보는 건축적 스케일로 구성된 도시경관과 도심 시가지를 걸을 때 근경에서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휴먼스케일의 도시공간으로 크게 구분되며, 도시경관과 도시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방문의 유도가 가능한 심상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도시에 있어서 환경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인도와 연계된 건축물의 외부공간,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건축물의 입면, 그리고 건축물의 투명성에 의해 연출되는 다양한 내부공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도시공간에서 사람, 사물, 그리고 자연과의 상호적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 조경적 요소, 시각디자인적 요소, 제품환경디자인적 요소, 조명적 요소, 그리고 그 외 이벤트적 요소 등이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주요한 표현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성 및 표현요소를 바탕으로 인간이 요구하는 기능을 생활에

적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도록 조절 및 조합하는 것이 환경디자인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BMW 박물관, 뮌헨
환경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인도와 연계된 건축물의 외부공간, 입면, 그리고 내부공간의 연결이 반영된 사진

이는 환경을 기능적인 면과 표현적인 면을 디자인적으로 결합해서 시지각적인 즐거움을 유도하면서 조형적으로 가치 있게 실체화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즉, 도심 속의 인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여러 구성 및 표현요소들과 짜임새가 있는 세부적 연결을 환경디자인에 의해 세심하게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3. 관계성 결정원리에 의한 입체적인 도시공간

우리는 보행하는 길에서 다양한 구성 및 표현요소들과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접하는 구성요소는 첫인상의 각인을 주는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건축물의 입면일 것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개구부를 통해 전달되는 내부공간의 연출은 사용자의 유입을 위한 매력적인 요소와 함께 기대감을 선사한다.

건축물의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유입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 입면에

서 저층부 로비, 아트리움, 내부 연결계단 등과 같은 다양한 실내건축적 구성요소 및 표현요소의 조화로운 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적절한 요소를 도입하면서 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환경디자인의 구성요소 및 표현요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내부 활동과 함께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맴도는 공간은 주로 어디에서 존재할까? 보통 내부공간보다 외부공간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체류 시간은 내부공간이 외부공간보다 월등하게 더 길어서 오히려 체험도는 더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구부의 확장을 통하여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원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은 외부를 구분 짓는 개념이 아닌 연결의 의미로써,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이동과정에서의 시지각적 일체화를 고찰해야 한다.



그림 2. G-클럽하우스, AECOM Shanghai
수렴적인 외부공간과 발산적인 내부공간의 다양한 표현요소들이 건축물 입면에 조화롭게 반영된 디자인

외부공간에서 바라본 내부공간이나 내부공간에서 바라본 외부공간이 다 도시 이미지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으며 다소 산만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 구성요소 및 표현요소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써 '조형적인 구성방식의 해결유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집합, 결합, 조합 그리고 융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하나의 해결유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맥락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태 심리학자 베르트하이머의 '관계적 결정원리'에 있어서 '전체'는 단순한 모자이크적 집합이 아닌 '부분'의 구조화에 의해 규명되듯이, 도시를 무조건적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도시 각 지역의 희소성과 주목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세부적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면밀한 재고가 되어야 한다.

4. 맥락주의를 추구하는 환경디자인

세월감이 배어있는 유행이 지난 옷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리폼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듯한 옷으로 재탄생되듯이, 과거 잔존적 공간의 가치를 살리면서 새로운 듯한 느낌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공간'을 위한 의미 있는 디자인일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 흔히 '맥락주의'는 건축물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환경디자인의 영역에서 '맥락주의'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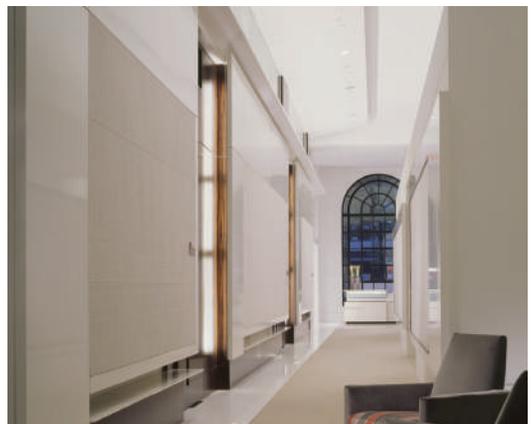


그림 3. 폴해스팅 워싱턴 D.C. 오피스, Rottet Studio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랜드마크 보웬 빌딩의 건축물 입면이 내부공간으로 연계되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것은 겉보기엔 당장 신선해 보이지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적응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마침내 새로운 것에 적응되면 어느덧 이전의 것을 뒤늦게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익숙지 않은 물건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것보다 기존에 사용해오던 것을 기능적으로 다듬고 심미적으로 새롭게 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억이 깃든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부산은 기존의 오래된 환경과 새로운 환경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이다. 지자체는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규모의 건축물들이나 구조, 그 외 다양한 시설물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나머지, 기존의 오랫동안 간직한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세심한 개선적인 방향에 대해서 소홀함이 항상 아쉽게 느껴진다. 특히 지역적 상황이나 주변환경과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구성 및 표현요소들을 추가한 것이 정말 이로운지 의문이 들며, 하물며 새롭게 추가한 것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된다면 한층 더 복잡하게 느껴져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오히려 실추시키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보행환경에 있어서 특히 맥락주의를 기반한 환경디자인의 다양한 구성 및 표현요소들은 주변환경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조형적인 구성방식의 적절한 해결유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5. 배경적 역할에 충실한 보행환경의 수평과 수직적 확장

우리는 운전하거나 걸어가면서 수평적인 보행환경의 다양한 환경디자인의 구성요소와 표현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현재 도시의 보행환경은 과거와 비교해서 큰 변화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보행환경과 긴밀하게 연계된 다양한 공공영역의 기관 및 각 학교의 외부공간, 그리고 각 실을 연결하는 복도들은 이동과정에 있어서 가치 있는 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극히 기능적이거나 안전성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접근하면서 머물게 만드는 볼거리는 매우 부족해 보이며 새로운 시도들은 지극히 일시적이어서 효과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볼거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사용자가 결국 공간을 완성하는 것처럼 쾌적한 보행환경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속의 보행환경은 배경적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부산예술중학교 음악연습실, 부산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기능적으로 단지 이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복도의 공간을 접근 및 체류가 가능한 여정이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

특히 보행환경의 페이빙, 조경과 조명적 요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길게 드리워진 펜스와 안전 및 정보를 위한 여러 표식장치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시지각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부담감이 있을 정도로 크게 인식된다.

더불어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연결된 육교와 지하철역의 수직적 보행환경의 확장에 있어서는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보행환경의 연계성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행환경은 어느 각도에 서나 시지각적으로 매우 노출된 위치로 인해 사용자의 복합적인 이동과정을 고려하여 쾌적한 수평 및 수직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구성 및 표현 요소들의 합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이동과정 속에서 보행공원

아무리 아름다운 벽화나 조각 등도 관리가 소홀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고유의 빛을 잃기 마련이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결국 탈이 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요소들일 지라도 보행환경에 계속 추가하면 결국 복잡하게 될 것이다. '비움의 미학'에 의한 '배경화법'의 관점으로 전체적인 구성 및 표현요소들의 접근성, 연계성, 체류성, 그리고 거주성의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행환경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접근'하게 되고 사용자가 잠시라도 멈추는 '머뭇'이 일어나게 될 경우, 마침내 '장소로서의 보행환경'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현대인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여유를 주면서 체류가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거주하고 싶은 정도로 자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소로서의 보행환경'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관계성을 가진다면 사용자들은 도시공간의 주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게 되고 흥미로운 목적지로서 거점 간에 건강한 이동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시즌의 조명이나 불꽃과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성 연출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건축물의 저층부에 있어서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내외부 공간의 구성 및 표현요소의 합리적인 수직 체계를 통해 사용자와 보행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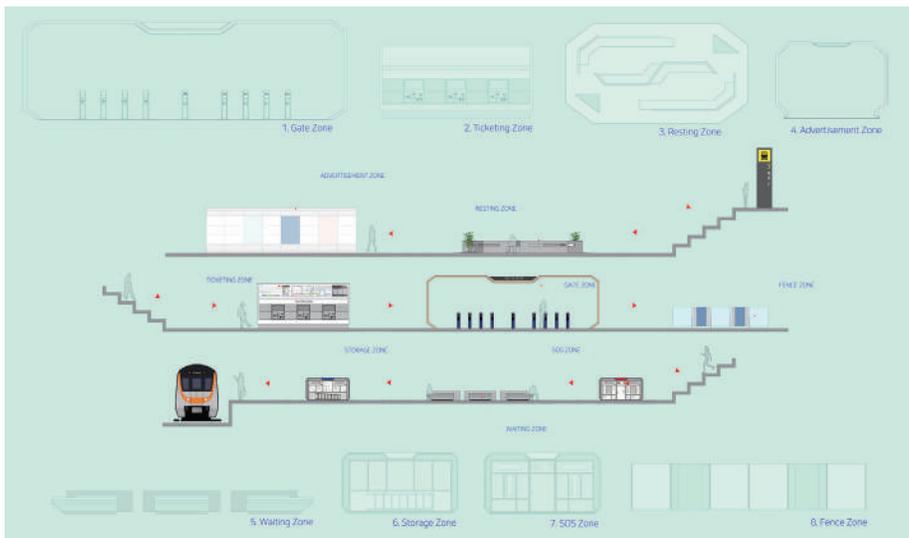


그림 5. 사상~하단선 공동디자인 가이드라인 학술연구, 부산교통공사
 통일적이면서 특색있는 다양한 거점의 공간을 확보하여 이동과정에 있어서 균형감 있는 정체성을 구현한 디자인

환경은 비율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웨이파인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식장치들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복잡함을 방지하면서 강력한 호소력을 내포하는 시시각적 연출이 될 것이다.

즉, 전체적인 통일 속에 부분적 변화를 두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체성을 구현하고 여러 구성 및 표현요소들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보행환경을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조경적 요소들의 지나친 반복보다 조경적 요소, 펜스, 쉼터, 그리고 스트리트 퍼니처의 첨가로 인한 조합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가치와 경험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밤과 낮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는 감성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면 좋을 듯하다. 도시에서 대규모의 공원을 어렵게 계획하는 것보다 관리가 용이하면서 쉽게 접근하고 머물며 체류가 가능한 보행환경의 계획이 사용자를 위한 추억을 제공하는 '보행공원'이 된다면 도시에서 멋진 활력소가 될 것이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부산의 새생도시를 꿈꾸며

재생적 가치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즉, 타임리스적인 도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혜택과 배려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간은 익히 들어왔지만, 사용자를 배려하는 도시 공간은 다소 생소한 말처럼 느껴진다. 환경디자인의 개념을 도시 부산의 보행환경에 좀 더 세심하게 적용하여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행복감을 주는 혜택적인 공간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될 것이다. 단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구성된 집합적 개념이

아닌, 각 차별화된 장소성이 내재된 다양한 거점들의 보행환경이 지속적으로 서로 결합되면서 환경디자인의 미적 요소와 원리에 의해 융합적으로 체계화를 이룬다면 조병수 건축가가 언급한 새생 건축처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새생도시 부산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우리의 여정이 가득한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참고문헌

-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리차드웨스턴, 시드포스트
- 『건축디자인론』, 허병이, 기문당
- 『건축의 외부공간』, 아시하라 요시노부 저 * 김정동 역, 기문당
- 『건축의 형태와 디자인』, 가시다 쇼고 저 * 백용운 역, 기문당
- 『공간디자인과 조형연습』, 함정도·손유찬 저, 기문당
- 『보행도시 좋은 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 오성훈·남궁지희 저, auri
- 『인간중심의 도시환경디자인』, 나카노 츠네아키 저 * 광동화·이정미 역, 싸이이알
- 『현대 도시환경 디자인』, 한영호, 안진근 공저, 기문당

김동식 프로필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부산교육청)이며, AECOM 미국 로스앤젤레스 본사 '수석디자이너' 및 AECOM 상하이 지사 'Senior Interior Architect'를 역임했다. 건축학 박사이며, 미국 공인 실내디자인 자격인증(NCIDQ),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 실내디자인 자격인증(CID), 국제 공인 친환경설계 자격인증(LEED AP)을 받았다.

부산·한국·아시아 문화 가치에 기반한 디자인 연구의 거점



장 주 영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과 지역문화, 그리고 부산

국가나 지역이 담고 있는 그 장소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축적된

문화는 영감의 원천이자 인류의 귀중한 자원이다. 특히 디자인은 실용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 미학적 가치와 정서적 측면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의 맥락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 실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은 언제나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 맥락은 장소와 연관된 자연적, 인공적 속성들의 혼합이며, 역사와 문화, 지리, 기후, 기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맥락적 특색들이 디자인 결과물에 구체화됨으로써, 디자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개별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제 '지역화'는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고 디자인의 차별성을 강화시켜 주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된다.

부산은 개항과 일제 강점기에 도시가 형성되었고, 광복 이후 재외동포들의 귀국이 이어진 곳이며, 한국전쟁 시에는 피란민이 유입된 곳이다. 근대 산업

도시에 이어 지금은 물류와 관광레저, 영상콘텐츠 도시로, 또한 유라시아 태평양시대의 관문도시로 도약 중이다.

유승훈(2013)은 해양성, 개방성, 민중성을 부산의 인문정신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산은 항구라는 지리적·개방적·공간적 특성과 역사·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의 용광로(melting pot)'로 불리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질적인 여러 요소가 뒤섞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혼종성(hybridity)은 글로벌 창조미래도시 부산의 중요한 자양분이자 '다이나믹 부산'을 이루는 원천적인 힘이라 할 것이다. 현대 부산의 문화는 이들 외래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 속에서 충격과 파괴, 적응과 변용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온 우리의 문화로 해석된다.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in 부산

2017년에 설립된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이하 아이미연)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디자인교육 현장에서 부족한 '한국문화에 기반을 둔 디자인 지식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지역문화 맥락에 기반한 디자인 연구와 이의 교육에 적용, 그리고 디자인 실행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생성과 사용의 순환’을 지향하는 일련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와 한국,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행을 추구하며, 인류문화 보편성으로서 부산·한국·아시아 문화가 가진 가치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생산과 교육, 저장과 확산의 역할을 해나가며, 한국과 아시아 디자인 연구의 글로벌 허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점차 늘어가는 외국 유학생들과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형 디자인 교육콘텐츠의 개발도 연구소가 감당해야 할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들 외국인 엘리트들을 지향할 인재로 양성하여 미래에도 교류가 지속될 인적 자원으로 길러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연구소로서 일차적으로는 지역문화 기반의 디자인 기초연구 생산과 이의 적용 및 교육을 통하여 문화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디자이너의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나, 장기적으로 외국유학생을 비롯한 세계문화와 소통을 통하여 한국과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지향점을 두고 있다.

동서대 = 디자인 특성화 대학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1992년 설립 당시부터 도전적인 실험과 혁신을 거듭하며 디자인학부와 패션디자인학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세계 40개국의 200여 개 대학 및 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 국제화 부분에서는 선도적인 대학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 중 디자인대학의 GDS(Global Design Society)는 ‘1인 1글로벌’을 목표로, 미국, 이태리, 호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디자인분야의 심화학습, 워크숍, 전시회,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저명 공간디자이너인 이코 밀리오레 석좌교수와와 ‘밀라노 프로그램’은 좋은 성공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본교에서의 하계 집중워크숍과 밀라노 현장에서의 동계집중워크숍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특유의 창의적 프로젝트 방식의 디자인 훈련에 이어 현장체험과 문화탐방의 기회가 주어져서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중 선정된 2~3명에게는 밀라노에 있는 디자인회사에서 인턴을 할 기회도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K-MOVE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Design + Culture :
Busan, Korea, Asia!

한국·아시아 문화가치에 기반한
동서융합 디자인 연구의 거점 연구소

ADCF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ASA DESIGN CENTER FOR FUTURE

해마다 40여 명의 디자인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에서의 인턴 기회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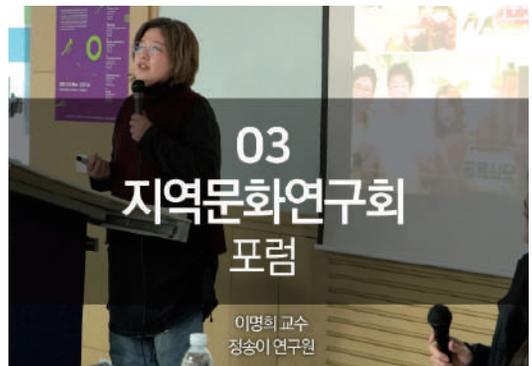
2019년 여름 Milano_M+S studio 워크숍 Busan : "Numbers"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공모전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어워드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유수의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미연의 역할 : 디자인 지식의 생산, 교육, 저장, 확산

이처럼 부산에 위치한 특성화대학의 부설 디자인 연구소로서 아미연은 부산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디자인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

본 연구소의 첫 번째 역할로서는 디자인 지식의 '생산'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디자인인문연구회>와 <지역문화연구회>를 구성하여 부산의 지역문화와 한국 미학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생산한 연구결과물로 국내외 학회에 논문발표와 학술지 게재를 하고, 봄과 가을의 학술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 간의 자발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SIG(Special Interest Group) 연구회>를 공모하여 매 학기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대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연구집을 발간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의 역할로서는, 연구한 내용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신규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교재를 편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19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사업에서 '교육연계형'으로 선정되어 6년간 12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3개 교과목과 MOOC의 신규개설 및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디자인교육을 게이미피케이션 방법으로 교육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교육 콘텐츠와 교수학습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문화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디자이너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교사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부 등 연구성과의 지역공유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온라인디자인교육콘텐츠의 지원과 기여로 글로벌 사회에도 공헌하고자 한다.



D-MOOC <예술학개론> 강의영상자료 부분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25년 아카이브_hi25 historymaker> 자료집

세 번째 '저장'의 역할로서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25년 아카이브_hi25 historymaker>라는 방대한 역사자료집 편찬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연구 및 디자인교육과 활동상을 기록한 저작물을 발간하고 있다. <hi25 historymaker>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25년간의 역사자료집이지만 부산지역 디자인교육의 역사를 다룬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디자인사는 서울디자인사와 다름없다. 하지만 본서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부산지역의 디자인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인 것이다.

또한 겨울과 여름, 연 2회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연구소와 디자인 대학원의 활동을 소상히 기록 정리하고 있다. 그 외 봄-가을 학술대회에서의 학술연구 내용을 엮은 <연구집> 발행과 대학원에서 생산한 논문들을 엮은 <아시아디자인아카이브> 및 <아시아디자인저널>, 그리고 각종 워크숍 자료집과 교재 등을 지속해서 편찬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석박사 논문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들의 학위논문은 다양한 연구주제와 함께 국내에서 얻기 힘든 자국의 참고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어 향후 자료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디자인 아카이브(Asia Design Archive)
 다양한 디자인과 사회·역사·문화·기술·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최신 정보를 담은 디자인북



이런의 혁신대학 10, 일반대학의 디자인학과 디자인연구소 설립 보고서
 디자인연구소 설립을 위한 일반대학 디자인학과 설립을 위한 보고서



국제도시연구소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도시 연구보고서, 국제도시 연구보고서



향경이공대-부산대 국제자문
 향경이공대-부산대 국제자문 연구보고서, 향경이공대-부산대 국제자문 연구보고서

네 번째, '확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 활동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DSU-DESIS Lab>을 오픈하여 활동 중이다. DESIS는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활동을 하는 세계 유수의 디자인대학 네트워크다.



DESIS Network 홈페이지 메인에 실린 DSU-DESIS Lab 관련 기사, 2019



부산 북구 도시재생을 위한 구포 지역매주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결과물, 2020(김수화교수 지도, 링크사업단 지원)

2019년 9월에는 해외석학 석좌·객원교수님들을 모시고 <2019 동서국제디자인워크 : Design as Changemaker>를 주관하여 특강과 대담, 전시회 등을 이끌며 국내외의 디자인 담론을 확산하였다.

그 외 전시회 기획 및 도서 출판 등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음식문화를 디자인과 인문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일러스트레이션과 서술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한국의 일상문화1_식: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디자인 석학들의 논설을 엮은 편저, <Design as Changemaker, 한국과 아시아의 지혁혁신을 위한 디자인>의 단행본 출판과 각종 전시회가 그것이다.



<한국의 일상문화1_식: 부산의 맛과 멋>



<Design as Changemaker>



한중디자인교류전 티저 동영상, 2020

임팩트디자인 : 로컬임팩트와 글로벌임팩트

전통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소비자·사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로 시각적인 형태로 기능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디자이너에게 이미지, 사물, 공간,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공감적 디자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의 난제까지 다루는 역할이 더해지고 있다. 이제는 디자이너의 창의성 발휘로 사회문화의 변화를 추동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지난 4월에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영화의전당과 협약을 맺고 본교 디자인대학에서 제작한 디자인영상 콘텐츠를 영화의전당 시설에서 상영하는 등의 다양한 상호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디자인, 영화·영상 분야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해 지역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5월에 맺은 동래학춤보존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지원하고, 현대적 재창조를 통한 지역문화유산의 활성화 작업을 학생들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민들을 위한 시민디자인 강좌 시리즈를 제작하여, 비전공자들을 위한 다양

하고 흥미로운 디자인 각 분야의 강의를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 체험 디자인워크숍도 기획하여 예비 디자이너들의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기타 아세안문화원과의 협약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디자인 문제의 발굴과 해결의 작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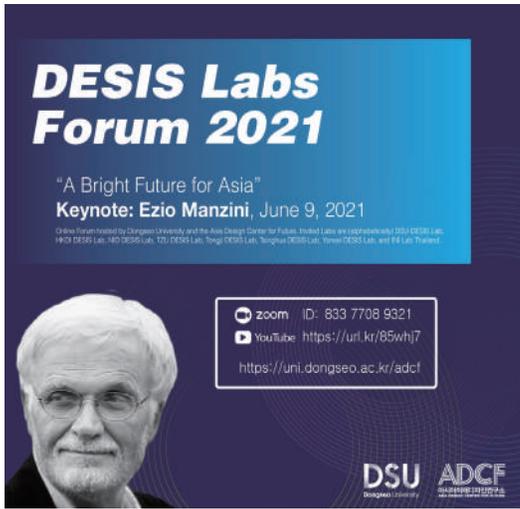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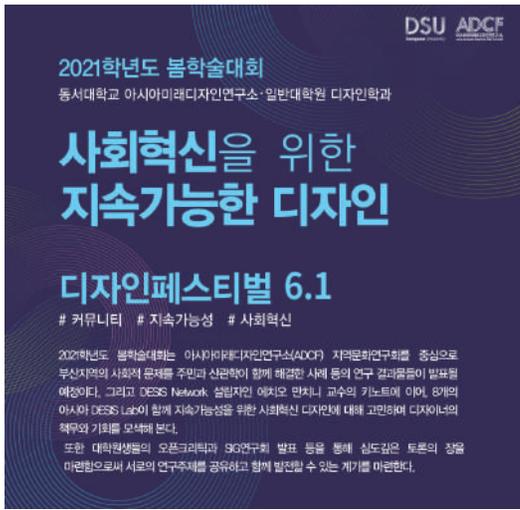
지역 예비대학생을 위한 대학디자인 교육 체험 워크숍, 2021

글로벌 활동으로서는 세계적인 디자인대학의 협의체인 큐물러스(Cumulus)의 공식회원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봄 학술대회에서 DESIS Network의 창설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에치오만지니(Ezio Manzini) 밀라노공과대학 명예교수를 기조강연자로 초빙하고, 아시아 6개국의 8개 DESIS 회원교의 패넬토론과 포럼을 주관하며, ASIA DESIS Lab Network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아시아의 회원교들과 연합하여 아시아의 밝은 미래와 지역혁신을 위해 디자인 활동과 연구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UN이 주도하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동참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SDSN(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정식회원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세계시민으로서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동서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SDGs 17개의 주제에 대해 고민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다.

본 연구소는 디자인 접근방법으로 다양한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디자인실천을 통해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며 임팩트를 만드는 데 앞장서나가고자 한다.



봄학술대회 포스터, 2021.06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회원 로고

참고문헌

유승훈, 『부산은 넓다』, 글항아리, 2013

장주영, 장소성의 맥락에서 지역디자인의 특성 연구- 부산성(釜山性)의 관점에서 부산지역 디자인의 해석, 한국디자인포럼, 54,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7 54,123-32

Buchanan, R.,(2001), Design Research and the New Learning, Design Issues: Volume 17, Number 4

Chon, H., (2018). Social Innovation through Design. A Model for Design Education

Manzini, E. (2010), "Small, Local, Open and Connected: Design Research Topics in the Age of Networks and Sustainability," in Journal of Design Strategies, Volume 4, No. 1, Spring.

Margolin, V. & Margolin, S. (2002). A "Social Model" of Design: Issues of Practice and Research. Design Issues, 18(4), 24-30).

Souleles, N.(2017). Design for social change and design education: Social challenges versus teacher-centred pedagogies. Design for Next 12th EAD Conferenc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12-14

장주영 프로필

동서대학교 부설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과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자인역사·문화·이론 전문가로서 지역문화 기반의 디자인 실천을 위한 문화 해석의 방법론 연구와 이를 디자인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문화이해와 교차문화(Cross-Cultural)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글로벌시대 디자이너와 연구자에게 사회문화를 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사업(교육연계형, 2019~2025)에 "한국문화기반의 창의적 디자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게이미피케이션 연구"로 선정되어 책임연구자로서 디자인교육혁신을 위한 연구를 고민 중이다.

02

지역연구 특집 2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현황과 진단

- ① **총론-비전과 전략**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형 메가시티' 모델로 800만 시민 행복 추구 전호환
- ② **부산-의미와 과제**
수도권에 밀려 '노인과 바다' 도시로...
글로벌 시티 도약 위한 절박한 선택 박충훈
- ③ **울산-광역교통체계 구축**
동남권 '1시간 생활권'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 및 운영체계 개선 김승길
- ④ **경남-필요성과 기본구상**
4대 거점도시 중심으로 행정·생활·경제·문화 4대 공동체 구축 김태영, 하경준
- ⑤ **추진현황 평가와 발전 방향**
'지역 주도 + 정부 지원' 구도 긍정적...재정확보 필요 강윤호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형 메가시티’ 모델로 800만 시민 행복 추구



전 호 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동명대학교 총장

1. 들어가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고비를 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구체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행정공동체인 ‘동남권 광역 특별연합’을 형성하는 법적 기반이고, 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의 핵심 SOC이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수도권 중심 성장 문제와 지역균형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800만 부울경 시민들이 가덕 신공항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도 소득이다. 남은 것은 구체화를 위한 전략과 꼼꼼한 실천이다. 내년엔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활용도 중요하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 (사)동남권발전협의회를 비롯한 800만 부울경 시민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화와 지속성에 필요한 어젠다를 정치 이벤트에서 부각되도록 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한국형 메가시티’를 지향점으로 구체화 돼야 한다. 개념의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형 메가시티’가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형 메가시티’는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

는 모델이 돼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국형 메가시티’의 모델이 될 수 있는기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메가시티 발전 과정과 내용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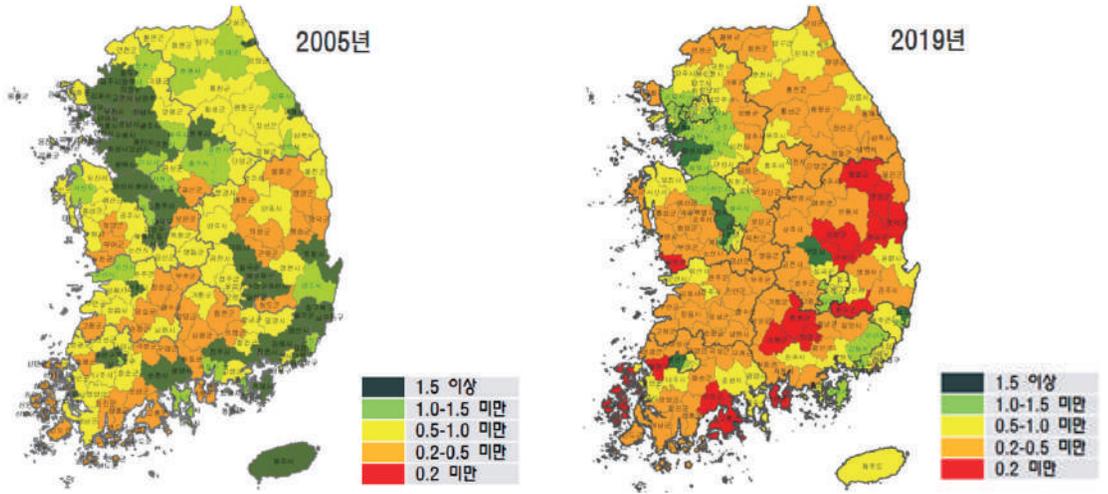
2.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혹은 K뉴딜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3가지 기본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 지역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부울경의 미래는 암울하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의 직격탄을 맞아 실제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발전 실현을 구현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기본 조건이자 추진 이유다. 대한민국은 지역소멸 중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00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2020년 5월 현재). 부산의 지역소멸위험지수는 25%로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이 지역소멸 위험 지역이다. 울산은 한 곳도 없지만, 경남은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이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66.7%에 달한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

2019년 한국의 지역소멸위험 현황



지역소멸위험지수 분류

명칭	소멸위험지수	색상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이상	■	
소멸위험 보통	1.0~1.5미만	■	
주의단계	0.5~1.0미만	■	
소멸위험 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0.2~0.5미만	■
	소멸고위험지역	0.2미만	■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11.14. 보도자료

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지역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부울경의 지역소멸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2020년 6월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50년 뒤 부산 인구는 -42.3%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를 55%나 초과하는 수치다. 울산 역시 -39.3%(2020년 114만 명→2070년 69만 명)로 대구(-40.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감소율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경남은 335만 명에서 222만 명으로 33.6%가 줄어 광주(-37.5%)에 이어 감소율 5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전

반적인 인구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인구 감소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지속되는 데다 출산율 저하까지 겹친 탓이다.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원인 중 하나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울경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은 48만 명이었는데 부산이 25만 9000명, 경남 16만 2585명, 울산 6만 74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제조업 고용률이 떨어진 탓에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층 인구수는 경남 1만 8500명을 포함해 부울경에서 3만 명이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학령인구 부족은 지역의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시내 15개 대학 가운데 부산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몇몇 대학은 수백 명씩 미충원이 발생해 대학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전문대는 더 심각해 2021학년도 부산지역 전문대 등록률은 85.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학소멸은 노년층의 인구비율을 높여 지역소멸 지수 상승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둘째, 지역 내 불균형 방지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면적은 12,372.5㎢로 11,851.26㎢인 수도권과 엇비슷하다. 부울경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지역 내 불균형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경기에서는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부울경도 현재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부산에는 동서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남도 동과 서의 지역 불균형이 있고, 경남의 주요 도시 안에서도 불균형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지역격차 및 각각의 거점 도시에서 불균형을 없애는데 작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난개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환경 가치의 보존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환경이다. 부울경은 환경적 측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특히 뛰어난 해양자원과 산림자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부산의 중심산업 가운데 하나인 MICE는 환경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관광 및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환경 가치는 그린에너지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많은 산업·경제적 가치향상에 긍정적이다. 부울경은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등 그린 뉴딜에 강점이 있는 기업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에서 ESG를 중시하는 것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환경 가치를 주목하는 요인이다. 환경적 가치 보존과 발전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구하는 주요 전략으로 손색없다.

3.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목표는 ‘행복’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목표는 행복에 있고 발전 전략은 그 구체화에 뒤야 한다. 행복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행복의 추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질적인 우수성을 대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만의 가진 특질을 경제적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한국의 약점인 양극화, 진학 위주 경쟁 교육, 노령화 등도 행복을 목표로 한 메가시티 추진에서 상당 부분 해소되게 해야 한다.

행복 추구는 콘텐츠 중심 성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BIS의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5조 5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2018년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에서 연예인이 유발한 경제효과로는 최고 수준이다. 한류는 KPOP, KMOVIE, KFOOD, KGAME 등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산업이 제조업보다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콘텐츠 중심 전략 채택은 당연하다. 콘텐츠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성을 뒷받침하려면 두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대학이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주도 성장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학을 중심에 둔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대학주도 성장은 △높은 가성비 △폭넓은 산업 효과 △인구 유입 △교육 현실 개선 등 장점이 많은 정책이다. 반면 대학을 방치할 경우 지역이 감내해야 할 후과는 혹독하다. 최근 10년간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한중대(강원), 서남대(전북)의 폐교와 상주대(경북), 여수대(전남), 밀양대(경남)의 지역 거점 국립대로

의 통합은 인구 감소, 지역 황폐화 및 젊은 인구의 유출로 나타났다. 2015년 전북대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5~7배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2017년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대학생의 연간 1인당 생활비가 700만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학을 경제적 가치로 봐야 하는 이유를 위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구현에 대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대학을 활용해 지역균형개발을 이룬 세계적 모범적 사례를 부울경도 따라하는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은 대학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폈고 성공했다. 특히 미국, 독일의 국부의 원천은 연구중심대학이었다. 조선업이 붕괴해 나라가 흔들렸던 스웨덴의 회생에도 대학이 있었다. 골리앗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 때 흘렸던 '말뚝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의 말뚝시는 룬드, 코펜하겐으로 이어지는 외레순 벨트의 핵심 도시로 변모해 유럽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부울경 소재 대학은 인구 800만의 거대 메가시티가 발전하는데 인적, 물적, 정신적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 황폐화는 물론 젊은 층의 유출로 성장 동력까지 훼손되기 때문에 대학의 회생과 발전이 중요하다.

대학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자체의 대학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이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지자체의 발전과 소멸에는 대학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의 각 구에 흩어져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한두 개만 문을 닫아도 지역의 성장 동력은 심하게 훼손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부산시의 2021년 예산은 14조 5000억 원인데

이중 1%인 1500억 내외의 재정을 꾸준히 대학에 투자하면 대학은 회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부산시의 지원은 철저히 부산시 발전전략과의 연계 및 대학 혁신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산학연계를 강조한 시장이 당선된 만큼 예산을 뛰어넘은 지원이 이뤄지면 2021학년도부터 나타난 대학 폐교의 그림자를 건어낼 수 있다.

일본 기타큐슈시의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사례처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는 지자체가 지역 산업 회생을 위해 △기타큐슈 시립대 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 대학원 공학연구과 △큐슈공대 대학원 생명체공학 연구과 △와세다대 대학원 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등 4개를 모아 놓은 대학 도시이다. 이곳에는 와세다대 정보생산시스템연구센터, 기타큐슈 시립대 환경기술연구소 등 13개의 연구소와 아이신 전기를 비롯한 4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학생은 25개국에서 온 유학생 600여 명을 포함해 2400여 명이 있다. 기타큐슈시는 학술연구도시의 성과에 힘입어 수도권으로 떠난 젊은층이 회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립대-국립대 간, 국립대-사립대 간, 사립대-사립대 간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은 향후 10년 이내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약 8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령인구를 초과하는 대학의 존속은 지역사립대 전체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4개 국립대를 제외하고 11개 사립대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적정한 숫자로 유지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에는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

학, 실용중심대학 등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고 수요자의 교육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

진학중심교육을 역량중심교육으로 전환하는데 행정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학중심교육은 많은 사교육비 부담과 경쟁을 가중시키지만 정작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대는 인간의 역량을 중시하지만 학교에서는 거꾸로 지식을 쌓는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다. 헬조선의 많은 원인이 기성세대가 과거의 지식 축적형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데 있다. 가계도 사교육비가 부담이다.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000억 원,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000원, 사교육 참여자의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년 한국의 40대 가장은 사교육에 월 소득의 20%인 107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하나은행).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 개입은 교육 자치와 함께 수반되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경기 오산시는 역량중심교육을 위해 연평균 50~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결과 정주 만족도가 2013년 36%에서 2017년 83.4%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인구도 2000년 10만 명 수준에서 2018년 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오산의 학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오산으로 이주가 늘어나고 있는 등 한국의 여느 지방 도시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평균 연령은 36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의 하나다. 교육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이 교육자치까지 책임지면 더 많은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한다.

4. 플랫폼 도시 연합체,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은 '한국형 메가시티'로 발돋움해 태평양의 대표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다. 수도권 1핵에 대응하는 다핵의 하나로 부울경 메가시티로 한정하는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닌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않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전 단계로 부산, 울산, 창원 등 지역 대표도시의 플랫폼화도 꼭 이뤄야 한다. 플랫폼 도시란 집종의 힘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미국 시애틀이 예다. FAANG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1979년 본사를 시애틀로 옮겼다. MS가 본사를 옮기자 세계적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도 옮기는 등 혁신기업들이 줄줄이 몰려왔다. 시애틀은 기업들의 집적 효과에 힘입어 '임계질량'을 넘기면서 혁신역량이 도시의 성장을 압도했다. 미국에는 시애틀 같은 플랫폼 도시가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11개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부울경의 거점 도시들이 플랫폼 도시로 진화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량을 키워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내실은 2010년 출범한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이 모델이 될 수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등 2부6현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오사카시, 교토시, 고베시, 사카이시 등 4개 정령시(政令市)도 멤버다. 총 인구수는 2천 200만 명에 달한다. 이 연합은 일본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개입이 필요한 부문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내년 발족할 '동남권 광역 특별연합과 기존의 민간단체인 '(사)동남권 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처 : 부산일보, 2016-10-24, 사라진 목소리 '균형발전'

일본과 달리 부울경은 SOC 인프라가 약한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부울경 광역 교통망 정비와 부산항의 꾸준한 확장이 필요하다. 예정된 김천-거제 KTX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부울경 인접 지역인 전라남도의 여수, 목포항의 업그레이드도 부울경이 먼저 나서 제안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주변에 혁신역량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접 지역 인프라가 뒷받침 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이 일본의 큐슈 플랫폼과 융합할 때 영향력은 수도권을 넘어 세계로 향할 수 있다. 큐슈 지역의 인구는 1400만 명으로 부울경 800만을 합하면 2200만 명이다. 수도권보다 인구는 적지만 △면적 우위 △2개 국가의 연합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 △태평양 진출의 허브 등 수도권이 갖지 못한 장점이 많다. 여기에 한일 해저터널까지 뚫리면 부울경은 한국의 물류 중심을 넘어 태평양의 핵심 물류 기지가 될 것이다.

5. 맺음말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현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부울경의 성공은 단순히 지표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질까지 부울경 메가시티가 달성할 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1755달러에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경제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있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구체화 과정에서 800만 시민의 행복과 더불어 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행복에 필요한 것들을 세심히 구현할 때 '한국형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고 세계의 메가시티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전호환 프로필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거쳐 부산대 제20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국왕립조선학회 Fellow,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사)부산글로벌포럼 회장, (사)한국해양산업협회 공동이사장, (사)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위원장, 동명대학교 제10대 총장을 맡고 있다. 부산광역시 제4회 부산과학기술상(공학상),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국토해양부장관상),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매일경제신문 회장상), 일본조선해양공학회 2016년 최우수논문상, (사)총·효·예 실천본부 대훈장을 수상했다.

수도권에 밀려 ‘노인과 바다’ 도시로… 글로벌 시티 도약 위한 절박한 선택



박 충 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수도권은 사람과 돈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2019년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2021년 3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600만 명, 50.3%). 지역내 총생산 비중도 과반이며(2019년 통계청 지역소득 기준 51.9%), 2018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국 평균 2.9%보다 높게 나타났다(김태영 외, 2021: 61).

반면 비수도권은 헤어지기 어려운 정체에 빠진 상태이다. 산업화 시기, 수도권과 더불어 경부회랑의 양대 축으로서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부·울·경 권(동남권)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인구가 줄고 있고, 떠나는 인구의 다수는 수도권으로 향했다. 2020년에도 부·울·경에서 10만명 가까운 사람이 수도권으로 떠났다(2020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준, 97,708명). 2020년 부산 사람 20,990명이 서울로, 17,440명이 경기로 떠났다. 수도권이 그 큰 덩치를 갖고도 4.5%의 ‘고도성장’을 했을 때, 부·울·경권은 0.2%의 제자리걸음을 해야 했다(2018년 기준).

오랜 기간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위기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정책적 대응이 시도되긴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은 실제 체감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의미 있는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대규모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이래 부·울·경권에서 제기되고 준비 중인 비수도권 발전전략, 이른바 부·울·경(동남권) 메가시티가 관심을 받고 있다.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설명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남, 부산, 울산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 되는 인구 800만의 도시이다(경상남도 홈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해,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어떻게 메가시티를 통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 될 수 있을까? 메가시티는 과연 부·울·경권을 침체로부터 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

권 지역의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메가시티 추진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 글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2.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관련 학계나 실무에서 쓰이는 전통적 의미에 따르면, 메가시티는 인구 천만 이상의 도시이다. 메가시티 그 자체가 이상적인 목표로나 실현 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메가시티의 특성상 좁은 땅에 천만이 넘는 사람이 몰려 살게 됨으로써 범죄, 교통혼잡, 대기오염, 자원 부족 등 도시화 문제를 심각한 수준에서 유발하게 되는데, 그 해결의 장으로 다뤄진 면이 크다.

그런데 발전전략으로서 제기된 메가시티는 다르다. 도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전략은 깊은 이론적, 지역적 기반,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지 않다. 한국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0여 년 전 한 메이저 언론과 컨설팅펌이 같이 제안한 전략이다. 메가시티 추진 전략에서 지향하는 메가시티는 메갈로폴리스 혹은 메가리전 상태에 가깝다. 특정 대도시, 혹은 대도시와 그 주변 위성도시까지의 영역을 넘어 복수의 도시, 도시권이 연결된 넓은 범위의 지역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¹⁾ 메가시티 전략은 복수의 도시, 도시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들을 거대한 하나의 도시처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2009: 136). 광역교통망으로 각 도시권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메가시티는 연계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는 지역 간 수평적 연계가 아니라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연계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기존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점도시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역량 있는 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불균형 전략은 낙후지역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균형발전 전략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메가시티 전략 관점에서 우호적인 해당 분야 저명 외국학자의 입장도 근거로 활용했다.



앨런스콧
전 UCLA 교수

“핵심 도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주변 도시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피터홀
전 런던대 교수

“침체된 지역의 사람들이 거점도시로 오고갈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 핵심 산업이 침체된 도시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출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2009: 166; 171; Academia ucla.academia.edu; Construction week www.constructionweekonline.com

2009년 메가시티 추진 전략이 소개될 때, 이 전략이 초점을 맞춘 지역은 수도권이었다. 수도권(경인권)을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권으로 글로벌 TOP5 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2009: 136).²⁾ 수도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는 이야기이

1) 그때문인지 완전한 명칭으로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메가시티가 메가시티리전의 약칭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전략을 소개한 도서의 제목부터가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공동기획)였다. 이 글도 발전전략 측면에서 메가시티리전을 가리킬 때, 메가시티로 썼다.

2) 수도권 비중만큼은 아니지만 부·울·경권도 다루었다. 수도권은 글로벌 수준, 부·울·경권은 동북아 수준의 목표 수립을 권장했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 2009: 131).

니, 폭넓게 수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5+2 광역경제권도 호지부지된 마당에 민간에서 주창한 담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다.

3. 부·울·경 메가시티의 부상

기억에서 잊힌 줄만 알았던 메가시티가 다시 부상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이 아니라 저밀리 부·울·경이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비수도권 발전 전략으로 재기한 것이다. 2019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한 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축으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시사인, 2019). 선택과 집중, 지역 간 위계를 인정하는 대도시 거점 중심 연계발전전략이라는 전략의 핵심적 정체성은 그대로였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 핵심거점으로서 부산의 역할을 중증했다. 하나의 거대 생활권·경제권으로 자생하려면 ‘백오피스 기능’(회계, 법률, 금융, 컨설팅 등 기업에 대한 종합 서비스 기능)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부산이 이미 이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³⁾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2009: 135)은 부산을 부·울·경의 중심도시로 재활성화시키고, 부·울·경의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 논리를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

그는 “부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집중은 필요하다”며(시사인, 2019), ‘부산을 위한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은 공간의 압축이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것도 물론이다. “우리도 전철 타고 부산 가자!”는 경남도 홈페이지의 한마디 문구로 요약된다. 김태영(2021: 120)에 따르면 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거점도시 간 30분) 생활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관점에서 요약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783만명(2021년 3월 기준)에 면적이 12,360km²에 달하는 부·울·경권 전역을 범위로 해 대도시 거점 중심 연계발전전략을 통해

<그림-1>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자료: 박충훈(2021) 일부 수정

3) 김지사 발언 “부산의 혁신도시 주제 중 하나가 금융이다. 종합도시 기능을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참조(시사인, 2019)

구축된 초대형 도시지역권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블랙홀 같은 수도권의 흡입력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⁴⁾

메가시티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대도시 거점의 역할이다. 메가시티가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를 진행하고, 거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권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전략의 본질에 충실하면 부·울·경 수준에서는 권역 내 최대 도시인 부산을 비롯하여 울산, 창원 등 3개 대도시가 거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최근 서부경남의 진주까지 포함하지는 4대 거점론이 제기되었는데, 진주의 역량을 감안하면 메가시티 전략 관점에서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다.⁵⁾

4.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진단

수도권 집중과 지역 쇠퇴라는 엄청난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메가시티라는 강도 높은 전략을 택한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메가시티가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문제 해결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는 유사한 성공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도시 간 연계, 광역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화된 선진민주국가에서 '메가'급으로 진행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외국 사례로 소개되는 메트로폴(Métropole, 프랑스), city-regions, combined authority(영국) 등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특례시~광역시 수준이다.⁶⁾ 협력기구 성격의 메트로폴 17개 중 관할 인구가 백만이 넘는 데는 3개에 불과하다.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독일), 맨체스터 광역권도 관할인구가 각각 280만, 330만 안팎이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관할 인구가 2,200만 정도이긴 하지만, 광역연합의 관할 영역을 메가시티 수준의 생활권(예: 1시간 내 이동가능)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사실 간사이광역연합은 메가시티의 벤치마킹 모델로 보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지자체 간 협력체로서 2021년 예산이 24.2억엔에 불과하고,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은 전무하며, 산업관련 예산도 5천3백만엔에 불과하다(令和3年度 関西広域連合一般会計予算に関する説明書).⁷⁾ 중국대륙의 창장강 삼각주, 징진지 등은 규모가 메가시티 급이지만 고도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닌 권위주의 체제하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국 사례를 보면 메가급 규모의 추진은 다소 시대적으로 뒤쳐진 패러다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메가 사이즈로 커지는 것이 꼭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요약되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역이 커질수록, 권역내 지역 간 이질성, 이해관계의 불일치, 복잡성 수준이 상승해, 광역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 협력의 어려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4) 김지사 발인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 힘에 버틸 만한 독자적 발전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참조(시사인, 2019)

5)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지만, 인구 35만명으로 동부경남의 김해(54만명)에 상당 수준 못 미치며, 양산(35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진주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8.2조원으로 김해(15.7조원)의 52.4%, 양산(10.3조원)의 79.6%에 불과하며, 진주보다 인구가 작은 거제(10.2조원)보다도 작다. 오랜 기간 역량을 축적해 지역적 우위를 확보한 산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메가시티 추진 전략에서 김해, 양산, 거제가 핵심 혹은 주요 거점과 연계된 주변도시급으로 역할함을 감안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 진주를 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6) city-regions는 주로 복수의 기초지자체로 구성되는 도시(지역)권, 메트로폴과 combined authority는 city-regions와 같은 도시권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간 협력기구로 이해될 수 있다. 메트로폴과 combined authority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설치된 보장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면이 있다.

7) 100엔이 1,035원일 경우(2021년 4월 21일 매매기준율 기준), 세출예산이 대략 250억원, 산업관련 예산이 5억5천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기에 장점에 따른 이익이 단점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면,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현 시점에서 장·단점의 비교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비해 수행기능의 범위가 좁고,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합의점이 분명한 기업들 간의 제휴, 합작, 합병도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이즈업의 효과를 막연히 낙관하는 입장은 곤란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대도시 거점 중심 연계발전전략이라는 메가시티의 전략적 특성이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메가시티는 '나눠먹기를 비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의 역량 강화를 주문한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에서 소외되는 지역에서 불만이 생길 것이다. 지역 간 연계의 결과물인 낙수효과는 불확실하고, 실현되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 상실과 '나눠먹기식 균형으로의 회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이는 '진주 4대 거점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삽도 뜨기 전부터 균형발전 논리에 휘말리고, 대도시 거점 중심 연계발전전략이라는 전략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메가시티는 더 이상 메가시티가 아닌 것이 된다.

그럼에도 메가시티 전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울·경 지역 스스로 마련한 위기감 인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수도권과의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지역의 경제 활력 쇠퇴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 전략은 다른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울·경이 절박한 심정으로 채택한 모험의 길이야 아닐까 한다.

기존 성공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는 어찌보면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집중을 겪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으로 대응 가능한 상황인데,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강도 높고 급진적인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부산은 적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 경제적 영향력이 날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활력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일상적 삶도 '노인과 바다'로 요약되는 침체와 체념을 탈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이러한 도시 전반의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산이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고도 산업지원 기능의 경쟁력 강화와 부·울·경권 첨단산업 R&D 중추 역할을 통해 세계도시(global city)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5.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과제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의 재도약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부·울·경이 전략이 지닌 여러 한계를 감내하면서 선택한 것이다. 이 전략의 추진에서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메가시티 전략 추진에 동의한다면, 전략적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을 결심했다면, 선택과 집중, 대도시 거점 중심 연계발전전략이라는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냥 예전처럼 '나눠먹기'하면서 정치적 수사로서 메가시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럴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메가시티 전략에서 강조하는 권역내 도시, 도시권 간 연계에는 동의하되,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연계가 아니라 평등한 네트워크 구조를 강조하는 수평적 연계를 선호할 수도 있다. 부·울·경 현실에 비추어 위계적 연계와 수평적 네트워크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일지는 별도로 살펴볼 부분이다. 한정된 자원을 감안하면 위계적 연계가 유리하다. 하지만 현 상태의 지역적 역량, 관계를 감안하면, 수평적 거대 중심의 네트워크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수평적 연계를 선호한다면, 메가시티가 아닌 다른 이름의 전략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되, 거점 중심의 위계적 연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계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메가시티가 아닌 것을 메가시티로 부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필요한 오해로 정책 일선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메가시티 개념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이다.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전략에서 유연하게 타협 가능한 부분은 전략적 정체성이 아니라 '메가'라는 사이즈에 있다. 당장은 전략적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실현 가능한 영역부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부터 '메가'급 규모에 집착하면, 정작 전략적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부·울·경은 대도시 거점 중심 연계발전전략이라는 전략적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넓다. 넓은 만큼 지역적 다양성 수준도 높고, 특히 이 권역의 절반 가량 점유하는 서부경남은 전형적인 농촌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부산, 울산, 동부경남⁸⁾과 큰 차이가 있다. 서부경남지역의 인구밀도는 132명/1㎢로,⁹⁾ 부산(4,446명/1㎢), 울산(16,841명/1㎢)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평균 516명/1㎢의 1/4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2019년 기준).

경남도는 부·울·경 지역 간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철강금속, 석유화학 등 조밀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지만(경상남도 홈페이지), 여기서 경남은 동부지역까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서부경남과 나머지 부·울·경 지역 간에 위계적이든 수평적이든 기능적 연계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공동이익의 합의와 산업적 연계 수준이 높은 부산, 울산, 동부경남에 범위를 한정해 메가시티 전략의 추진을 착수하되, 시도 간 협력 역량이 성숙하고, 동부경남까지의 메가시티 수준의 연계가 충분히 실현되었을 때, 메가시티 전략의 범위를 부·울·경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메가시티의 단계별 확대라는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¹⁰⁾ 경제적 성과를 쌓을 때와 나눌 때를 구별해, 축적과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접근이기도 하다.¹¹⁾ 흥미로운 점은 경남도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이러한 유연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홈페이지의 메가시티 구상 지도를 살펴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광역권)'에서 서부경남은 제외되어 있다. 진주 등 서부경남은 남중 중추도시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메가시티 구상을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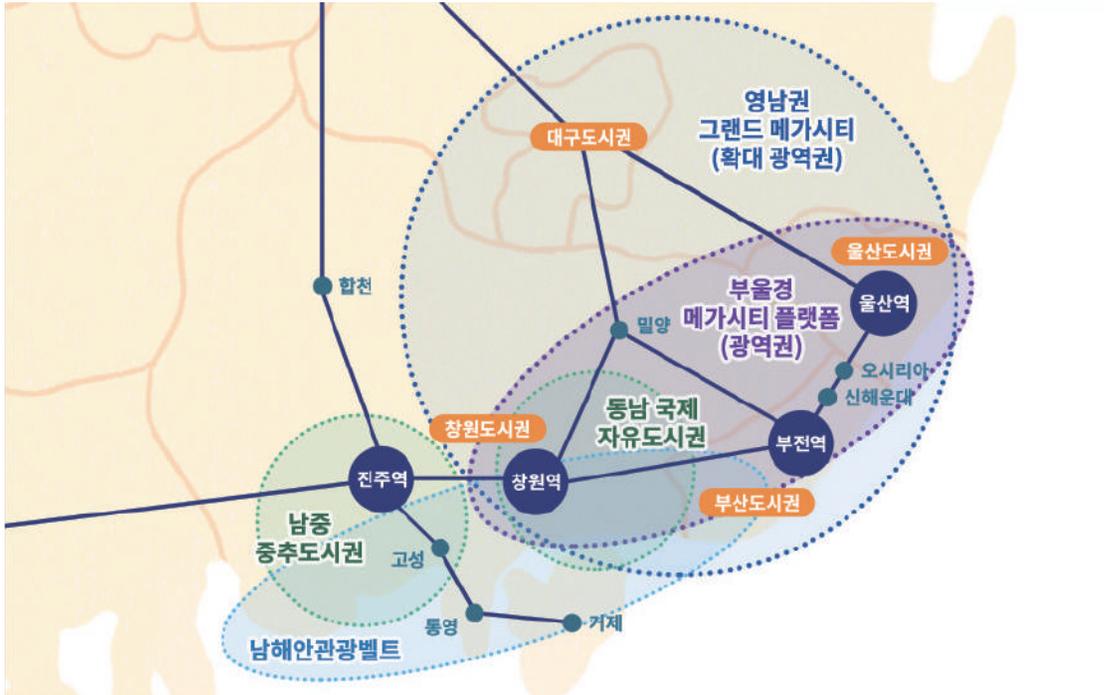
8) 광의의 의미로 쓴 것으로 경남 동·중부 지역을 포괄한다.

9) 서부경남 9개 시군의 값이다.

10) 단계별 확대 접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충훈(2021)을 참조하길 바란다.

11) 서부경남은 초기에 메가시티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해 메가시티 범위에 포함되면, 추진에 따른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초기부터 포함해 메가시티의 전략적 정체성이 위태로워지고, 성공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는 상황보다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2> 경남도의 메가시티 구상



자료: 경상남도(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3005001001)

(부산,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중소도시권(김해, 양산 등), 소도시권(밀양 등)을 연계하고, 서부경남의 중도시권(진주), 소도시권(사천) 등으로 확장 가능한 도시의 기능 중심 광역체계로 소개하고 있다(경상남도 홈페이지). 이미 합리적인 구상을 확보했다.

박충훈 프로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참고문헌

김태영, 박충훈, 정형욱 외*. (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 연구, 전략계획. 창원: 경남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모니터그룹. (2009). 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서울: 동아일보사.

박충훈. (2021). 메가시티의 추진수단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을 위한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시사인. (2019). 노무현의 균형발전 1.0 김경수의 균형발전 2.0, 628호.

KBS. (2021. 3. 9.) "동남권 메가시티 청사진에도 서부권 소외".

関西広域連合. (2020). 令和3年度 関西広域連合一般会計予算に関する説明書.

경상남도 홈페이지 gyeongnam.go.kr

창원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Academia ucla.academia.edu

Construction week www.constructionweekonline.com

* 연구자가 수십명이 넘는 관계로 종료 시점의 참여 연구기관별 연구책임자 성명만 기재(주관연구기관-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 순)

동남권 '1시간 생활권'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 및 운영체계 개선을



김승길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유엔 경제사회국(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발표한 'The World's Cities in 2018'에 따르면, 도시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메가시티¹⁾(Megacity)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5백만 명에서 1천만 명의 도시도 2018년 48개에서 2030년 66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하면서 경제활동 주체도 국가에서 도시로 변화해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이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은 인구가 약 8백만 명이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으로 시도 간 행정 경계를 넘어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과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자동차·기계 산업 등이 상호 연계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메가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대도시권이다.

국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대중교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거대한 생활권 및 경제권을 형성해 전 세계 도시 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를 실현하는데 필수시설인 광역교통체계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동남권의 광역교통 여건을 진단해 보고 동남권 주요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메가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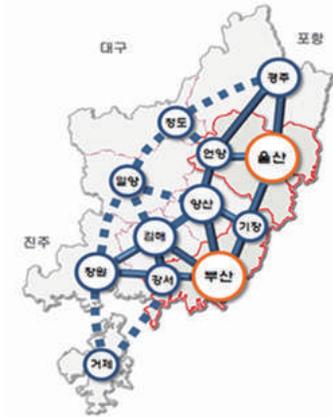
2. 동남권 광역교통 여건 진단

동남권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울산권²⁾의 도시 공간구조와 주요 광역 교통축별 통행량을 바탕으로 광역 교통여건을 진단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메가시티(Megacity)는 단일 대도시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권으로 인구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대도시권을 지칭함(M이코노미뉴스, 2021.03.25).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산·울산권은 부산, 울산,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 경북 경주시임

[그림 1] 동남권(부산·울산권) 도시 공간구조 및 교통망 현황



도시 공간구조



교통망(도로 및 철도)

동남권 도시 공간구조는 부산과 울산 2개 대도시(대상형·선형+H자형)가 주변 도시와 상호 연결 결합된 형태로 도로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순환도로망 체계가 미흡해 주요 광역 교통축의 경우 교통 지정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동남권 주요 도시 간을 연계하는데 있어 도로망에 비해 버스 및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위주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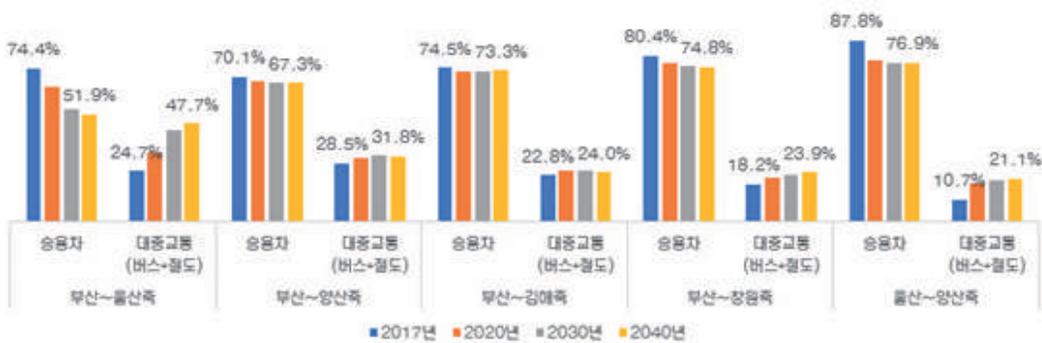
동남권 장래 통행량³⁾의 경우, 개별 도시 내 통행량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광역 간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내 : 1,729만 통행/일(17년) → 1,504만 통행/일(40년), 연평균증가율 -0.60%

- 광역 간 : 245만 통행/일(17년) → 398만 명 통행/일(40년), 연평균 증가율 +2.14%

장래 통행량을 바탕으로 주요 광역 교통축의 교통수단분담률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중이 부산~울산축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광역전철 운행으로 장래 약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그림 2] 동남권(부산·울산권) 주요 광역 교통축의 교통수단분담률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 전국 여객O/D 현행화(부산·울산권)」, 주수단O/D를 재작성한 자료임

3)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 전국 여객O/D 현행화(부산·울산권)」, 재작성한 자료임.

그 외 교통축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중이 장래 20~30% 수준으로 예측되어 광역 간 통행에 있어 장래에도 승용차에 상당히 많이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래 동남권의 광역 간 통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기존 대중교통체계 유지 시 주요 도시의 시계 주요 유출입지점상의 교통 지·정체가 예상되므로 버스 및 철도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

동남권 광역교통 여건 진단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남권의 광역교통체계는 도로망 중심으로 형성되어 광역 간 통행에 있어 승용차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장래에도 광역 간 통행량이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광역교통체계가 지속될 경

우 주요 광역 교통축의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계를 시·공간적으로 압축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철도는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대용량의 여객수요를 효율적으로 이동·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주요 도시 간 연계는 철도 중심의 간선·순환 광역철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망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부진~마산 전동열차 운행, 태화강~신경주 전동열차 운행, 울산권 광역철도(울산순환선), 창원권 광역철도(창원순환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구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노선과 연계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IX), 동남권 대순환·중순환·소순환 철도, 남부 내륙고속철도, 부산신항~거제연결선, 남해안 고속

[그림 3]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상도



자료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전략계획 최종보고서

철도, 울산~밀양(삼랑진) 철도,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등의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수립 중인 동해선(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완공에 맞춰 다음 [그림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망 사업들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광역 교통축의 교통혼잡 완화를 통한 기존 승용차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망 구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그림 4]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원~울산 고속도로, 울산~신항~가덕도신공항 고속도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의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

철도망 및 도로망 개설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 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완공까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지만, 광역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사업은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에 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요금제⁴⁾와 광역 급행버스(Mbus)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하이퍼튜브(Hyper-Tube), 개인용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물 위로 나는 배인 위그선(Wig, Wing in Ground Effect Ship) 등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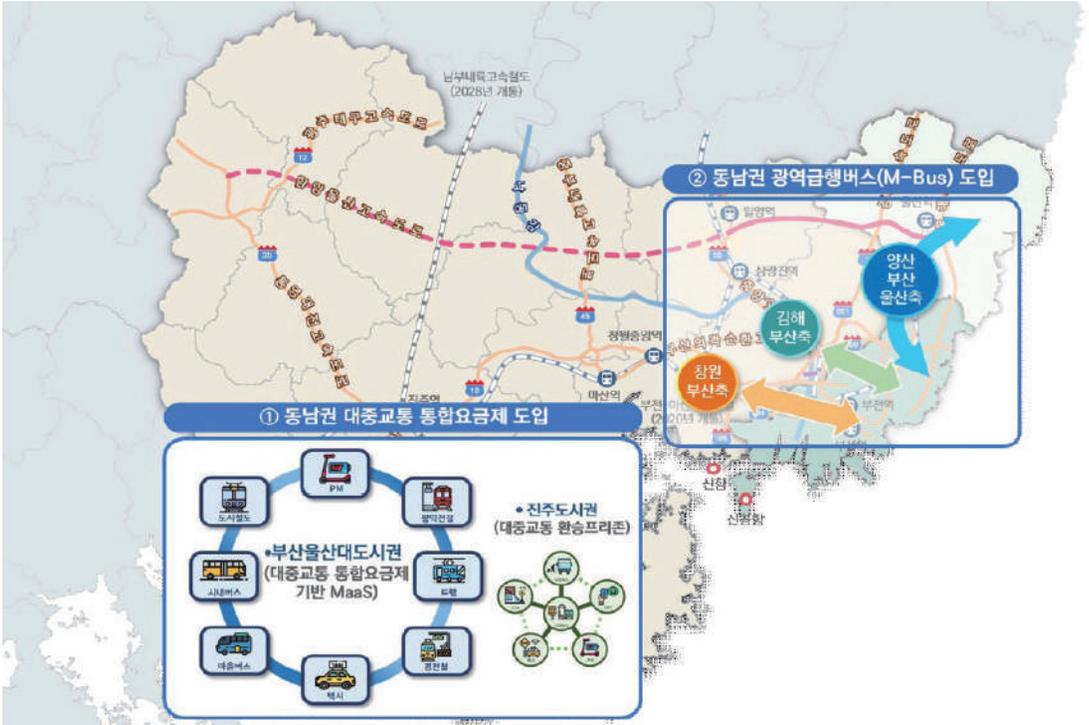
[그림 4] 동남권 광역도로망 구상도



자료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전략계획 최종보고서

4)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수도권 내 전철과 버스를 이용할 경우 환승할 때마다 기본운임을 내던 방식과 달리 같이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제도로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운임제가 적용되고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음(위키백과 검색, 2021.5.19)

[그림 5] 동남권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상도



자료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전략계획 최종보고서



- 하이퍼튜브(Hyper-Tube)⁵⁾ : 자기부상열차가 진공에 가까운 튜브 터널 안에서 공기저항 없이 시속 1,000km로 달리는 미래 교통수단
 - 개인용 비행체(PAV)⁶⁾ : 전기동력(모터, 배터리 등)을 사용해 도심상공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으로 항공·자동차·ICT·AI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인 교통수단
 - 위그선(Wig선)⁷⁾ : 수면효과 작용을 이용해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으로 일반 선박보다 훨씬 빠르고 배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미래형 해상교통수단
- ※ 수면효과란 비행체가 육지나 물 위 5m이내에서 날면 공기층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고 이 양력이 비행체를 떠받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함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7.1.18), 시속 1,000km 하이퍼튜브 개발 위해 출연연·대학이 뭉쳤다!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9.3), 민관이 손잡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띄운다.
 7)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보도자료(2011.4.19), 여수-제주 간 여객선 항로 개설 추진(카페리와 위그선 운항 면허 검토)

4. 맺음말

교통망은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인체의 혈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체의 혈관이 잘 통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그 도시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동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 및 경제력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대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를 실현하는데 필수시설인 광역교통시설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도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장래 가덕도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 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재정지원보다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동남권에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적절한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더해진다면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계를 시·공간적으로 압축해 1시간 생활권 형성을 통해 국내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동남권이 메가시티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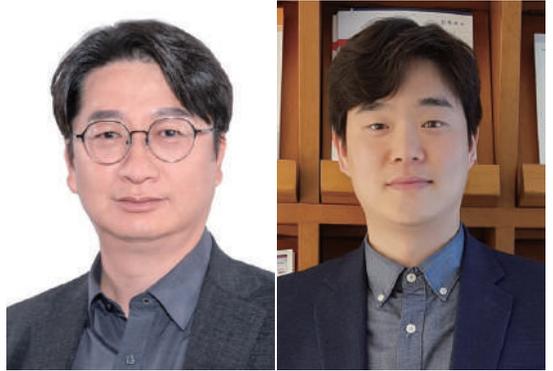
UN DESA(2018), The World's Cities in 2018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8년 전국 여객O/D 현행화(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전략계획 최종보고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보도자료(2011.4.19.), 여수-제주 간 여객선 항로 개설 추진(카페리와 위그선 운항 면허 검토)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7.1.18.), 시속 1,000km 하이퍼튜브 개발 위해 출연연·대학이 뭉쳤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9.3.), 민관이 손잡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띄운다.

김승길 프로필

(좌)대화이앤씨에서 근무했고, 울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4대 거점도시 중심으로 행정·생활·경제·문화 4대 공동체 구축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



1. 동남권 메가시티 배경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대도시권을 나타내는 ‘메가시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UN(2018)은 전 세계 메가시티가 2018년 기준 33개에서 2030년 기준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전 세계리는 거대한 단일시장에서 경쟁의 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단일국가 내 도시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의 장벽을 넘어 세계도시 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춘 국내 대도시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었으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으로 인구, 경제, 산업 등의 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등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적 전략(다극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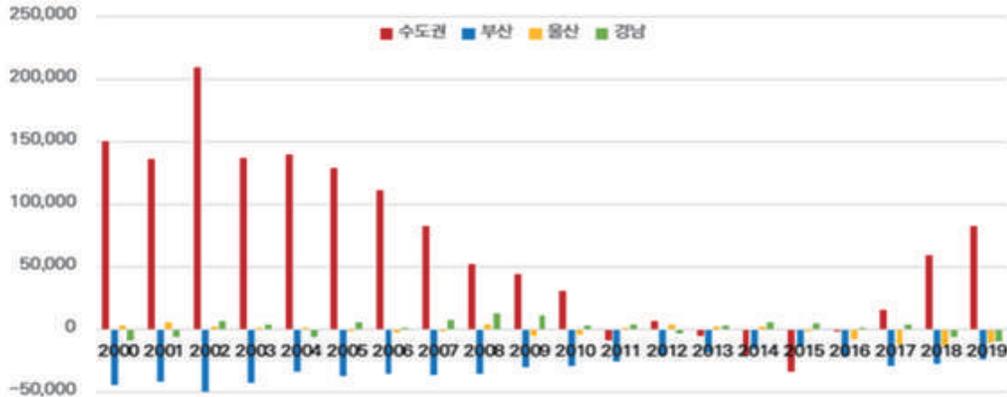
[그림 1] 수도권 집중도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1) 본 원고는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2] 수도권 및 동남권 인구 이동 현황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2. 동남권 메가시티 필요성

1) 지방소멸 가속화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및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비중이 3.8% 증가한 반면 동남권의 인구는 1.5% 감소하였다. 특히 동남권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년층이 약 1만 4천명에 달한다. 청년층 유출은 지역의 일자리, 교육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역의 일자리 감소, 교육 질 하락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는 다시 일자리 및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제활동 또한 악순환의 주요한 요인이다.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전국의 절반(51.9%)을 넘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신성장 동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수도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받는 수도권 내 스타트업이 93%에 달한다. 이러한 흐름이 결국 비수도권의 소

멸위기로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2018)에서 발표한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2)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비수도권의 소멸 위험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끊임없는 집중으로 이어진다.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 집중이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지역의 불균형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포화 상태인 수도권의 주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로 인해 청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청년층은 연애 또는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을 살펴

보면 전국 평균이 0.92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평균 0.72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집중은 국가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수도권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생활권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교통 혼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59조 6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의 도로혼잡비용이 31조로 약 52%를 차지한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삶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전국 평균 60.7%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 주민(58.7%)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 세계 도시권 육성 전략

원래 메가시티라는 말은 '매우 큰 도시(very large city)'라는 뜻이며, 메가시티를 결정하는 기준을 주로 도시의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판단 기준은 3백만, 8백만을 거쳐 천만까지 증가하면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UN은 인구 1,000만 명의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로 지칭하고 있다. 최근 기관 또는 연구자에 따라 인구기준을 바탕으로 메가시티의 기능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한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을 메가시티로 정의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단일 대도시만 의미하기보다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대도시권, 즉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도시권'으로도 정의되어 진다. 공간적으로 연결된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메가시티와 메가시티 리전 모두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편되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메가시티 리전 육성 및 강화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독일은 국토공간을 '모자이크'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영국은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하는 City-Regions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도시권 육성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시도별 합계출산율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그림 4] 전 세계 도시권 육성 전략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공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는 대표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체계 전환을 시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지역중심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하였으며,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복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광역권 육성 전략에도 불구하고 줄곧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광역권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과의 협력이 선행되지 않았다. 중앙정부 주도의 비전 및 목표 수립이 광역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동기부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즉 광역권 단위에서 합의 공유된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여 지역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지역 간 나눠먹기식 사업에 그치면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구역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거버넌

[그림 3] 시도별 합계출산율

참여정부 (2003-2008)	이명박정부 (2008-2013)	박근혜정부 (2013-2017)	문재인정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다발주의 시작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항정수도 및 혁신도시 등) 수도권 규제의 점진적 완화 (첨단업종 공장신설 허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 광역경제권 설정 (5대 광역경제권, 2대 특별경제권 설정) 국가균형발전 체계 전환 (균형발전 → 지역발전 전환) 행복도시 건설 수정 시도 (수정법안 제출 → 국회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지역중심 활력 증진)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중시 (생활여건 개선 등에 치중) 광역권 등 국토 전반의 구상 미흡 (기초생활권 단위 사업 다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 (포용)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복원 (균형위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 재구축) (혁신)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추진)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스 핵심인 협의체(지역발전위원회 및 광역발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취약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협의체로 이양할 수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공유되어야 한다. 지역의 강점을 연계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비전 및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광역권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적, 기능적 연계 및 네트워크에 기반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광역권 형성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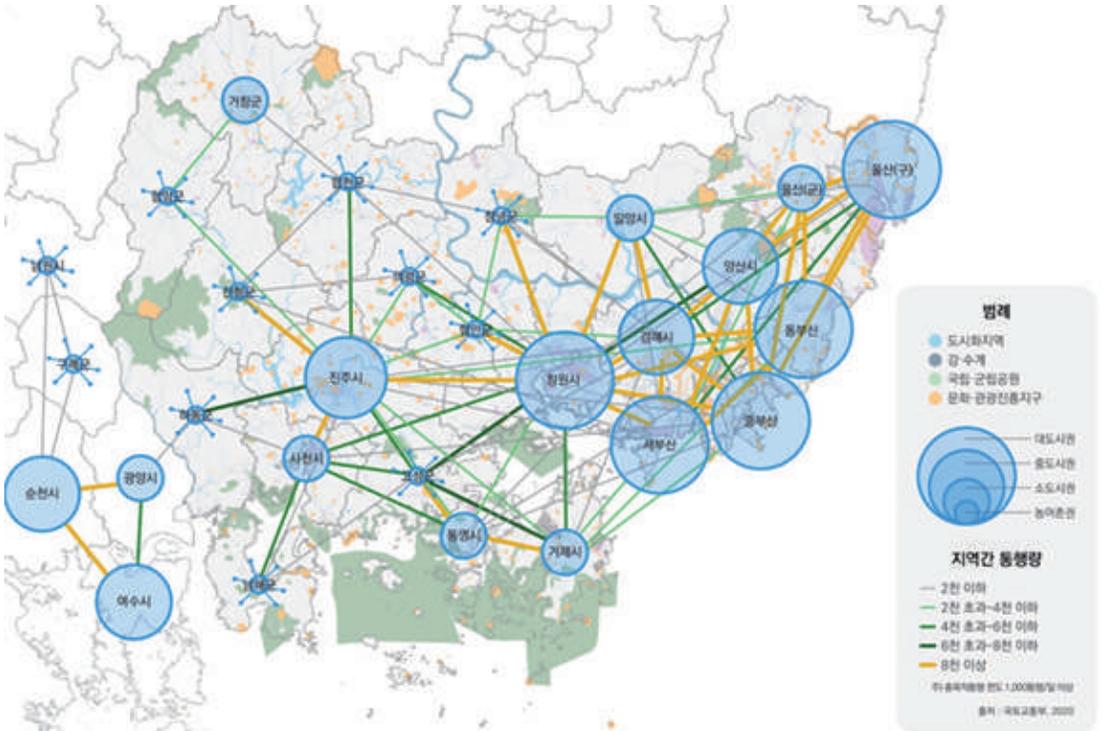
5) 글로벌 메가시티로 준비된 동남권

대외적으로 세계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하고 대내적으로 성공적인 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

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동남권은 인구 약 790만 명, GRDP 약 270조 원으로 수도권권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동남권은 국가 기반 산업, 교통망 등의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융합하여 광역권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추진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동남권은 밀접한 교통망 및 산업 연계망을 가지고 있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조선업 등 제조업의 조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동남권은 과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행정구역틀을 거치면서 역사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반으로 동남권은 현재까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운영 등의 분야별 협

[그림 6] 동남권 지역간 통행량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력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동남권은 메가시티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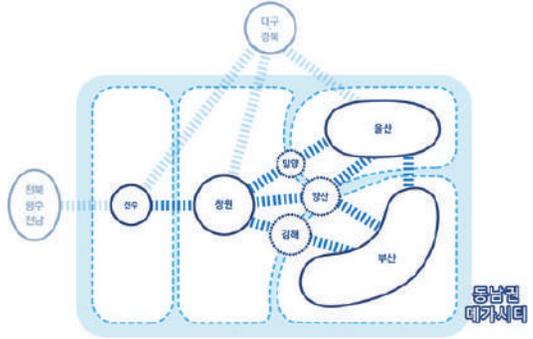
2.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²⁾

1)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 및 공간구조 기본구상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첫 단계로, 3대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부산·울산·경남이 인구 1,000만 명에 가까운 대도시권을 형성해 일일생활이 가능한 기능적으로 연결된 단일 광역 경제권으로 정의하였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란 이러한 동남권이 단일 광역경제권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가 갖춰진 환경에 해당한다.

동남권의 공간구조는 기능 중심의 광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행정 구역을 넘어 거점도시로 뭉치고 영향권을 연결하여 동남권의 우수한 자원 및 기능을 극대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 발전계획」에서는 4대 거점(부산, 울산, 창원, 진주)을 중심으로 광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공간전략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인접 도시권인 대구·경북, 전북·광주·전남 등과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기능적으로 유연한 광역권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7]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 네트워크 체계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 방안 수립 공동연구

2)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본 발전계획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으로 “동북아시아의 8대 메가시티, 부·울·경 One Team”으로 설정하고 2040년 기준 인구 1,000만 명, GRDP 491조를 정량적 목표로 제안하였다. 또한 동남권 내 통행시간 1시간(거점도시 30분), 동남권 행복지수 A등급, 청년 인구 순유입 등을 계획 목표로 설정하였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여 행정·생활·경제·문화공동체의 4대 공동체로 구조화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각각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단순한 거대도시 만들기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2)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 및 기본구상은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에서 제시한 (안)으로 공식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그림 8]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및 목표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그림 9]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전략



자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참고문헌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방안 수립 공동연구

통계청, 각 지표별 통계자료

UN(2018), The World's Cities in 2018,

김태영 프로필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경상남도 축제평가위원, 경상남도 관광정책 자문위원,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지원협의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현장평가위원,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하경준 프로필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 연구전략부장, 부울경 동남권신공항 자문단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경상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산청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역 주도 + 정부 지원’ 구도 긍정적…재정확보 긴요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1.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크고 작음은 서로 다른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 규모가 크면 사업 시행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의 지역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간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지리적 공간을 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광역행정을 수행하기가 쉽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면 주민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선호도에 맞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크고 작음이 가지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이점을 잘 결합하거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메가시티도 이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메가시티의 사전적 정의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의미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 등 일상

생활이나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대도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메가시티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이 대표적이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²⁾ 그중에서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을 권역으로 통합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은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에 대항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한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식수, 쓰레기,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조성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한계로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 부산연구원, 특집,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부산발전포럼』, 2020.

2) 이정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 메가시티 조성 움직임 늘어,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Vol.3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4.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이 연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산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된다.³⁾

메가시티 설립은 주로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방식을 추구하는데,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수한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 군, 자치구가 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운영이 용이해졌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

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통행시간의 단축,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대폭 감소, 100억 이상 투자받는 스타트업 기업 수의 대폭 증가, 외국인 관광객 수의 대폭 증가, 재생에너지 비율의 대폭 상향, 인구 1천명당 의사수의 증가 등이다.⁴⁾

2. 추진현황 평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권역별로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연합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백만의 동남권을 제2의 국가성장의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3개 지역의 연구기관(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들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의 추진방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의 설립을 준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⁵⁾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8월에 그 연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⁶⁾

동남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분야로 4대 분야 4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⁷⁾ 이 공동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대 분야별 공동체의 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하였다.

3)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현황」, 경상남도 내부자료

4)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현황」, 경상남도 내부자료

5) 김예성·하혜영,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0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2.22.

6)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현황」, 경상남도 내부자료

첫째, 생활공동체 기반 구축 과제로 동남권 광역교 통망 확충, 교육 플랫폼 기반 마련, 광역 재난관리 체계 구축, 의료 관리체계 연계·협력, 먹거리 공동체 조성을 선정하였다.

둘째,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과제로는 동남권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동남권 수소경제권 조성, 동남권 산업과학혁신체계 구축, 동남권 경제 활력 제고를 선택하였다.

셋째, 문화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서 부산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대응체계 구축,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동남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벨트 조성, 동남권 생태인문 관광벨트 조성을 과제로 정하였다.

넷째, 행정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단계별 행정공동체 조성안을 마련하였다. 이 단계별 행정공동체 조성안을 보면, 1단계로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분야별 동남권 협력기구 운영으로 행정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로 광역특별연합 규약 제정, 공동사무 발굴, 대외 홍보 등을 위한 동남권광역특별연합 추진단을 운영하며, 3단계로 동남권광역특별연합(집행기관: 동남권광역특별연합장, 의결기관: 동남권특별연합 의회)을 출범시킨다는 것이다.⁷⁾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등 메가시티 설립논의가 이전 정부들의 광역연합 사례들과 다른 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4대 초광역경제권,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다.⁸⁾ 그러나 현재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한 광역연합 자치단체 추진은 지역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추진이 일사불란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점진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분석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을 통한 메가시티의 건설이라는 중대하고 큰 제도 변화의 방안이 불과 수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할 정책이나 사업분야 혹은 동남권 메가시티가 공급할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처음부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기보다는,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광역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명백하게 타당한 분야부터 출발해서 점점 그 분야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험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설립 목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언론보도 등에 언급되고 있는 메가시티 설립의 주요 목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완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다. 메

7) 한국경제, 부울경 협력 40개 과제 선정,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마무리, 2021.4.7. 28A면.

8)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현황」, 경상남도 내부자료.

9) 김예성·하혜영,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0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2.22.

가시티로 광역연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적 효율성 제고도 간혹 목표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구성원들의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비용적 측면과, 지역 간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공간적 외부성이 감소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나 후생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¹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나머지 지역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정책이나 사업은 반드시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능이나 사무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남권 지역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문제, 즉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할 것인가 혹은 어떤 공공서비스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공공서비스 공급상의 배분적 효율성의 제고 역시 메가시티 설립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메가시티의 기능 및 사무의 선택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바람직한 발전 방향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동남권 메가시티의 설립도 마찬가지다.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와 자율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규제, 통제, 간섭보다는 재정 지원, 법·제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원자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역 단위 메가시티 설립이 지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원하고 나섰다.

중앙정부는 최근 메가시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즉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테스크포스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테스크포스는 범정부 차원의 메가시티 지원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¹¹⁾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취지가 변질되어 현재 지역 주도로 탄력을 받고 있는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규제자나 통제자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권한과 기능 및 사무의 범위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즉 동남권 메가시티가 어

10) 민기·강윤호·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2021.

11)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요 소식, 2021.5.7.

떠난 권한을 지니고 어떤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행정수요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넘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사무를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능으로 정립함으로써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이 있는 사무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사무로 배정하여 배분적 효율성 또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설립될 동남권 메가시티의 재정권한의 설정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메가시티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설치·운영하게 될 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적 세입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남권 메가시티에 지방세목을 배분하여 조세권을 지닐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의 부과·징수 등 조세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직접 세원을 관리하기보다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참여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입을 부과·징수하여 메가시티에 분담금(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지역 간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금제도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연합의 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¹²⁾ 즉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인 광역연합 특별자치단체(메가시티) 지원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가시티가 추진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사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적 규모는 다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다양한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로 보통지방자치단체만 존재해 왔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층적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확실적인 구조를 유지해 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광역연합방식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동남권 메가시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 동남권 지역 자치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강운호 프로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12) 강현수·강민군,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협력사업 추진방안,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 2020.7.20.

의리·저항의 정신과 집합성·투박성·무뚝뚝함 기질이 특징



김형균 동서대학교 민석교양학부 객원교수

1. 부산정신과 기질의 이해

도시가 유동적일수록 그 도시의 정체성에 고민들이 늘어난다. 역설적으로 정착성이 강한 도시일수록 도시정체성을 상수(常數)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무관심할 수가 있다. 부산사람들은 누구인가? 부산정신은 무엇인가? 부산사람 기질의 사회적 특성은 무엇인가? 최근 이러한 담론이 늘어나는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유동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역정신과 기질은 특정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사고, 행위, 관습의 표출방식이다. 따라서 이는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느슨한 개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강력한 개념이다.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사회적 실재로서 강력한 사회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역정신(spirit)은 해당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민들과 차이가 나는 독특한 사고, 행위, 관

습의 총체를 뜻한다. 이에 비해 지역기질(ethos)은 그러한 정신이 발현되는 특성을 뜻한다. 이처럼 지역정신과 지역기질은 상호관련성이 높으면서 구별된다. 따라서 지역기질은 외적인 표현 상태를 중시하며, 지역정신은 그 기질이 발현 가능하게끔 하는 집단적 심리상태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민들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내·외적 측면으로 간주하여 이해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2. 의리와 저항의 부산정신

전통적으로 유교적 직업관은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그 귀천을 가려왔다. 즉 상업적 활동을 가장 천하게 여겨왔던 것이다. 이러한 가치 환경 속에서 부산은 지정학적 여건과 특성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이래 상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부산인들이 가졌을 의식의 양가성(ambivalence)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착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성리학의 가치관은 헤어짐과 만남이 일상화되는 포구마을을 근거로 하는 부산사람들의 생

1) 본고는 김형균, 『부산정신·부산기질』, 2021, 호밀밭 : 김형균, '부산사람과 부산기질의 특성',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2021:153-167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활윤리를 규정하기에는 현실적합성(irrelevant)이 낮은 윤리 덕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은 흘러가는 것이기에 부산사람들은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그에 따른 문화와 기질을 발전시켜왔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업도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헤어짐과 만남이 교차하는 항구도시 사람들이 중하게 여긴 가치관이자 지역적 기질인 의리를 지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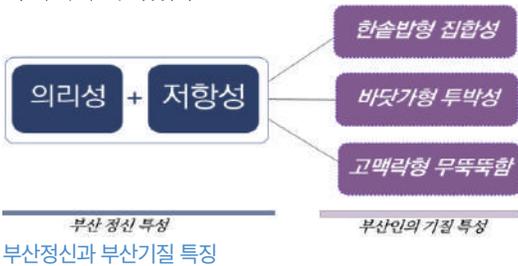
동래동헌 입구 현판(교린연향선위사) 일본과 교류의 거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판

이러한 이별과 만남, 이향과 별리(別離)가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허공 속에 흩어지는 말들이나 실언(失言)의 헛헛함을 어느 곳보다 뼈저리게 체득한 도시가 바로 부산인 것이며, 그 허망함을 체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산인이었다. 또한 상업적 잇속과 계산이 횡행하는 상업도시에서 그나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말보다는 행동을, 부재보다는 현존을, 어김보다는 지킴을, 떠남보다는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두고 싶은 도시적 기질이 의리(義理)에 대한 지역적 정서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막연한 다음번의 헛된 기약보다는 현재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변경도시의 숙명적 여건은 믿을 구석 없는 한계상황으로 수시로 물리는 역사적 경험의 연속이었다. 왜구의 침탈에 속수무책 당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전란으로 쑥대밭이 되어도 안위를 지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조선 초기 짧은 시기 사림(士林)의 중앙진출을 제외하고는 반역향(反逆鄉)과 유배지(流配地)의 굴레 속에서 배태된 반골기질은 저항기질의 원초적 원형질이 되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 개항과 일제강점은 어느 도시보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대규모 일본인의 이주와 경제적 지배가 집중되어 수탈의 가혹성과 무단통치의 가혹한 고통이 어느 도시보다 높았다. 그렇다 보니 독립과 저항의 몸부림이 생활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해방 이후 독재와 반민주적 정치사회구조에 대해서도 치열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이어 온 현대적 저항기질의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부산사람들에게 보이는 투박하고 거친 저항적 기질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들이 지역정신과 기질에 암류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비가시적이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사회적 실재(實在)로서 공동체의 에토스(ethos)에 투영되고 상감(象嵌)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사 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그 역사의 격랑 속에서 부산사람들이 부대끼며 만들어 온 부산정신의 특성은 '의리성'과 '저항성'으로 집약된다. 의리성은 역사적으로 상업도시의 일상화된 이별과 별리에 생활상으로 대응하는 사회심리적 반응이다. 다른 한편 저항성은 해양관문지역이 가지는 변경성과 피침성(被侵性), 배제성에 생존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조직적 결과다. 이 두 가지 기질적 특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리를 지향하다 보니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저항을 하다 보니 의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부산사람 기질 특성

우리는 부산정신의 핵심을 의리성과 저항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정신은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반응적인 것이다. 지역정신이 내적 가치체계라면 지역기질은 외적 표출양태다. 어떤 심리적 상태가 일정한 태도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화가 난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듯이, 지역기질도 그 표출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부산사람들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경험 속에서 형성된 저항과 의리라는 지역정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정한 양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지역기질이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그 기질적 특징을 한술밥형 집합성, 바닷가형 투박성, 고맥락형 무뚝뚝함의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1) 한술밥형 집합적 기질

이러한 지역기질은 그 기저적 출발점인 지역정신을 나타내면서 현재적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이다. 부산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주의보다 '우리'로의 합일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흔히 '우리가 남이 가리는 말은 부산의 상징어처럼 여길 정도로 일상화 되어 왔다. 이러한 속성은 어제 오늘의 모습만은 아닌 듯하다. 정약용(丁若鏞)도 영남 사람들은 나라에 중대한 의논이 있을 적마다 그들의 의견에 이

의가 없이 하나로 귀착되었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일이 없었다.²⁾고 언급할 정도로 영남 사람들의 합일성을 간파한 바 있다. 현대사에서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로서 한국 최초의 실질적 사회적 용광로(멜팅팟)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집합적 성향의 스타일이 익숙하다 보니 부산시민들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포용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데에서 그 기질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부산사람들의 합일주의적 특성은 야구 경기 관람객들의 응원 광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롯데상품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성토했던 사람들이 사직구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롯데제이언츠 팀을 향해 목이 터져라 '부산갈매기'를 부른다. 부산사람들은 여가나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부산 사람들의 집합적 성향은 의리기질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주의에 대한 경시와 강한 합일주의의 강박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현을 중시하는 표피문화보다는 내피(內皮) 중시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겪었던 기약 없는 별리와 어쩔 수 없는 군집(群集)에 대응하는 심리기제가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라의 해양을 방어해야 하는 최선두에 위치한 해방(海防)도시라는 지정학적 특성은 이웃의 도움과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또한 내 주변 사람을 믿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저항적 결속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질은 생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2) 정약용, 『영남인물고서(嶺南人物考序)』, 국역 다산 정약용 시문집, 2008, 민족문화추진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뇌의 옥시토신 수용성이 높아진다. 옥시토신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착을 높여주고 긴장을 완화해 준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외부 집단보다 월등하다고 여기게 한다. 옥시토신 수용력이 높아지면 공동체 결속력이 강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공동적 역사 경험은 한술밥의 울타리 내에서는 긴장을 완화해준다.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탈로 간주하거나 공동체의 기강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비판과 응징의 문화가 형성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별이 매우 강해지게 된

다. 이러한 성향은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용하고 오지랖 넓게 개입한다. 하지만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 성향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흔히 얘기하는 부산 사람들의 개방성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2) 바닷가형 투박한 기질

부산사람들은 타인과의 교류에서 겉과 속을 따로 두지 않는다. 대륙계통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까다로운 예의범절을 오히려 위선적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화끈하고 솔직하게 자기 의사와 욕구를 표현

하고 발설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걸러지지 않은 말투, 표현, 태도들은 거칠고 투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바닷가의 생활과 노동은 대체로 거칠 수밖에 없다.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하고 그와 연관된 일들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상생활은 어느 하나 거칠고 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작은 고깃배가 바다로 나가든 큰 상선이 대양을 향해 나가든 거친 바다에 자기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마주치는 삶의 절박함에 투박하고 거친 자기생존의 본능적 몸부림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산사람들은 급하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급히 들이닥치는 왜구들의 공격에 익숙한 부산사람들은 느긋할 여유가 없다. 거칠산국(居漆山國)의 후예답게 거친 특성이 깊게 배어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게 급하다. 운전



동래부순절도

도 급하게 하고, 말도 급하고, 일도 급하게 한다. 급하게 하다 보면 필히 거칠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박함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투다. 부산말이 거칠고 투박하게 들리는 몇 가지 언어적 특징이 있다. 음운적으로 강하고 센 소리인 경음이나 격음의 사용이 많고, 음절 축약 같은 축약 현상은 소리의 강화를 동반함으로써 부산말을 강하고 거센 말로 이미지화한다. 또 상황을 압축하여 짧게 말하는 방식이나 관계 형성을 위한 표현이나 길치레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예들러 말하기보다는 본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방식 등은 부산말이 직설적이고 무례해 보이게까지 한다. 게다가 비속적인 표현을 섞어서 쓰는 표현 역시 부산말이 언어 예절을 중시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산말에서 묻어오는 직설적이고 거센 이미지는 부산사람들의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없는, 하지만 솔직한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축약이 많고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부산말은 언어 사용의 경제적 원칙이 작용한다. 나아가 비위를 맞추는 말로 인심을 얻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고 꾸밈없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솔직함이 반영되어 있다. 또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주려는 부산사람들의 성향 역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길으로는 명령하는 표현이나 비속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 무례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형식적인 언어 표현을 넘는, 친밀함이라는 관계적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거세고 직설적이고 무뚝뚝하게 보이는 부산말 속에는 언어 사용의 경제적 원칙과 함께 다른 말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솔직함과 은근함, 친근감이 배여 있다.

부산사람들의 거칠고 투박한 기질적 표현은 부산에서 만든 도자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본사람들이 성(城)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이도다완(井戸茶碗)도 얼핏 보면 거친 막사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의 도자기가 따라올 수 없는 울퉁불퉁하지만 거친 자연미, 중국의 도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부산타워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 풍경

기교로 꾸미지 않은 소박함을 겸비한 도자기다. 일 본인들 스스로 “좋은 찻사발은 넘어 위대한 찻사발”이라는 극찬을 한 도자기가 바로 부산에서 건너간 법기요와 부산요(釜山窯)였다. 이처럼 바닷가 특유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기질, 꾸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믿는 분위기가 이러한 투박함을 하나의 기질적 특성으로 유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도자기라는 예술적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부산인들의 투박함은 주거공간에도 나타나 있다. 부산 서민성의 투박한 공간적 원형성은 산동네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복도로 주변의 산동네는 항구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독특한 배치와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곳은 경사가 급하고 필지가 좁아서 반듯한 집들이 들어서기는 힘들다. 그렇다 보니 기름종이로 문헌 루핑지붕을 이거나, 판자로 벽을 세우거나, 야산의 돌들로 석축을 쌓거나, 심지어는 묘지 비석들을 주춧돌로 깔고 앉는 등 투박하고 거친 재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쌓아왔고, 앞집은 뒷집을 가리지 않는 배려의 미덕을 길러왔다. 전국의 피란민들에 의해 형성된 산동네 주민들에게는 기존의 어떠한 신분상의 차이도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담 없이 맞닿은 판잣집에서 내일의 꿈을 키우다가 전쟁 후 전국의 각지로 흩어져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갔다. 이것이 부산사람들의 특유의 서민성을 낳았다. 그러기에 부산은 근대 한국 서민들의 실질적인 고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부산사람들의 투박성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기질적 표출 방식이다. 거친 과도와 외부 공

격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반응양식이기도 하다. 또한 거칠음은 저항성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저항적 기질에서 비롯한 거칠음은 야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기풍을 낳았다. 한편 바닷가형 투박성은 기성으로부터 탈주와 새로운 도전과 친화력이 있다. 이와 같이 창의적 예기표출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 기성의 제도와 질서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되고 있음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기존 양식이나 장르를 기발하게 뛰어넘는 예술, 예능인들이 유독 많은 것도 이러한 지역정체성과 관련이 크다.

3) 고맥락형 무뚝뚝한 기질

부산은 오래 전부터 왜구의 침탈을 받아왔고 임진왜란 최초의 격전지,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최초, 최후의 보루로서 과거의 전통적 문화를 원형대로 계승할 수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침탈과 문화접변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혼종 문화는 부산인의 기질에 깔려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전쟁이나 문화충격 등으로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는 ‘기가 찬다’는 표현을 쓴다. 말 그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할 때는 통상 말문을 닫거나 말수를 줄이게 된다. 거친 바다에서 험한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강인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말이 없는 모습을 멜빌(H. Melville)은 불후의 명작 『백경(Moby Dick)』에서 예리하게 포착하기도 하였다.³⁾ 그런 맥락에서 부산인들의 지속적인 낯선 경험과 충격은 말보다는 눈빛의 소통을 강화하였을 것이다. 또한 거친 바다와 싸우고 해양의 예측불

3) “정말로 놀랍게도 거의 모든 새나이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뿐 아니라 부끄러워 하기까지 했다.” 멜빌(H. Melville), 이기형(역), 『백경(Moby Dick)』, 동서문화사, 2016, 70면.

가능한 난폭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곤조곤함의 소통보다는 강인함과 일괄적 소통의 틀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역사적 여건이 부산인들로 하여금 고맥락의 무뚝뚝함을 형성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낯섬과 새로움이 일상적으로 경험되면서 항상 이질적인 것과 섞이는 것이 일상화된 문화는 선불리 어떤 발화행위를 주저케 만들게 된다. 홀(E.Hall)에 의하면 '고맥락의 문화 환경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이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⁴⁾

그의 표현대로 고맥락 문화의 다원적인(poly chronic) 언어습관은 인간에 대한 높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인구 규모가 적고 부산포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공통의 피해의식과 이윤추구의 공감대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맥락의 말수가 적은 무뚝뚝함은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인구집중이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로를 믿는 신뢰의 끈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산사람들의 무뚝뚝한 언어, 태도, 문화적 습관들은 바닷가라는 자연환경 경험 속에서 형성된 일상적 경험이 그러한 반응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낯선 경험의 일상화와 그 결과로 강화된 혼종성은 일상적 낯섬과 섞임에 쭈뼛거리는 생활상 방어기제로 일상화되었다. 그렇다 보니 전승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집착과 변화감수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확고하게 정립하기

어려울 때에는 항상 불안정한 이노미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처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단호하고 명확한 상황규정을 유보하고 보류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모든 판단과 감정을 담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불뚝 성질로 나타난다. 또한 무뚝뚝한 기질적 성향은 항상 용기 있게 상황을 뒤집기는 하되 마무리하는 성의나 사회관계의 세심한 소통기술의 부족에 당황하게 된다. 이처럼 고맥락형 무뚝뚝함은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과 그 기법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여건에 비추어보면 일견 단점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부산문화의 뿌리인 거칠다의 '바깥'정신과 신선스럽다의 '안'정신은 조화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오늘의 부산문화에 전면적으로 수혈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깊은 거칠지만 속은 깊은 가치를 지향하는 기질은 표피적이고 경박한 소통문화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깊은 성찰과 혜안을 위한 문화적 토양이라는 측면도 조명되어야 한다.

김형균 프로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부산학연구센터장을 오랫동안 맡아왔다. 부산시청의 정책개발실장, 창조도시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부산의 지역정체성 발굴과 도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다. 주요연구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연구>, <피란수도 건축자산 세계유산 등재연구> 등 50여 건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도시와 문화』, 『부산학개론』, 『부산학 : 거의 모든 부산』, 『부산정신 부산기질』 등이 있다.

4) 홀(Hall, Edward), 최효선(역),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2000, 162면.

영남권 대표 향토 기업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열정의 ‘신공항 전도사’ 명성…
지역 현안 ‘팔방미인’ 해결사로 큰 역할”

대담: 장 지 태 동서대학교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팔방미인(八方美人) 기업인이다. 팔방미인은 여러 방면의 일에 능통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40년 넘게 철강 외길 인생을 걸으며 본업인 세운철강을 글로벌 기업 POSCO의 국내 가공센터 중 압도적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에 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연임하며 '가덕도 신공항 전도사' 역할 수행에 열정을 쏟았다. 중국민항기뒀대산 추락사고로 김해국제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컸던 차에 해외 출장길에 인천대교 건설 현장을 보고, 부산 신공항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후 그의 행보는 분주했다. 청와대, 정부 부처, 여야 정치권을 열성으로 찾아다녔다.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주) 설립을 주도한 것도 신공항에 대한 염원에서 비롯됐다.

부산 기업들이 용지 부족으로 역외 이전을 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전국 최초로 실수요자 개발

방식을 도입한 약 50만 평 규모의 명례산단 조성 이 대표적이다. 또한 문화 불모지로 불리던 부산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꿈을 꾸고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회장을 만나 1천억 원 기부를 약속받기도 했다.

부산 도심철도 이전사업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산 중심부인 부산진구 가야·개금·당감·범천·부암동과 동구 초량동 등 6개 동에 위치한 40만 평 규모의 도심철도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전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펼친 '100만 서명운동'과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2019년 3월 국토교통부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고시를 했고,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는 2020년 6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까지 6년 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아 기부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 회장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소회를 들었다.

— 회장님께서 부산은 물론 울산·경남·경북 지역까지 아우르는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이신데,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하며 지켜 오신 경영철학은 무엇이신지요?

신정택 회장(이하 신 회장) : 경영철학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경영은 인간 중심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가 기업 활동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이

되어야지, 너무 자기 실익만 추구하면 기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간 중심 경영을 하지는 신념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특히 지역 인재 육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해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유능하고 좋은 중견·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키운 인재 유출이 심해 더 큰 발전을 못하고 있고 지역산업 구조도 전통산업 중심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려면 대학이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시절 인재육성을 위한 상을 제정했고, 세운철강도 연간 4억~5억 원을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평생 열정을 바쳐 일구신 세운철강의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신 회장 : 제 나이 31세 때인 1978년 창업한 세운철강은 부산, 창원, 울산, 포항지역에 첨단 가공설비를 갖춘 국내 최고의 POSCO 가공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산 제품은 냉연, 용융아연도금, 전기아연도금, 열연아연도금, 산세, 열연, 후판, 무늬강판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LG 전자, 르노삼성자동차, GM KOREA, 대우버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관계사로는 서울, 경기 및 중부지역의 포스코 물류 중계기지인 세운BNC, 중국 동북부 항구도시인 대련에 2003년 설립한 대련세운강관유한공사, 2014년 설립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소재 연태세운강관유한공사가 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현지법

인이 있습니다. 가족회사는 SEUN MPC와 (주)푸드웨이 목장원이 있습니다.

올해 세운철강과 관계사를 합친 연매출은 '1조 클럽'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부산상공회의소 제19, 20대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부산상의 회장 재직 때 '가덕도 신공항 전도사' 역할을 비롯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압니다. 마침내 신공항 건설이 확정됐으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신 회장 : '신공항 전도사'의 길은 2006년 3월 19일 제19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은 오랫동안 성장억제도시로 묶여 합관, 철강, 신발, 섬유 같은 노동집약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이 중심인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던 기업이었던 국제상사 도산 이후 해외로 많은 공장들이 빠져 나갔고, 지역경제 산업구조가 일종의 공황 상태나 다름없어 미래 발전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침체의 늪을 탈출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사업차 해외로 드나들면서 송도 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공사기간 : 2005년 7월 - 2009년 10월) 건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국제공항이 있으니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인천대교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까지 따라붙는 걸 보고 '변듯한 국제공항 없는 부산은 삼류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에 앞서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숨지

는 최악의 참사를 보고,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상의가 1990년대 초 서희택 부산대 교수(현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에게 의뢰했던 공항 관련 용역에 '가덕 신공항'이 언급돼 있었던 기억도 되살아나면서 '부산에도 소음 공해 없고,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허브공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이 동남권의 성장축으로 뻗어 나가야 하는데, 안전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작은 김해공항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대교 건설에 위기감 느낀 데다 돛대산 참사로 신공항 필요성 절감고 노무현 대통령께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새 공항' 간곡히 건의

2006년 12월 27일 '부산 북항 재개발' 최종 보고를 받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인 초청 오찬을 주재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부산의 도시 비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에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즉석에서 당시 옆자리에 배석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현 광주광역시시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듬해인 2007년 11월 15일 제2 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됐지요.

이후 부산상의 회장으로서는 경남, 울산은 물론 대구, 경북 상의회장들과 만나 협의를 구하고 부산시, 시민단체들과 술하게 회동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한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여야 정치권도 두루 찾아 다녔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 김희

국 제2차관(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정일영 항공정책실장(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과 청와대 변양근 정책실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특히 변 실장께서 노 대통령께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2012년 연임을 끝으로 부산상의 회장에서 퇴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도 신공항 건설사업이었습니다. 술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역 사회가 붙여 준 '신공항 전도사'라는 엄중한 소명이 있었기에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덕도 신공항의 꿈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그 짐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 대형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이 순항을 하려면 정치권과 행정기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신 회장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2021년 2월 26일은 부산·울산·경남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꿈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기업인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해 부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셨지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우리 부산이 이룬 쾌거이자 부산시민이 거둔 뜻깊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명시한 대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새로운 부산, 새로운 부·울·경 시대를 여는 대역사가 될 것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되면 부산은 대한

민국과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라는 사실을 웅변할 것입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힘차게 이륙을 했으니, 개항 때까지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상공인, 행정기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뒷받침을 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부산과 동남권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신 회장 : 신공항이 완공되면 부산은 바닷길인 항만, 육로인 철도, 그리고 하늘길인 공항을 통해 사람과 화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해 왔지만, 물류 허브가 되기에는 바닷길인 항만에 비해 하늘길인 김해공항이 규모나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미흡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북항·신항에서 국내 항만·물류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유라시아 철도 기·종착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안전한 국제공항까지 구축되면 부산은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에서는 미주와 유럽노선 등 장거리 노선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 화물항공기도 자유롭게 이착륙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남권 지역에서 미주, 유럽 등 세계 어느 지역으로 오가는 화물 운송이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수송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동남권 지역의 수출입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은 화물항공기를 활용하는 수출 제품 생산 공장과 물류센터 등 관련 업체들이 공항 인근 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동남권 지역과 공항

을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과 운송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공항 건설이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건설업에도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 발전의 변곡점, 다시 말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호기가 될 것인데, 그 축제의 성공 열쇠가 가덕신공항입니다. 2030 엑스포는 6개월 간 200여 개국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는 엄청난 행사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려면 가덕신공항이 그 전에 완공돼야 합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울산과 경남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이 가덕의 꿈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덕신공항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물론 부·울·경의 각종 현안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나아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행사계획(안)

행사명	2030부산세계박람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주제(안)	인류공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의 공유 (Sharing wisdom for the next progress)
개최기간	2030.5.1.~10.31.
장소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여 명
기대효과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 원, 일자리 창출 50만 명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expo/expo0101>

— 제19대, 20대 부산상의 회장을 연임하시면서 '신공항 전도시' 역할 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시절을 회고하신다면?

신 회장 : 먼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더불어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07년 8월 (주)부산국제항공 법인을 설립했고,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가 되었는데, 2008년 2월 에어부산(주)으로 사명을 바꿔 가을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업이 잘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경영환경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에어부산을 설립한 것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용지 확보가 떠오릅니다. 당시 부산은 공장부지가 모자라 많은 기업들이 김해, 양산 등지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린벨트 3천만 평 해제를 건의했는데, 결국 강서지역 그린벨트 1천만 평이 해제됐습니다. 또 부산시와 협의해 부산상의회가 기장군 장안읍 명례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나선 것 기억이 새롭습니다. 2007년 6월 명례산단 개발을 위해 입주 예정 기업이 출자해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을 설립했는데, 목적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실수요자 개발 방식 산업단지인 명례산단은 총개발면적 155만 m² 규모로, 총사업비는 3184억 원이었고, 그 중 550억 원은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그 시절 부산상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가 저조했습니다. 산업공단을 방문하면 "상의가 하는 게 뭐 있나"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지역 발전과 상공업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고, 회비 납부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6년 연임을 하고 퇴임할 때 부산상의 현금이 250억 원 정도 쌓였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위해 고 신격호 회장 면담, 천억 원 지원 답변받아

다음은 오페라하우스 추진입니다. 동생이 서울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 부부가 몇 번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공연 관람 후 스탠딩 카데일 파티에서 여러 부처 장관들과 정계, 문화계, 재계 인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바로 서울의 힘이요, 실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문화의 불모지로 불리는 부산에도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하자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물색에 나서 결국 롯데그룹 고 신격호 회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신 회장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첫째가 에어부산 대주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 주십사 요청한 것입니다. 신 회장은 당시에도 연로하셔서 목소리가 아주 낮았는데,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아 말씀을 나누는 기억이 납니다. 신 회장은 다음 만남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에어부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고, 오페라하우스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당시 허남식 시장께 바로 연락을 드려 부산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개요

위치	북항재개발지구내 해양문화지구(문화시설부지)
건립 규모	대지면적 29,542㎡, 연면적 51,617㎡, 지하2층/지상5층
주요 시설	대극장 1,800석, 소극장 300석,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
총사업비	2,500억 원 (공사 2,280, 설계120, 건설사업관리100)
재원 구성	롯데 기부 1,000억 원, 시 700억 원, 부산항만공사 800억 원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출처 : <http://bohinfo.smartpmis.net/>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시와 롯데그룹이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국제공모했는데, 사업비가 2,5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부지 선정만 제때 됐더라면 더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2022년 하반기 개관 목표로 북항 재개발지구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발전 걸림돌로 변한 도심철도시설 이전사업에도 혼신의 열정 쏟아

—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사업에도 열정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신 회장 :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이전 사업이 큰 고비를 넘었고, 확실히 결실을 맺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철도시설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어 초량역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부산역 등 정거장과 철도차량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에 있는 철도는 국가의 대동맥으로 부산 경제와 국가 발전에 원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16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면서 부산의 금융·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서면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인접하고 있으면서 도심단절의 불편은 물론 부산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 시설은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일반,고속), 부산·가야차량사업소, 미군영여재산처리장, 부산진CY, 부산역 조차시설 등으로, 해당 부지만 해도 부산의 중심부인 부산진구 가야·개금·당감·범천·부암동과 동구 초량동 등 6개 동을 잠식한 135만 5천 5㎡(409,889평)에 달합니다. 부산 중심부에 위치한 이 40만 평의 땅에 향후 부산시민이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항노화·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 관련 관광산업 조성, 항공산업 등)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획기적인 부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부산의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심철도시설의 이전과 개발의지를 결의하고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현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된 지속적인 시민운동 결과 2019년 3월 국토교통부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고시를 했고, 범천동 철도차량기지는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돼 2020년 6월 한국철도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부산은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이지만, 경제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인천의 도전을 물리치고,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뻗어갈 수 있을까요?

신 회장 : 수도권에 속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발전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 부산은 제조업보다 해양도시 성격에 맞는 항만물류산업과 첨단 IT산업들이 더 융성하도록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 유통 부문의 롯데와 신세계가 있고, 제조업 부문에는 삼성전기 르노삼성자동차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상회가 합심해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 첨단화 했으면 합니다.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연임하셨는데, 부산 상공업 발전과 관련하여 부산상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언하신다면?

신 회장 : 산업공단들을 자주 방문해서 세계 문제 등 기업 애로 사항들을 파악하고 취합해서 부산시와 정부, 정치권에 전달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대로 시행되면 중견·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상당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회장님은 최근까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사랑과 기부 문화' 정착에 대한 소회는 어떠신지요?

신 회장 : 2015년 5월말 취임해서 2021년 5월말 6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법정 민간단체로 기부문화의 정착과 확산, 배분사업을 통한 민간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 17개 지회 중 하나로 연말집중캠페인을 비롯하여 연중 ARS, 사랑의 계좌, 기업기부, 직장모금, 협약모금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시민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통해 연간 123억 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기존 63명에서 217명으로 크게 늘린 게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부산시에 현금 58억 원과 의료구호물품(방호복, 마스크, 방역장비 등) 5억 원을 전달한 일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300만 명에 이르고, 2세들이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모금회가 그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도 나섰으면 합니다. 더불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기부를 많이 하지만,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동참하길 희망합니다.

— 부울경 지역의 원로 기업인으로서
후배 기업인과 청년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 회장 : 인생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벼락부자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한 우물을 열심히 파라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초를 단단히 다지다 보면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남에 대한 배려와 기부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저는 행정 공무원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진양군청에 근무했는데 당시 새마을사업 열풍이 불었고, 지봉개량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부산 연합철강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연합철강에 입사했고, 1977년 회사 경영권이 국제상사로 넘어간 이후 1978년 POSCO 가공센터를 모집하길래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그때가 31세였지요. 당시 포항제철 고(故)박태준 회장님을 뵙기 위해 보름간 서울에서 숙식했습니다. 고향이 부산 기장군 임랑인 박 회장님을 출근길에 뵙고 면접을 봤고, 이후 철강 외길을 걸었습니다. 도중에 건설업에 진출해 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한눈팔지 않고 철강에서만 한 우물을 팠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POSCO 가공센터 중 1위를 달리는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지태 프로필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출발해 해양문화연구소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신사업본부장을 거쳤다. 2016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재)학교법인 장유학원 이사장, 부산국제영화제후원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백산의 동지들』(1998-공저), 『서울공화국은 안 된다』(2004),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길다』(2016)가 있다.

How South Korea Can Turn Washington-Pyongyang Talks to Inter-Korean Advantage

Brian Myer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t Dongseo University



Introduction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2017-2021),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disagreed not only about the right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also about the sanctions that still hinder all but the smallest forms of inter-Korean cooperation. Joe Biden having since come to power in the US, many South Koreans wonder how their country can better manage the relationship to the American ally, so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can regain the momentum it lost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in February 2019. In the following brief article, therefore, I would like to offer some advic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rst I will summarize some of the problems that characterized the ROK-US relationship in the recent past; then I will venture recommendations on how to avoid them in dealings with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1. The Moon-Trump Era

Americans generally saw no reason to doubt the allegations that led to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in 2016. (Most allegations were dropped in the following year or two, but by then the US press had lost interest.) American observers thus took the orchestrated "candlelight movement" at face value as a grassroots renewal of the South Korean people's commitment to democracy and transparency. Although its demonstrations had been attended by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itizens alike, and joined by Moon Jae-in only after he had explored other possibilities of effecting Park's resignation, Korea watchers widely took him at his own valuation as the embodiment of "candlelight spirit."

Even during the ensuing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refore, the foreign and especially American media rooted openly for the Minjoo candidate. Despite having spent the previous 14 years in politics, he was routinely referred

to as “the former human rights lawyer,” and his passing avowals of a readiness to talk to Kim Jong Un (a topic he tended to avoid in Korean speechmaking) sufficed for TIME Magazine to call him “The Negotiator” on its cover.

Meanwhile the American press conflated South Korea’s conservative party, many of whose members had voted Park’s impeachment, with the flag-waving, Park-loyal street right, the better to dismiss the party and its candidate as hardline anti-communists out of touch with the times. South Korea’s nationalist-left media drew attention to the friendly foreign coverage to reassure the electorate that Moon Jae-in was well regarded by the American ally.

His election in May 2017, although effected with only 41% of the vote, was generally welcomed in the US as a step forward in the maturation of South Korean democracy. From the start of his presidency many Korea observers sought to present him to the liberal American public as the “adult in the room,” a welcome counterweight to Donald Trump and the equally unpredictable Kim Jong Un. Not since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1998-2003) had a South Korean president enjoyed such positive press in the US.

This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significant amount of money the Moon administration spent in the United States on lobbying and public-relations activities. Members of the

Congress and Senate were lobbied in the hope of effecting the relaxation of sanctions obstructing inter-Korean cooperation,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Zone in particular. To give just one example: The government-funded Korea Foundation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the Atlantic Council, which in turn hosted the nationalist-left academic Moon Chung-in at speaking events in Washington DC, and sponsored Korea coverage in US media outlets (e.g. USA Today) that sought to garner support for Seoul’s softline approach to Pyongyang.¹⁾

The Moon administration has remained popular with the Western journalist and academic communities. It was not until the Minjoo Party’s defeat in the mayoral elections of April 2021 (Seoul and Busan) that the Western media, with palpable reluctance, acknowledged the dramatic decline in President Moon’s domestic popularity that had in fact begun months earlier.

In retrospect, it seems the American establishment’s support for the South Korean president may have made him overconfident in his ability to coax the Trump administration into making concessions to Pyongyang. Perhaps a certain mirror-imaging was also at work; President Moon may have wrongly assumed that a) American presidents are as beholden as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opinion polls, and b) that the hardliners in Trump’s National

1) Deirdre Shesgreen and David Jackson, “South Korean President Seeks Deal,” USA Today, 10 April 2019. (www.usatoday.com)

Security Council would be unable to assert themselves against the apparently deal-hungry Trump and State Department.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thus stunned the Blue House, where President Moon and his officials had gathered in a festive atmosphere to watch the start of the proceedings on live television. The South Koreans should then have realized that Trump himself needed more convincing, and th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raditionally functions in the US government as a hardline counterweight to the softline State Department. Instead Seoul joined Pyongyang in scapegoating John Bolton for the Hanoi debacle, a misstep that deepened conservative Americans' mistrust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 To make matters worse, President Moon let it be known that he wanted his mentor Moon Chung-in, a Yonsei professor, to be South Korea's next ambassador to Washington.

The appointment of someone so well known in both countries for nationalist, even anti-alliance statements would have raised American eyebrows enough in 2018, at the height of the Beltway's faith in the South Korean president's judgment. Coming as it did in August 2019, six months afte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it raised suspicions that the Blue House wanted the academic to agitate publicly for a softer

approach to Pyongyang. I consider it more likely that he had been selected with a view to his famously close ties to the US academic and expert community, which the Blue House may have wrongly believed would translate into political influence. In any case the US government made clear that the professor would be an unacceptable envoy. The contretemps undermined the Blue House's domestic boasts of harmony in the alliance.

Another indication of much the same error in judgment was the ruling camp's passage in 2020 of a law against sending propaganda leaflets into North Korea.²⁾ To the Blue House's apparent surprise, American politicia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sharply criticized the "Kim Yo-jong law," as it has been derided in the US as in South Korea. Whatever mild benefit the law might have in palliating North Korea's ruling family has been vitiated by the damage done to President Moon's reputation inside the Beltway.

2. The Moon-Biden Era

The election of Joe Biden to the American presidency in November 2020 was followed by South Korean speculation about the approach he was likely to take to Korean issues, with conservatives predicting that the new president would have neither the time nor the inclination to pursue a deal with Pyongyang,

2) Do Je-hee, "Anti-North Korean leaflet law sparks backlash from within and outside North Korea," Korea Times, 15 December 2020. (www.koreatimes.co.kr)

and progressives taking encouragement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s pledge to pursue an approach that differed from both Obama's "strategic patience" and Trump's summit-centric, "top-down" approach.

Already it can safely be said that the progressives had judged Biden better. Hardly had he been inaugurated than his diplomatic team reached out to Pyongyang with a proposal.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ts content is still unknown to the public, but that it offered a significant American concession can be inferred from the official talk of a "new approach," and from reports that the North Koreans did not reject the deal outright.

No less significant, of course, is the wording of the relevant part of the joint declaration issued at the end of the Moon-Biden summit in Washington on 21 May 2021.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 welcomes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DPRK policy review, which takes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We also reaffirm our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and U.S.-DPRK

commitments such as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³⁾

The lines above represent a large American step toward the ROK government's view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of inter-Korean issues; this view in turn is close to the Kim Jong Un regime's position as hitherto expressed in export propaganda. Most obviously, the expression of a shared commitment to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reflects a softening of Washington's traditional insistence on the North's unilateral denuclearization. It would appea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ready in principle to engage in nuclear-relevant disarmament of its own, perhaps even to allow North Korean verification of this disarmament. The joint declaration's reference to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is in the same softline vein. Calibrated implies the possibility of small or action-for-action deal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ile practical implies the abandonment of firm or absolute principles.

Particularly noteworthy is President Biden's surprising affirmation of the 2018 Panmunjom

3)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21 May 2021. (www.whitehouse.gov)

Declaration signed by the two Korean leaders. The latter agreement had of course renewed the two Koreas' commitment (first made in the 2000 Pyongyang Summit) to the common pursuit of some sort of confederation. It follows, therefore, that President Biden has indirectly given his government's blessing to the confederation drive. Similarly, his declaration of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can be interpreted, regardless of the conspicuous absence of the word economic before it, as a sign of greater American readiness to allow some exemption of inter-Korean projects (e.g. the Kaesong Industrial Zone) from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Whethe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ully aware of the implications of the joint declaration is of course questionable. It may well share the wishful consensus of American and South Korean conservatives that the declaration gave Moon Jae-in little of what he had come to Washington to achieve. Nevertheless, it affords the South Koreans plenty of justification to push harder for American concessions in the near future.

3. Recommendation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e ROK government can do to help effect progress in Washington-Pyongyang relations that serves South Korea's own interests on the peninsula. To make the most obvious point first, it should review the mistakes made during the presidency

of Donald Trump and resolve not to repeat them.

Greater effort must be made this time to encourage a supportive bipartisan consensus inside the Beltway, as opposed to relying on the US State Department, the liberal press, the expert-academic community and other generally softline forces to carry the day over skeptics and hawks. This would have to entail not only the sending of different, i.e. more moderate or tactful South Korean envoys to the Beltway than were sent there in the Trump years, but also a moderation or cessation of domestic policies that have aroused American concern about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liberal-democratic principles.

The anti-leaflet law, for example, is clearly more trouble than it is worth, having already aroused great indignation in the US. It cannot realistically be enforced without doing further damage to the ROK government's reputation and thus deepening many Americans' doubts about its vision of a "peace system" on the peninsula.

Although President Moon arguably served as an effective intermediary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in the early months of 2018, it soon became clear that neither the American or North Korean leader was interested in trilateral negotiations or even a bona fide trilateral summit. This is not likely to change under the new American administration. President Moon should come to terms with this and not attempt

to function as a neutral intermediary, a role the US considers incompatible with the alliance, and North Korea regards as a betrayal of the shared nation.

On the foreign policy fro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work towards improving Seoul-Tokyo relations or, failing that, at least to stop the roughly biennial recurrences of Japan-bashing that make them worse. After all, the Democrats in Washington have long been as exasperated as the Republicans by the top-down exacerbation of ethnic animosities in East Asia. In 2015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 complained about the “cheap” exploitation of these animosities to political ends, instancing heated arguments about comfort women, history books, and even names for bodies of water (e.g. the Sea of Japan).⁴⁾ At that time the Park government as well as the ROK media and public reacted to this scolding with great indignation; yet Sherman is now President Biden’s Deputy Secretary of State. It is unlikely that her views of the region’s “victimhood nationalisms,” to borrow a critical term popularized by the South Korean academic Jie-Hyun Lim,⁵⁾ have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meantime. Needless to say, many Americans’ suspicion is that Seoul is willfully worsening

regional tensions so as to have an excuse not to join a trilateral US-Japan-ROK alliance. The best way to reassure them is to pursue a more stable,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Tokyo.

Until significant progress is made in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South Korea should refrain from trying to win American support for grand-scale peninsular ventur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inter-Korean railroads and highways. Since the Pyongyang Summit of 2000 even relatively small and easy forms of inter-Korean cooperation have failed or sputtered out. Naturally, therefore, American observers are skeptical when Seoul talks of multi-billion dollar projects that envision ten or more years of smooth, uninterrupted and intens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⁶⁾ Their suspicion is that the ROK government is only seeking pretexts to provide massive unilateral aid to North Korea. It only makes matters worse when South Koreans try to present such projects to the outside world as a humanitarian outreach that should unfold independently of nuclear talks.

Instead the ROK government should focus its diplomatic resources and ingenuity on persuading the Kim Jong Un regime to resum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If these take place

4) Joan Boo, “South Korea Criticizes US Official’s Comments on ‘Comfort Women,’” VOA, 3 March 2015. (www.voanews.com)

5) Kim Hyung-eun, “Understanding how history is remembered: Progressive historian challenges commonly accepted paradigms,” JoongAng Daily, 19 March 2017. (www.koreajoongangdaily.joins.com)

6) Jung Suk-ye, “South Korean Government Aiming to Interconnect South and North Korean Railways,” Business Korea, 24 May 2021. (www.businesskorea.co.kr)

often and regularly enough to be considered routine, it would do much to restore America's faith not only in the two Koreas' ability to work together, but also in their shared commitment to basic humanitarian values. Conversely, a continued inability of the two Koreas to sustain even something so inexpensive, small scale and easy to organize will cast doubt on the seriousness and feasibility of infrastructural projects. The current, rather cynical notion of using family reunions as an excuse to pressure the Biden administration into allowing a range of allegedly vital side-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highways and hospital facilities for use by separated families making their way to the meeting place, seems to me highly unlikely to succeed, especially in view of the tiny number of people involved. Family reunions must achieve routinization within the current parameters before American support for greater plans can be realistically expected.

Conclusion

The Moon administration has good reason to hope that enough progress can be made i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o make possible some relaxation of the sanctions that now prev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sider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is now undergoing, and the growing number of American observers calling for the US to recognize it as nuclear

power, the two governments are not unlikely to agree on a "calibrated and practical" deal by the end of this year.

If Seoul wants to turn such progress to rapid advantage for the cause of inter-Korean relations, it must reassure Washington in the meantime of the health of the alliance. This means that instead of again counting on the softliners in the US government to assert themselves,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do more to persuade American centrists and conservatives that it shares their liberal democratic values and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is not enough merely to widen South Korea's lobbying and P.R. outreach; it must rethink som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at have alienated influential American friends of Korea. Finally, if South and North Korea want the Biden administration to exempt larger, more cost-intensive forms of inter-Korean cooperation from sanctions, they must routiniz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s soon as progress on the COVID front makes it possible.

Brian Myers Profil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t Dongseo University. Researcher of North Korean ideology and propaganda,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left. Books include *Han Sorya and North Korean Literature* (1994), *The Cleanest Race* (2010), and *North Korea's Juche Myth* (2015).

위기 때에도 꿈을 꾸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현 희 유엔NGO 세계가나안운동본부 총재·목사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죽기 전 “인류의 종말은 인간 스스로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종말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며 21세기 위기를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핵전쟁의 위기론입니다.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공격성이 핵무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도 “내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결점이 바로 공격성이다. 공격성은 예전의 석기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격성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며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이 핵전쟁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의 위기입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가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인 지구가 섭씨 250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황산비가 내리

는 금성처럼 변하게 되고 인간은 이런 조건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위기입니다.

그는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NA를 조작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나와 퍼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는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개발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작금의 현실이 이 경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의 위기입니다.

그는 “킬러로봇이 국가 간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먼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앙은 언젠가는 닥칠 것이며 이를 위해 인류는 하루 빨리 우주개발에 힘을 쏟아 다른 행성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낙관론자이며 인류는 이러한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인류 종말의 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인류 종말의 위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 속에 직면해 있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나 종교학자들은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작가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씨앗 하나가 심어진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씨앗, 즉 생명ियो 미래인 꿈을 안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영남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이현희 목사(오른쪽)가 2019년 8월 31일 김범일 전 총재 뒤를 이어 (사)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WCM) 신임 총재로 취임했다.

왜 꿈이 있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꿈을 꿀 여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이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왜냐면 꿈을 꾸어 보았지만 이루어 본 일이 없다, 작심삼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이루려고 하면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수록 꿈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서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꿈을 꾸고 강인하게 살아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꿈을 꾸지만 결국에는 꿈이 사람을 만들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를 가로막아도 꿈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강인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어느 분야든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을 이루는 시대에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진짜 자기의 꿈을 찾지만 하면 누구든지 꿈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꿈이 100퍼센트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시지요? 그건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꿈을 말할 때 통계를 따지며 불가능하다고 먼저 말하는 이유는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의 최상위층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성공의 꿈을 이루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처럼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권력이나 유명세를 얻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면 그것은 야망일 뿐입니다. 꿈이란 남의 것을 훔쳐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뜨거운 열망,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희생

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진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손발을 날마다 움직이게 하는 내 꿈, 내 영혼의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인생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꾸어야 할까요?

‘꿈이 사람을 만든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어야 할까요?

1) 약한 사람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강하고 가진 사람들의 꿈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면 되기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꿈을 가지면 설렘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어느 약한 시골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휩쓸고 간 조국 산천의 어디에나 가난하고 황폐한 자국이 남아 있던 1950년대 후반 부농 집안의 3대 독자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살던 소년의 아버지는 큰아들의 사업자금을 대다가 그가 사업에 실패하자 직접 농사를 지어야 근근이 먹고사는 가난한 농사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 살림도 몰라보게 웅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가정은 살림살이만 달라졌을 뿐, 가족 간의 신뢰나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생이던 소년의 손을 잡고 시골 5일장을 향했습니다. 소년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져 모처럼 새 옷을 사줄 요량으로 찾아간 옷가게에서 소년은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골랐습니다. “아버지 이 옷이 좋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낫다.” 고르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선택했는데 아버지는 웬일로 소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어코 다른 옷을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 옷이 좋아요.” “아니다. 이게 낫다. 봐라! 이게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좋지 않느냐?” 소년은 자신이 고른 옷보다 촌스러운 옷이 더 좋다고 우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영 낯설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소년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아버지가 돈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이 들자 소년은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별로 맘에 드는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요.” 돌발적인 소년의 행동에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색해진 소년은 짐짓 태연한 체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20~30분 침묵하며 걸었을까, 자식에게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무거운 발걸음을 떼던 소년은 문득 뒤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키시던 소년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소리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외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내 새끼 옷 하나도 못 사주고...” 유복하게 자랐던 소년의 아버지라 그 사건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린 소년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뭔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너를 가르쳐서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마.” 소년은 그 말을 듣자 들길을 걸어가며 생각했던 바를 단숨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드

릴 게요.” 소년은 그 이후에도 그때의 그 고백, 그 장면을 평생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소년은 생애 처음으로 내 마음의 절절한 소원, 세포 하나하나에서 터져 나오는 강인한 열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들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갖게 된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꿈은 아버지와 소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한 포장된 꿈이 아니라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아버지와 소년의 꿈과 소원이 저물녘 들뜬 햇빛 노을처럼 우리의 생애를 휘감았던 것입니다. 꿈이 생기니 약한 자였던 소년과 아버지는 목표를 향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 행동으로 실천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기와를 이는 기술을 배워 기쁘게 일하며 소년을 가르쳤고, 소년은 방학 때면 용기를 내어 아이스케이트 통을 어깨에 메고 장사를 해서 쌀독에 쌀을 채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꿈대로 사업가가 되어 평생 아버지가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 이야기가 바로 순수한 농부의 아들, 시골촌놈으로 태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약한 자의 꿈은 감동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잡초처럼 생명력이 있습니다.

2) 겸손히 낮은 자가 꿈을 꿈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원하는 꿈을 꾸고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꿈은 멈추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때 겸손히 낮아지면 비로소 진정한 꿈이 생깁니다. 사장이 낮아져 직원의 입장에서

서 일을 하면 직원들이 보입니다. 소비자가 왕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업가로 진정한 꿈을 꾸게 됩니다.

교수가 낮아져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치면, 가슴이 뛰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보이고, 건강치 못한 학생이 보이고,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이 보입니다. 이때 학생을 향한 꿈이 생깁니다. 이 꿈이 진정 제자를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학교도 살고 이 나라의 미래도 살리는 길입니다. 종교지도자가 낮아져 평신도 입장에 서면 나라를 비우고 희생할 수 있는 참 종교지도자의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3) 아픔과 고난이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는 순풍의 돛단배를 타고 멋있게 살고 싶지만, 세상과 더불어 풍랑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풍랑을 이기기 위해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정부의 차관으로 세계 장애인을 책임지고 있었던 강영우 박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중학교 다닐 때 축구 구경을 하다가 강하게 날아온 공을 눈에 맞고 갖은 노력과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 일로 뒤이어 모친과 누나마져 잃어 일찍이 맹인 소년가장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좌절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살아난 그는 아는 분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 신앙을 갖게 되고 ‘나처럼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로 강인한 꿈을 꾸게 됩니다. 1972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 유학하여 1976년에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육학 전공 철학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장애위

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고, 국제로터리재단 장학생으로 공부한 빛을 갚기 위해 로터리클럽 회원이 되어 활동한 그는 1992년 재단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선정된 75명의 '봉사의 촛불' 중 한 명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120만 회원 가운데 한 명에게 주는 '지구촌 인권박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과 루스벨트재단 고문으로 7억 명이 넘는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나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처럼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고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장애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기에 눈먼 장애 때문에 행복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강인한 꿈을 꾸게 했고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간절한 꿈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꿈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꿈입니다. 단지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업을 넘어서는 꿈입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표현되는 꿈입니다. 꿈은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사가 되어 음식점을 하겠다. 50억을 벌겠다."

이렇게 내가 진짜 간절한 꿈을 찾았다면 왜 그 꿈을 꾸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입니다. 가능하면 나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까지 포함되면 좋습니다. "50억을 벌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지어 드리고, 더하여 아프리카에 100개의 우물을 파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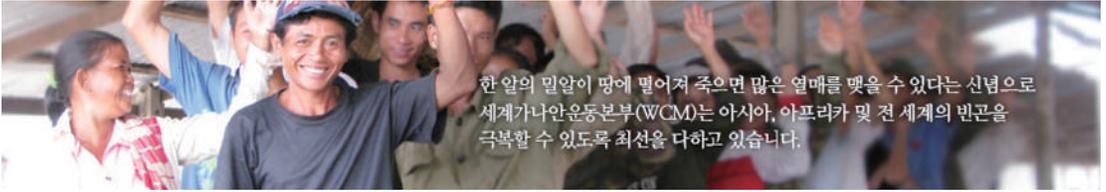
꿈에는 이기적인 꿈이 있고 이타적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되는 꿈은 이기적인 꿈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사는 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넘어서는 꿈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꿈입니다. 나도 잘살지만 다른 사람도 잘살도록 도와주는 꿈입니다. 세상을 보다 살맛나게 만드는 꿈입니다.

이기적인 꿈에서 살짝 벗어나 이타적인 꿈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꿈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꿈을 꾸고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정할 때 그 뒤에 따라붙는 왜(why)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미가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미요법(logotherapy)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37세의 나이에 지옥 같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그는 3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미래가 있다는 것도,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포기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세계가나온운동본부(WCM)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전 세계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죽음의 포로수용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작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작은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의미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작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큰일도 작은 일이 되고, 내가 의미를 두면 작은 일도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연예인을 많이 꿈꿉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비율을 보면 연예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에게는 꿈이었지만, 정작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연예인들은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내면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길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를 줍는 것에서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잘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훈련은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

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습관화되었다면 참 좋습니다.

셋째는, 꿈이 사명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꿈은 여전히 자신의 꿈이기에 내 안에 머물지만, 사명은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살짝’ 나를 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꿈이 사명이 되면 철저히 나를 죽이고 다른 가치를 위해 몸을 던지게 됩니다. 꿈은 단지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사명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꿈이 사명이 되는 날은 생애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명을 품은 자가 꿈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데이비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의 소식이 끊기자 영국의 탐험대가 찾아갔습니다. 그는 풍토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탐험대가 리빙스턴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아프리카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때 리빙스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위해 일한 것은 희생도, 헌신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꿈이었고, 내게 축복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가지 않고, 일 년여를 더 일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마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사명이 꿈이 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사

람으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언젠가 꿈이 성숙해지고 삶의 의미가 더욱 고상해지면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살면 사명이요, 죽으면 영광입니다. 꿈이 사명이 되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체적으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막연하다거나 남의 흉내를 낸다거나 대충 생각하는 꿈은 작심삼일이 되고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상과 현실이 맞는가? 하는 가능성을 보아야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근성이 있는가? 하는 확고부동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긍정의 확신이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꾸는 꿈의 주인공은 자신입니다. 누가 자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면 꿈은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J 하드필드 박사는 긍정의 자신감에 대해 한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라며 스스로 낙심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는 폐인이 된다. 반면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150%가 넘는 실력이 발휘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을 향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긍정의 확신을 가지면 긍정의 힘이 나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도 사랑을 주고 받을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희생으로 일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싫거나, 일이 없어 놀면, 이웃의 걱정거리가 되고 힘들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사랑도 이웃의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하나님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생을 기꺼이 자처하며 즐긴다는 것입니다. 꿈에는 사랑과 나눔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꿈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꿈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지칠 줄 모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초점을 맞추기에 분산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꿈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7 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꿈을 구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목표를 정하고, 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도전하며 나아가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65세에 빈털터리가 된 KFC 설립자 샌더스는 1008 번이나 투자자들에게 퇴짜를 맞으면서도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렸습니다. 바로 끈질김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고수가 되고 성공하려면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들은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낮아짐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꿈을 찾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한 강인한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지만 꿈이 있어야 기회가 있고 미래가 보입니다.

고, 꿈을 향해 될 때까지 행동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을 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희 프로필

(사)세진회 부산지회 이사장, (사)한국경영인협회 부회장, (사)나눔과 기쁨 공동대표, 고려인삼제품(주) 홍삼고려원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나안농군학교(영남) 설립자로 3대 교장을 맡고 있으며 양산사론교회 목사, (재)21C 포럼 이사를 맡고 있다. 2019년 8월31일 (사)세계가나안운동본부(WCM) 총재로 취임했다. 기독교문화대상 민석지도자상(2018.12), 제41회 경남교육상(2019.12)을 받았고, 저서로는 『행함』(2014), 『바른 권사』(2019), 『바른 집사』(2020)가 있다.



이현희 목사는 2018년 12월 (재)21세기포럼 문화재단이 수여한 제13회 기독교문화대상 민석지도자상을 받았다.

저는 많은 꿈을 꾸고 이루어왔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품고 가나안사이버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 가나안인성대학원을 세우는 일, 해외에 30개 가나안 농군학교를 더 세우는 꿈을 꾸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신의 꿈을 꾸

역사 속살 드러낸 신라시대 부산 상황 알리는 대표 유적



박수정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교수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두 개의 흥미로운 성곽 관련 전시가 진행 중이다. 하나는 북천박물관에서 개최한 것으로, 삼국시대 배산성(盃山城), 고려시대 동래고읍성(東萊古邑城), 조선시대 동래읍성(東萊邑城)과 경상좌수영성(慶尙左水營城) 등 부산에서 확인된 약 30여 곳의 성곽 유적에 대한 조사성과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 성곽의 개념과 구조, 특징 등을 이해하고, 산성과 읍성, 수군영성과 진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의 특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2021.05.04.~2021.07.25.).

다른 하나는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배산성, 감춰진 역사의 비밀을 열다'라는 기획전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배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실제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전국에서 최초로 발굴·복원된 대나무발과 부산 지역에서 처음 출토된 목간(木簡), 그리고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초대형 기와 등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2021.04.30.~2021.06.30.).

두 전시 모두 규모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방어의 최전선으로서 많은 성곽이 만들어졌던 전근대 부산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전시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배산성은 그 입지와 유물 산포 양상을 통해 일찍부터 삼국시대 산성으로 추측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6년 이후 시굴조사 및 3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그 규모와 축성 시기, 내부 구조 등이 활발하게 조사, 연구되는 과정에 있다. 배산성은 부산의 대규모 가야 고분인 북천동고분군(福泉洞古墳群)이나 신라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10찰 중 하나인 범어사(梵魚寺)만큼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최근의 발굴 성과를 보면 이 둘의 사이 시기를 이을만한 부산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듯하다.

배산성의 입지와 조사 과정

산성(山城)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산의 정상부나 사면에 축조한 목책(木柵)·토루(土壘)·석축(石築) 등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삼국시대부터 적극적으로 산성 축성이 이루어졌다. 산에 쌓는 성은 평지에 쌓는 성에 비해 보안성이 높으며, 적의 입장에서는 힘들여 산 위를 올라가다 보면 막상 목적지에 닿은 후 제대로 힘을 기울여 싸울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산성은 경우에 따라 지방

행정 통치의 중심지 역할도 수행하였으므로, 각 지역의 요충지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배산성 역시 이와 같은 고대의 산성 중 하나로서, 현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배산에 위치하고 있다. 배산은 254m의 낮은 해발고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금정구 등 부산 시내 일원이 조망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산의 남서쪽으로 조선시대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황령산이 마주하고 있다. 또한 산성의 북쪽 자락에는 연산동고분군(蓮山洞古墳群, 사적 539호), 남쪽 자락에는 동래고읍성지가 있고, 주변에 동래 북천동고분군(사적 273호), 동래패총(東萊貝塚, 사적 192호) 등 삼국시대의 주요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산성지의 주변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다수 채집되어 일찍부터 삼국시대 산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 왔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조선시대 기록에 배산성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않는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장하는 둘레 397보(1보를 6척으로 보고 1척을 약 46cm로 적용하면 약 1,095m)의 ‘읍석성(邑石城)’이 배산성에 해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다. 이 읍석성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장인 박위(朴葦, ?~1398)가 축성을 주도했으며, 정묘년(고려 우왕 13년, 1387) 8월 축성을 시작해 달포 걸려 완성되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주위 범 600간(間)의 석루(石壘)로서 산상에 작은 연못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1977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지상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가 실시되었다. 이때에는 배산성이 배산의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9부 능선을 둘러싼 내성과 8부 능선을 둘러싼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의 석성 혹은 토성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지표조사였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산박물관에 의해 진행된 2009년의 정밀 측량, 2016년의 시굴조사, 2017~2019년 3차에 걸친 발굴조사와 관련 논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9년 정밀 측량에서는 1977년 지표조사 결과와 달리, 이 산성이 산 정상부 7부 능선과 동쪽·북쪽 계곡 상단을 포함한 둘레 1,170m의 테피식 산성(산 정상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축조한 성)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시굴조사에서 성벽이 일부 노출되어 기단보축이 있는 석축 산성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정상부에서 초석이 있는 기와 건



배산성 발굴지에 세워진 안내판

물지, 북쪽 구역에서 원형의 집수지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대부분 삼국시대와 신라 기와 및 토기 편이었고, 기와의 연대는 대체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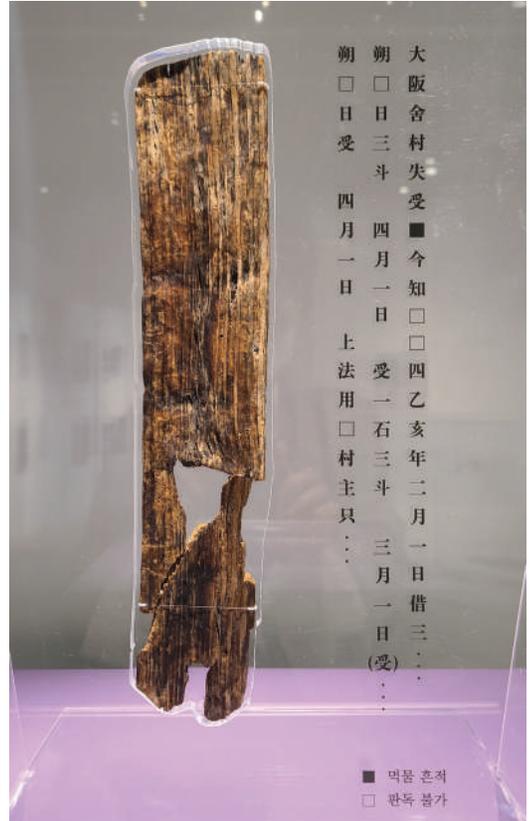
부산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목간

2017년의 1차 발굴조사에서는 1호 집수지와 2호 집수지가 확인되었다. 1호 집수지 내부 퇴적층에서는 주로 신라 기와와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그중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삼국시대 신라 토기도 있었다. 2호 집수지는 세 번에 걸쳐 준설 및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서 부산 지역 최초로 다수의 글자를 판독할 수 있는 목간이 출토되었다. 물론 1호 집수지 바닥에서도 묵서(墨書)가 있는 목간이 확인되었지만, 글자수도 1~2자로 적고 서체의 획수도 부정확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목간은 문서나 편지 등의 글을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에 적은 것으로서, 당대의 정치·경제상이 기록된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 안압지(雁鴨池) 목간의 존재가 알려진 후 여러 지역에서 목간이 출토되고 있는데, 신라와 관련해서는 경주 월성(月城)이나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 목간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성산산성은 2016년 발굴이 완료되었는데, 이후 정리된 목간이 245점에 이르러 국내 고대 목간의 최대 출토지라 할 수 있다. 성산산성의 목간은 대부분 하찰목간(荷札木簡, 세금 등과 같은 물품 발송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꼬리표로 부착한 목간)이며 일부 문서목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목간에는 여러 촌명과 함께 각 지역에서 피나 맥(麥), 미(米) 등과 같은 물품을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 이를 통해 지방에서 납부한 세금이나 신라의 조세 수취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부산박물관 배산성 전시 목간

다만 이러한 목간은 나무에 쓴 묵서의 글자가 이미 바래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고, 적외선 촬영을 통해 어느 정도 글자를 읽어낸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해석해 내기가 쉽지 않다. 배산성 2호 집수지의 목간 역시 한 면에서 총 50여 자의 글자가 판독되었지만, 이 면이 앞면인지 뒷면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게다가 연구자별로 판독한 글자가 다르고 아직 연구의 초창기에 해당하느니라 이에 따른 해석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판독되는 글자의 내용에 촌(村)의 이름과 날짜(간지 및 연월일), 곡식 단위(石, 斗), '잘못 받다[失

受]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세 또는 곡식의 대여와 관련된 목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목간에는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간지가 적혀 있는데, 을(乙)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을해(乙亥)'로 파악하는 견해가 먼저 제기되었으나 후에 '을미(乙未)'로 보는 의견이 추가되었다. 을해로 판독할 경우 목간의 연대는 555년, 615년, 675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을미로 판독할 경우 575년, 635년에 해당할 수 있다. 목간의 연대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은 고대 목간 연구에서는 꽤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는 이에 따라서는 매우 답답하고 애매모호하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그 즈음의 구체적인 정치·경제의 운영 방식을 추측할 만한 통로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배산성 목간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판독과 해석이 쉽지 않지만, 목간에서 촌명과 곡식 관련 내용이나 오는 것과 관련해 성산산성 목간과의 공통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목간에서 차(借, 빌려주다), 수(受, 받다) 등의 표현이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또 '잘 못 받다[失受]'라는 구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세(租稅)를 받아들인 기록 또는 환곡(還穀)을 운영한 것에 대한 기록일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성벽과 집수지의 축조 기술

2018년 2차 발굴조사에서는 배산성의 북쪽 성벽을 본격적으로 발굴하였다. 조사 결과 성벽의 서쪽 구간은 긴 직사각형 모양의 석재를 사용하여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후 기단보축을 하였고, 동쪽 구간은 방형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하여 품(品)자 식으로 조금씩 들여쌓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산성 성벽 기단보축(부산박물관, 2020, 배산성지 2)

서쪽 구간은 삼국시대,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 처음 축조된 성벽, 동쪽 구간은 신라 통일 후 후대에 수축한 성벽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3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 조사 때 노출한 북쪽 성벽 서쪽 구간을 좀 더 확장해서 조사했는데, 초축·수축·초축 성벽이 이어지는 형태로서 그 형태는 2차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축 성벽은 처음 축조한 성벽이 무너지자, 그 윗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쌓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기단보축은 신라의 특징적인 성벽 축조 방식으로서, 돌로 쌓은 성벽이 아랫부분에 전달되는 무게와 성벽 내면에서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쉽게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벽 맨 아랫부분을 한번 더 덧대어 쌓은 것이다. 기단보축 성벽이 확인되는 신라 성곽으로는 보은 삼년산성(三年山城), 대전 계족산성(鷄足山城), 함안 성산산성, 문경 고모산성(姑母山城), 이천 설성산성(雪城山城), 서울 아차산성(阿且山城) 등이 있다. 특히 아차산성은 배산성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발굴을 통해 이와 같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집수지의 경우 그 축조과정에서 110cm가 단위로 적용되었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즉 1호 집수지는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원

형 계단의 형식인데, 각 계단의 동심원 반지름이 각각 880cm, 770cm, 660cm, 330cm이며, 석축의 높이 역시 각각 110cm로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110cm 단위는 배산성의 집수지뿐 아니라 거제 둔덕기성(屯德岐城), 부산 기장산성(機張山城), 남해 대국산성(大局山城), 청주 부모산성(父母山城), 장수 침령산성(砧嶺山城) 등의 집수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요소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110cm의 1/2인 55cm 단위의 평면 설계 방식이 취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배산성 집수지(부산박물관, 2019, 배산성지 1)

산성 내 대형 집수지는 식수·생활용수 활용, 수해 시 문지(門址)·성곽의 붕괴 방지, 화재 시 소화시설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산성의 경우 집수지가 급격한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고, 이 경우 집수지의 석축 축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였을 것이다. 여기에 위와 같은 110cm의 통일 단위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신라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집수지 설계와 축조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배산성의 역할과 의의

배산성은 그 입지상 주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방어에 초점을 둔 산성 같



부산박물관 배산성 출토 유물 전시 모습

지만, 앞서 살펴본 삼국시대 목간이나 기와 건물의 존재, 대형 집수지의 가설 등을 참고할 때, 삼국시대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신라의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성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즉 이곳에 치소(治所)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정되는 것이다.

지금이야 부산이 이 동네를 대표하는 이름이지만,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등장하는 이 지역의 명칭은 동래군(東萊郡) 또는 동래현(東萊縣)이다. 이 중 가장 이른 기록인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居柒山郡)으로서 신라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대 동래로 이름을 고쳤으며, 동평현(東平縣)과 기장현(機張縣)이 이에 속해 있다고 하였다. 동래의 본 이름인 거칠산군은 『삼국사기』 열전 거도전(居道傳)에 보이는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재위 57~80)대의 소국(小國) 거칠산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가 이 지역의 소국 거칠산국을 병합한 후 거칠산군으로 편제하였고, 이것이 신라 중대인 경덕왕대에 다시 동래군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동래 지역은 『삼국지』 동이전 등 중국 기록에 보이는 변진(弁辰) 독로국(瀆盧國)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독로국을 거제로 보는 견해 역시 설득력을 잃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정은 어렵다.

여기서 각각의 제설과 정치체의 연결 관계를 모두 논할 수는 없고, 배산성의 정확한 용도와 활용 시기

를 특정하기도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배산성이 북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뒤를 잇는 시기의 주요한 신라 유적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부산의 가야사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북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라사를 대표하는 유적은 제대로 각인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배산성의 발굴 성과는 신라 중고기와 통일기 부산의 상황을 알려주는 주요 유적으로서 그 의의를 분명히 확인시켰다.

5월 하순의 휴일에 배산성을 직접 답사할 기회를 얻었다. 배산의 남쪽을 등산로로 택해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평안대교의 풍경을 볼 수 있고, 이로부터 5분여 계단을 더 오르면 배산성지의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는 정상부에 이른다.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위에서 확인했던 1·2호의 집수지와 성벽 부분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발굴을 끝내고 덮어놓은 상태이지만 곧 구체적인 정비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벽을 보고 계속해서 하산하면 연산동고분군과 만나게 되는데, 예쁘게 단장한 고분군이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산을 오르고 유적을 확인하고 다시 하산하는 데 한 시간 반 남짓 걸렸는데, 안 가봤으면 후회했겠다 싶은 정도로 석축과 집수지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산동고분군과의 입지 관계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숲이 우거진 산 내에 잘 조성된 등산로와 산책로로 답사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후 부산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도 직접 챙겨 보았다. 정교한 기술로 복원한 대나무발과 나무 기둥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유물인지라 매우 흥미로웠고 목간 또한 육안으로는 목서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실물을 직접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

었다. 전시장 앞에서는 전시를 본 것을 SNS를 통해 인증하면 발굴보고서를 나누어 주는 작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 전시는 현재 부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VR로도 진행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실제와 똑같은 전시를 체험할 수 있었다(부산박물관 홈페이지-온라인박물관-박물관 발굴조사). 부산의 대표적인 신라 유적으로서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세를 얻을 테니 미리 편안하게 그 실재를 접해두는 것도 좋겠다.

참고문헌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 2019, 『畵山城址』 I -2017년 1차 발굴조사 보고서.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 2020, 『畵山城址』 II -2018년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나동욱, 2018, 「부산 배산성지 출토 목간 자료 소개」 『목간과 문자』 20.
 이수훈, 2018, 「부산 畵山城址 출토 木簡의 검토」 『역사와 세계』 54, 효원사학회.
 이성훈, 2021, 「부산 배산성지 1호 집수지 축조 공정으로 본 신라 원형 석축집수지 설계원리와 의미」 『영남고고학』 89.
 박성현, 2021, 「군현의 산성과 음성, 그리고 치소의 형태: 동래군(東萊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박수정 프로필

한국국학진흥원 전문연구원과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의 강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의 연구교수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헌사를 중심으로 신라 중·하대 정치·제도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논문으로 「신라 국학의 教授法과 官吏登用」(2018), 「9세기 전반 新羅 官制의 변화 양상과 洗宅(中事省)」(2019), 「新羅 景文王의 즉위 전 행적과 肅淸海俗」(2020) 등이 있다.

나의 버킷 리스트 '루트 777/택리지'를 시작하며



김홍희 사진가

우리의 버킷 리스트 중에 '세계 일주'는 꼭 하나 들어 있을 것이다. 청춘의 버킷 리스트라면 어떨까? 전국 도보여행이나 자전거 일주가 아닐까? 아무튼 우리에게 여행은 버킷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일 것이다.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실로 꿈과 같았고 세계 일주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 기껏해야 전국 일주 정도였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했고 여행은 사치였다.

당시 전국 일주를 꿈꾸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이 '무전여행'이었다. 돈 없이 전국을 걸으면서 유람하거나 히치하이킹을 해서 장소 이동하던 것을 말하는데, 이는 용기 있는 청춘의 전유물이었다. 얻어 먹으며 끼니를 때우거나 아무 곳에서나 잠들 수 있는 젊음 없이는 결코 도전하기 어려운 여행이었다.

청춘 시절에 무전여행으로 전국을 돌아본 사람이거나 못 돌아본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향수가 있을 것이다. 해본 사람은 다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못 해본 사람은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무전여행은 청춘 시절을 오래전에

건너 온 사람들에게는 가슴 속 깊은 곳의 낭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워지지 않는 또는 채우지 못한 청춘의 버킷 리스트로.

나의 마음속에도 버킷 리스트 하나가 있었다. 전국을 유람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중환의 『택리지』를 사진으로 재해석하는 일이었다. 조선 중기의 인문지리서를 우리 시대의 안목으로, 그것도 사진으로 재해석하기. 사진가로서 그럴싸한 버킷 리스트지만 이것을 현실로 옮기는 데는 실로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뭘 구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했는지는 나로서도 알 수 없다.

나의 버킷 리스트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어 달리는 77번 국도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통칭해 '루트 777'로 명명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삼았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옛날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한양으로 향하던 길인 영남대로와 삼남대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사진으로 묶어보기로 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그 주변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소시민과 풍광을 기록하기로 했다. 그중 오늘 여기에 소개할 것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루트 777/택리지'의 일부다.

7번 국도는 부산시청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길을 말한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오른쪽으로 바다를 두고 간다. 길이 아름답고 유려하다. 동해의 파도는 유장하며 끝없이 에너지를 분출한다. 서해의 바다와 일별되는 현상이다. 걸어보면 알겠지만 동해는 푸르고 서해는 검다. 동해는 밝고 서해는 어둡다. 동해는 거칠고 서해는 고요하다. 따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동해의 노래는 밝고 명쾌하며 서해의 노래는 끊어질 듯 이어진다. 애간장을 녹인다. 동해의 해는 힘차게 솟구치지만 서해의 해는 지지리도 오랫동안 서쪽 하늘에 걸려 있다. 넘어갈 듯 그자리, 또 넘어갈 듯 그 자리를 지키며 말 그대로 뉘엿뉘엿 넘어간다. 이 쉽고 애달프다. 이리니 사람들의 성정이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1)은 강원도 동해의 쫓대 바위다. TV가 꺼질 때 애국가가 나오면서 동해의 해가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추암, 쫓대 바위다. 주변의 경관 역시 빼죽빼

죽 험난하고 기상이 예사롭지 않다. 서해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이다. 바위와 펄의 대비라고나 할까. 거기 움직이는 사람들의 몸놀림도 날렵하다. ‘동쪽은 춤, 서쪽은 노래’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사진 1

(사진 2)는 전라도 노래 같다. 애간장을 녹이면서 끊어질 듯 이어진다. 바다의 풍광이 어찌면 저리도 애달프게 생겨 먹었는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아니한가.



사진 2

전 국토가 천지개벽...
이전 모습 볼 수 없고 낭만 사라져



사진 3

요즘 전국을 돌아보면 전 국토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시는 블록 단위로 건물이 들어서고, 지방은 지방대로 이전의 모습을 빠르게 지워가고 있다. 섬과 섬은 다리로 이어져 배로 건너던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오래전에 배로 건너던 섬을 찾아 나서면 연락선은 온데간데없고 그 옆에 거대한 다리로 이어진 섬을 만날 수 있다.

생활은 편해졌지만 낭만은 사라졌다.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이자 우리 국토다.

(사진 3)은 속초다. 올 겨울에 찍은 사진이다. 사람들의 의상이 도시와 지방의 구별이 없다. 유행이 생기면 온 나라를 단숨에 휩쓴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고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는 평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통의 발달과 음식 문화의 평준화로 전국 어디를 가나 음식이 맛나고 이전의 지방색을 나타내지 못한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반찬의 가짓수 정도다. 그만큼 맛의 평준화도 이루어졌다. 다만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로 내는 음식만이 지방색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이것 또한 전국 체인점으로 인해 맛의 평준화를 이루게 되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이전의 맛 기행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전의 우리는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했다. 또 대부분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녔다. 추억



사진 4. 홍련암의 연인들

거리를 만드는 일종의 행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동차로, 그것도 연인들 둘이서만 여행을 즐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수에서 소수로, 집단에서 연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둘만의 기억과 추억을 위해 여행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추억을 기록하고 소비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디를 가나 남녀노소 불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그것도 스마트폰을 돌려가며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행을 위한 여행인지, 기록을 위한 여행인지 아리송하다. 그만큼 사진 이미지는 촬영 후 한번 힐끗 보는 것으로 소모되고는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두 번 다시 열리는 기회는 흔치않게 된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미지를 소모하는 방식이다.

현대인들 스마트폰 사진 찍기 좋아하지만 촬영과 함께 소모되는 현실

현대의 이미지 생산은 즉흥적이고 소비는 즉발적이다.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고 촬영과 동시에 소모된다. 그중 선택된 것만이 SNS에 등재된다. 현대인의 앨범인 셈이다. 그런데 SNS는 한 번 생산한 이미지를 두 번 검색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1년 전이나 2년 전의 이미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저 등재하고 소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의 이미지를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동시에 소비하고 소모한다. 거의 일회성이다. 이것이 현대의 이미지 소비 현상이다. 우리가 여행 중에 만나는 절대다수의 광경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들이다. 이미지 소비에 집중하기 때문에 걸으면서 깊은 상념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속도다. 소비의 패턴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택리지』를 사진으로 재해석할 것이라고 하니 풍경 사진을 찍는 줄 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하듯 사진을 볼 때도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극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이미지에 함몰되어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장의 사진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진을 보는 재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찰과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택리지』를 사진으로 재해석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지 20년이 지났다.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은 이런 통찰과 상상력의 부재를 한탄했기 때문이다. 이제 육십 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나이에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올해 초부터 『택리지』 촬영을 실천하고 있다.

다 때가 무르익어야 나오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나이도 때가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택리지』는 나의 버킷 리스트 안에서 20년 동안 숙성되었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세상으로 나왔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촬영되고 편집되어 우리 시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홍희 프로필

2008년 일본 니콘 '세계의 사진가 20인'에 선정되었고, 개인전 30여 회 열었다. 저서로는 『사진 잘 찍는 법』(김영사), 『나는 사진이다』(다빈치),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다빈치), 『세기말 초』(051), 『몽골방랑』(위즈덤 하우스), 『청춘방랑』(지혜), 『상무주 가는 길』(불광 출판사) 등이 있다. MBC '포토 에세이 골목', KBS 1 '명작 스캔들', EBS '세계 테마 기행-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짐바브웨'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다.

달이 지기 전에

이미옥 소설가



밤새 내린 이슬비가 소리 없이 그치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강물과 바닷물의 물무늬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에서 안개를 하얗게 피워 올렸다. 자욱하게 피어난 안개는 높은 산골짜기 언덕으로 모여들어 능선을 따라 흘러 넘쳐났다. 아득한 안개에 휩싸인 마을의 사위는 고요한데 처마 밑으로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하염없다. 잠에서 깨어난 주성은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은 명징했다. 이부자리가 머금은 온기를 떨쳐내고 방문을 열었다. 알싸한 새벽의 찬 기운이 이마에 닿자 습기를 머금은 비릿한 내음이 콧속으로 밀려왔다. 주성은 청마루 끝에 앉아 골짜기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안개를 보았다. 똑, 똑, 똑. 작은 웅덩이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낙숫물의 파장이 귀를 사로잡았다. 낙숫물이 떨어져 고인 물 안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하아. 몸에 가득 차 있던 숨을 길게 밀어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시린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이 망할 놈의 비.”

주성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입술을 짓이겼다. 주성의 시선이 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방안의 적막함에 가슴이 먹먹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점점 차오르는 두려움에 문고리를 잡아당기려고 할 때였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가래가 끊는 소리가 났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성은 움츠렸던 몸을 펴고 안도의 숨을 내뿔었다. 아침마다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다. 주어진 생의 시간이 아버지에게 고통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주성은 아버지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죽음과 맞서고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한다는 일념 뿐이었다.

그해 여름날의 새벽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잠들어 있던 마을에 쏟아졌다. 불탄 끝은 있어도 물 간 끝은 없다고 했던가. 주성이 사는 마을은 낙동강에 맞닿은 포구였다. 높은 산지에서 내린 빗물이 강으로 물리는 지형이라 강물이 불어나면 둑 너머로 쏟아져 마을과 들판이 물에 잠겨버

1)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강선대(降仙臺)는 매년 음력 11월 1일이면 신선이 지상으로 내려와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노닐다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가의 말** : 강선대와 강선대 비석 사이를 오가며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인들의 찬란한 업적과 강선대를 찾았다는 신선의 흔적을 남겨봅시다.

렸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물이 집안으로 들이치자 살림살이가 속절없이 물살에 떠내려가고 잠자던 사람들은 놀라 대피했다. 주성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지붕 위로 먼저 올라가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때였다. 갑작스러운 급물살에 어머니가 주성의 손을 놓쳐버렸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간신히 붙잡은 아버지는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쏟아지는 급류에 아버지마저 휩쓸리자 어머니는 거센 물살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팽나무에 걸려 어머니를 애태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지붕 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던 주성은 울부짖다가 쓰러져 버렸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이 보살피준 덕분에 주성은 정신을 되찾고 일어났지만 고열과 피 섞인 구토를 반복하던 아버지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으며 기력을 잃었다. 용하다는 의원은 치료법이 없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아버지에게 처치는 진통을 가라앉히는 약밖에 없었다.

주성은 뜨거워진 눈을 소맷자락으로 훔쳐냈다. 안개가 일렁이는 산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빛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물들어가는 여명의 시간, 주성은 정지로 들어갔다. 의원에서 받아 온 약재를 밤새 달인 탕약 냄새가 났다. 가마솔에 물을 올리고 미음을 끓였다. 뜨거운 물을 받은 대야와 수건을 챙겨 아버지에게 갔다. 방문을 열자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자의 냄새가 났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환하게 웃는 주성의 모습에 아버지는 그저 눈만 깜빡였다. 밤새 봄비가 내렸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숨이 넘어갈 듯 객객거렸다. 놀란 주성은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셔 아버지의 코에 가까이 대고 김을 쐐었다. 들끓던 가래가 잠잠해졌다. 비 소식을 접어두고 아버지에게 봄이 오는 마을 풍경과 사람들의 안부

를 전해주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주성은 수건을 물에 적셔가며 아버지의 마른입부터 머리와 몸을 구석구석 닦았다. 딱딱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서 닦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다. 한결 말끔해진 아버지에게 정성스레 끓인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입가를 닦아주었다. 등을 쓰다듬으며 트림을 시킨 뒤 달인 탕약도 먹였다.

“아버지 오늘도 한나절 돌돌을 쌓고 올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까딱까딱했다. 주성은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의 하염없는 눈길이 주성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 같았다. 마을이 물바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독이 필요했다. 돌돌 쌓는 일이야말로 아버지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주성은 굳게 믿었다.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강선대(降仙臺)

뭉게뭉게 피어오른 복사꽃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꽃잎들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날아갔다. 꽃잎을 향해 눈짓하던 유 선녀는 거울을 보며 자개꽃 떨잠을 아름드리 꽃았다. 곱게 뿜은 머리로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떠구지를 엮고 직녀가 만든 날개옷을 입은 모습을 보며 선녀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드디어 강선대를 가다니…”

유 선녀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었다. 수련 과정을 마친 선녀들은 선유 기행 중이었다. 물운대, 태종대, 신선대를 다녀온 유 선녀는 어느 곳보다 강선대 가는 날을 손꼽았다. 강선대에서는 목욕하며 쉬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천계에서는 상제가 목욕을 허락하지 않아 기행에서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이미 다녀온 초 선녀는 강선대의 바위가 일품이라 전했다. 키 크고 풍채가 우람한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안심하고 옷을 벗을 수 있다고 했다. 마음껏 목욕을 즐기고 오라고 하면서 자개꽃 떨잠을 내밀었다.

“내도록 마음이 아파서 견디질 못하겠어. 나 대신 네가 돌독이 무너지지 않게 이 떨잠을 둘 사이에 끼워 줘. 꼭 부탁해.”

초 선녀는 강선대 근처의 돌독 위를 걷다가 발이 미끄러져 엉덩이를 찢었다. 그 바람에 쌓여있던 돌들이 무너졌다. 돌독의 돌을 주워 담고 있는데 무지개 다리가 점점 사라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초 선녀는 애처롭게 말했다. 유 선녀는 손끝으로 떨잠을 매만지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강선대로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 선녀는 채비하고 선녀학당으로 향했다.

“우리의 존재는 믿음으로서 가능하다고 했네. 그럼, 인간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천의무봉을 입은 수련 스승이 강선대로 떠나는 선녀들에게 말했다. 선녀들은 제각기 생각에 잠겼다.

“인간의 나약하고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붉은 상시화를 머리에 꽂은 선녀가 답했다.

“인간은 어리석지만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강합니다. 의지의 노력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홍빛 살구꽃을 머리에 꽂은 선녀가 말했다. 선녀들의 대답에 유 선녀는 고개를 모로 돌렸다.

“인간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묘책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얀 연꽃을 머리에 꽂은 선녀가 답했다. 수련 스승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스승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유 선녀의 말에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학당에 모인 선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 선녀를 향하고 있었다.

“더하여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수련 스승은 심오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알면 알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믿음에 등을 돌리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존재와 믿음 그 자체로 믿을 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 선녀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스승을 향했다. 스승은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유 선녀를 바라보았다.

“저마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니 대견하구나. 인간과 믿음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강선대로 떠날 선유 기행이 그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수련 스승은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선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유 선녀는 스승이 비운 자리를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문득 초 선녀가 떠올랐다. 그토록 아파하는 초 선녀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선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수놓듯이 걸쳐졌다. 이슬방울로 엮어진 무지개는 인간이 사는 세계로 데려다주었다. 선녀들은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날개옷을 펼쳤다. 나비처럼 절대 흐트러짐 없는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주성은 말문이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한 달 넘게 공들여 쌓은 돌독의 중간 부분이 무너져 있었다. 큰비를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모인 열명 남짓한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병병했다.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했다.

“밤새 내린 비가 그리 세차지도 않았는데 돌독이 터져버리다니…”

수장 격이었던 장씨가 낮이나간 듯 서 있었다.

“참말로 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돌독이 무너진다는 말은 처음이네!”

사람들이 저마다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밤새 천둥 번개가 치기라도 했던 말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씨가 말했다.

“거, 참… 마른하늘에 날벼락일세. 혹시 누가 일을 부실하게 한 거 아냐?”

조씨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묶으며 말했다.

“자네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다들 피땀 흘려가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면서. 우리 목숨 줄이 달렸는데 누가 속빈 강정으로 만든단 말인가.”

등이 굽은 장씨가 눈을 부릅떴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내 땀내 섞인 돌독이 폭삭 주저앉아 있으니 환장할 노릇 아닌가.”

조씨는 발밑에 놓인 돌멩이를 걷어차 버렸다. 주성은 갑자기 눈물이 비죽 나와 얼른 소매로 훔쳤다.

누구의 탓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동안 고된 노동으로 쌓은 돌독은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주성은 가슴이 미어졌다. 삼태기에 돌

멩이를 담아 차곡차곡 층층이 쌓아 올려서 만든 돌독이 눈앞에 섰다. 크고 작고 둥글고 모나고 길고 납작한 돌들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걸작처럼 느껴졌던 돌독이었다. 돌을 쌓으면서 굳은살이 박이고 부르튼고 갈라지고 피 나고 쪼어 멍들고 빠진 손들이 얼비쳤다. 저편으로 부러진 삽자루와 휘어진 팽이자루, 무더진 갈퀴, 쇠스랑이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다. 누구도 무너진 돌을 향해 손을 걷어 올리지 않았다. 아무도 더 많은 비가 오기 전에 다시 쌓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연재해와 배고픈 가난에 지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듯 보였다. 주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뼈쪽한 돌멩이로 흠바닥을 긁어내고 있었다. 서서히 한두 명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장씨가 주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일 보자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성은 걸어가는 장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슬에 젖은 꽃잎이 흠바닥에 수를 놓은 듯 떨어져 있다. 주성은 걸음을 멈추고 안개가 자욱한 저편을 본다. 물빛 안개 속에서 단아한 얼굴에 쪽 찐 머리를 한 어머니가 손짓한다. 주성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으며 걸어간다. 큰 바위 능선을 따라 강선대를 지나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웃으며 안개 속으로 점점 사라진다. 어머니! 주성의 외침에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열린다. 시원한 강바람과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눈을 떴을 때, 주성은 묘한 실감에 뺨속까지 저린 기분이 들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다. 꿈에서 깬 현실이 흐릿한 꿈만 같았다.

“그곳으로 가거라. 하늘의 도우심이 닿을 것이다.”

꿈결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했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강선대(降仙臺)에 있는 각종 비석들

다. 주성은 죽어서도 자신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주성은 어두운 밤을 뚫을 듯 세찬 기세로 그곳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한 주성의 눈앞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소매로 눈을 몇 번이나 문질러 보고 또 보았다. 분명히 무너졌던 돌독이 쌓여 있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뚫고 하얀 날개를 펼터이신 새 한 마리가 돌독 위를 맴돌았다. 그 기묘한 모습에 주성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다. 주성은 이끌리듯 하얀 새를 향하는데 순간 돌독 어느 사이에 반짝이는 자개꽃 멸잠을 발견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닿으려는 찰나였다.

“그대로 두세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주성이 고개를 돌리자 유 선녀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햇살처럼 빛나는 모습과 향기로운 냄새에 주성은 정신이 아득했다.

“그대로 두셔야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유 선녀는 주성을 향해 말했다. 주성은 절망이라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

“나를 그대로 두시오,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저 반짝이는 것이 필요하오.”

주성은 달빛에 빛나는 멸잠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모두가 절망하는 삶을 두고 어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유 선녀는 초 선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그럼, 모두가 절망하지 않는 삶에 내 아픈 아버지의 숨도 포함된다면 그대의 말을 믿겠소.”

주성의 절박하고 간절한 눈빛이 유 선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인간의 생존이 믿음에 대한 믿을 가능하게 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제가 목욕한 강선대에서 몸을 씻은 뒤, 살점에 피를 내어 아버지에게 마시게 하면 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유 선녀는 비밀을 말하듯 신중했다. 달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자개꽃 멸잠은 빛을 잃고 돌 사이의 틈을 매우는 조개껍데기가 되었다.

“그대여, 정말 고맙소, 우리는 한번 더 볼 수 없는 거요?”

주성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유 선녀를 보았다. 유 선녀는 고개를 떨구려다가 참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애뜻한 눈빛을 나누었다.

“아마도... 이곳에 머물렀던 시간을 그리워하게 될 듯합니다.”

유 선녀는 주성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 주성은 천천히 돌아서서 강선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달빛이 비추는 주성의 뒷모습 위로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걸쳐졌다. 유 선녀는 힘겹게 손을 뻗었지만 주성에게 닿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갔다. 그러나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미욱 프로필

2005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단칼」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서비스 서비스』 『밤이 아닌 산책』이 있다. 2010년 한국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가 기금, 2013년 요산창작기금 수혜, 2018년 부산소설문학상, 2019년 현진건문학상 추천작, 2020년 부산작가상을 수상했다.

노익장 피아니스트 제갈삼 교수

“유치환, 이상근, 고태국, 금수현 선생 등 기억 새롭고,
베토벤은 음악인생 지켜주는 평생의 스승...”

대담: 정 두 환 음악평론가



제갈삼 피아니스트

코로나로 온 세계가 전염병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지난여름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우리나라 나이 96세, 만으로 95세의 피아니스트 제갈삼 교수의 기네스 음악회가 열렸었다. 자신의 이름을

연주회 타이틀로 내세워 자작곡의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세계 최고령의 피아니스트,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켈라 테브란키아(1887~1991)는 103세까지 연주를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을 건 음악회는 아니었기에 필자에겐 남다르게 지난여름 음악회를 기억한다. 현대를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 더욱이 평생을 오롯이 한 길만 바라보고 매진하며 살아간다는 것 말이다. 제갈삼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여러 번 드렸으나 통화할 때마다 병원 진찰과 입원으로 인터뷰 만남이 쉽사리 성사되지 않았다. 모처럼 건

강한 모습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는 참으로 시대의 어른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살짝 흥분되기까지 하였다. 필자는 지난 2016년 <망백(望百)기념 음악회> 인터뷰 기사를 위해 찾았던 맥을 다시금 찾았다.

— 지난해 연주회 이후 만나 뵙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전에 퇴원하셨다고 하시는데
건강은 좋아지셨습니까?

제갈삼 교수(이하 제갈 교수) : 예, 지금은 좋아요. 나이가 있으니 여기저기 몸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군. 그렇지만, 요즈음 다시 좋아. (미소를 머금고 평온한 모습으로 필자를 반겨 주신다.)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몸이 이야기하는군. 그래도 이 방 저 방으로 많이 걸어 다니지. 이렇게 걷고 피아노도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피아노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평생을 함께한 피아노가 있는 방, 제갈삼 교수의 서재는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피아노 위의 한 사진을 응시하시면서) 정 선생, 저 선생이 누구지 아시겠는가.

— 유치환 선생님 아니십니까?

제갈 교수 : 맞아요. 청마(靑馬) 유치환 선생. 청마 선생님은 참 멋진 선생이셨지요. 내가 경남여고

음악선생으로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셨어. 그런데 날 보고 훈육주임(訓育主任·학생주임)의 이전 말)을 하라는 거야, 음악선생한테. 그래서 내가 이주당 황해 “교장 선생님, 저는 훈육주임을 할 수가 없습니 다”하고 사양하니 “훈육주임은 학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라는 거야. 사람을 대하는 방법, 학생을 대하는 방법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지나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멋진 분이셨지. 나는 청마 선생을 교장 선생님이로 모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은 그릇이 큰 사람이야. 대인(大人)이지, 대인….

내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청마 선생님은 영도력을 지닌 사람이야. 교장은 시인, 훈육주 임은 음악선생. 학교가 얼마나 멋져.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이지. 정 선생, 상상 한 번 해봐 요. 예술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 청마 선생님의 모습을 말이야. 평생을 간직 하며 바라보는 선생님의 사진이지.



제갈삼 교수는 경남여고 음악교사 재직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청마 유치환 선생 사진을 평생을 함께한 피아노 위에 간직하고 있다.

— 선생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지요.
음악을 접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제갈 교수 : 어릴 때 제대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때는 다 그런 시절이었지. 클래식 접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시절이었으니. 그러나 20살이나 위인 형님께서 바이올린을 하셨고 누이가 오르간을 연주하셨어요. 두 분의 연주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교수님의 음악 인생은 타고난 집안의 내력 같았다.) 내가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했는데 그때 음악 공부를 제대로 했지. (1939년에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한다.) 거기서 음악(피아노)을 비롯하여 철학, 논리학, 심리학 등을 배웠어. 음악인들이 음악에는 뛰어나도 문학과 논리학, 철학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데 나는 그때 사범학교에서 거의 다 배웠어. 그게 기초가 되어 평생을 공부하는 기초가 된 것이지.

—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시고 활동하시던 1세대 음악인들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갈 교수 : 내가 마산중학교 음악교사를 하던 시절에 작곡가 이상근 선생, 소프라노 전경애 선생, 작곡가 최인찬 선생 그리고 나를 포함해 마산 4인방이라 불렸지. 그때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였고 많은 결과물도 만들었어. '마산 4인방'은 나의 젊은 날 음악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지. 이들이 부산에 왔을 때 마산 4인방, 부산에 오다라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

소프라노 전경애 선생의 독창회 반주는 내가 거의 다 했어. 참 좋은 시절이었지. 나보다 2살 위인 선배인데 노래를 참 잘하셨어. 윈 없이 음악 활동을 했어. 피아노 독주, 반주, 협연, 교육... 피아노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제갈삼 교수 방에 있는 '부산트리오' 제6회 연주회 포스터.

피아니스트 40명이 피아노 20대로
베토벤 교향곡 ‘합창’ 듀오 연주
“무대 안무너진다”고 한참 설득했었지…

— 선생님께서 부산음악 1세대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제갈 교수 : ‘부산 피아노 트리오’를 만든 것이지. 내가 일본 음악 소식지를 보다가 일본에 피아노 트리오가 활동하는 것이 부러웠어.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진문 선생, 첼리스트 배종구 선생과 함께 ‘부산 트리오’를 만들어 1970년부터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40대였지. 생활이나 음악적으로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라 정말 열심히 했어.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고 연주했지. 그리고 그 당시 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 강혜경 선생과 함께 피아노 듀오 활동을 했지. 나중에는 ‘피아노듀오협회’를 만들어 일본과도 교류하며 연주 활동을 넓혔어. 한번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40명의 피아니스트가 20대의 피아노로 듀오 연주회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 아니, 무대에서 피아노를 그렇게 많이 올린 적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무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거 설득한다고 한참을 애먹었어. 일본에서 있었던 음악회 관련 자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재미있었어. 그리고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하기도 하였고, ‘부산현대음악제’, 제지들과 함께 만든 ‘운아회’ 등 참 많은 일을 했지. 이제는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음악을 평생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고맙지.

— 선생님께서는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제갈 교수 : 내가 젊은 날부터 작곡했지. 합창곡 <푸른 산 저너머로>가 21살 때이고, 시인 한하운 선생의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로 시작하는 시 <파랑새>에서 영감을 받은 <파랑새에 의한 피아노 독주를 위한 에레지(悲歌)>,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비가>, 유치환 시 <바위>, 김춘수 시 <네가 가던 그날> 등의 가곡이 있지요. 긴 세월 음악과 함께 하였던 참 좋은 시간이었지.

—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작곡가를 소개해 주신다면?

제갈 교수 : 베토벤이지요. (그러시면서 이미 손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광>의 한 부분을 연주하시고 계신다.) 참 좋은 곡입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연주하였지만, 한결같이 좋아. (이어서 ‘즐거운 농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동요도 연주해 주신다. 아흔일곱의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피아노 건반 위의 손은 깃털처럼 가볍고 자연스럽고 연주하신다.) 베토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작곡에 매진하였던 사람이니. 그 열정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평생을 배워도 아직도 부족해. 베토벤의 음악은 내 음악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지. 작곡도 마찬가지로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지. 내 마음과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픈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작곡으로 이어졌고…

— 특히, 부산음악계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

제갈 교수 : 이상근 선생은 나를 무대에 서게 한 선생이지. <제1회 이상근 작곡 발표회>에서 내가 선

생 곡을 연주했거든. 그리고 부산사범대학과 부산 예술대학에서 늘 같이 근무하시면서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 나보다 3년 선배인데 작곡으로는 영남악파를 이룰 정도로 대가셨어. 또 고태국 선생은 나와 참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야. 내가 고태국 선생에게 배웠는데, 이후에 그분의 딸인 고정화 선생(부산고대 교수 역임)을 가르쳤어. 내가 배웠던 선생의 딸을 내가 또 가르쳤으니 얼마나 특이한 인연이야.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분이셨지. 반듯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신사셨어. 그리고 평론하던 유신 선생, 김점덕 선생, 배도순 선생도 기억나. 참, 금수현 선생이 왜 금수현이 아니고 금수현인 줄 아는가? 이분이 원래는 ‘금(金)씨인데 이조(李朝) 왕조에는 나무 목(木)이 있어. 백성이 금(金)을 쓸 수 없다고 ‘김(金)’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금수현 선생은 원래가 ‘금’이니 난 금수현으로 하겠다고 한 거야. 김해 사람인데 참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 선생에게만 가면 해결되는 거야. 머리가 참으로 비상한 선생이었지. 오태균 선생, 김창배 선생, 최인찬 선생...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 (눈이 지극히 깊어지시면서 생각을 멀리 멀리 가져가시는지 침묵의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요즘은 옛날 사람들 생각이 오락가락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도 아직은 피아노에 손이 저절로 움직여줘. (또다시 피아노를 연주하신다. 피아노 연주하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늘 공부와 연습, 연주가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건반과 선생님 손이 같은 모양새로 보였다.)

— 선생님, 요즘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갈 교수 : 국민성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지 열심히

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 특히, 문화운동에 대한 의지가 젊은이들은 부족한 것 같아. 이것은 교육이 잘 못되어서 그래.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에 대한 신의, 인간에 대한 박애 등 인간에 빠져 있어. 그저 자기만 어떻게 해보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모든 것이 어울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야. 다 같이 새롭게 부산음악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지.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술인데 그것을 모르면, 예술을 모르면 신사숙녀가 될 수 없어. 예술을 사랑하는 유럽을 봐요. 문화 예술을 멋지게 가꾸어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 주지, 그게 예술이지. 이것을 잘 가꾸면 사회 전반에 사람을 위하는 일이 먼저 된다고 생각해.

한평생 ‘음악’이란 거울 앞에서 깊은 사고와 엄격함 유지하고 계신 ‘영원한 청춘 피아니스트’ 면모 속연



망백 기념음악회 포스터가 붙어 있는 제갈삼 교수의 방

제갈삼, 아흔일곱의 노교수, 피아니스트, 작곡가, 교육자, 기네스에 도전하는 최고령 연주자... 제갈삼 교수를 지칭하는 수많은 단어가 자리하고 있지만, 필자는 ‘영원한 청춘 피아니스트 제갈삼’으로 이야

기하고 싶다. 젊은 친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교육자의 모습과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반짝반짝한 눈빛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려는 자세인 것이다. 그런 정신은 앙세르메, 스트라빈스키 또는 로맹과 같은 거장들의 언어 속에서도 한결같이 들을 수 있는 일이다.

예술가로서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어떤 하나의 음을 포르테로 할 것인가, 피아니시모로 할 것인가를 밤새 고민했다고 실토한 드뷔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작품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출발하여 스스로에 엄격하면서 안정된 높은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는 연주가인데, 그에게서 하나의 전형(典型)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제갈삼교수 퇴임기념문집 『졸탁동시(啾啄同時)』 1991, 116p 중에서)

위의 글은 제갈삼 교수가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Marurizio Pollini, 1942~)의 연주를 보고 월간 『피아노 음악』에 1986년 6월에 기고한 글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깊은 통찰에서 출발하여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평생 자신을 음악이라는 거울 앞에서 깊은 사고와 엄격함을 유지한 채 나이를 그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져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간 ‘영원한 청춘 피아니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셨다.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자세 한번 흐트리지 않으시면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시려는 어른의 모습에 다시금 감탄할 뿐이다. 하루 하루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후학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제갈삼 피아니스트 프로필

1925년 11월 20일 출생. 경상남도 마산합포 출생으로 1944년 관립 대구사범학교 심상과(5년)를 졸업하였다. 이후 1958년 동아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1970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음악교육전공)을 졸업하였다. 1944년 대구 수창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부산교육대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50년 가까운 세월을 교육자의 길을 걸으셨다. 저서로는 『啾啄同時』, 『물새 발자국』, 『<念念雜感』,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부산, 경남지역의 음악문화 유산과 그 궤적(軌跡)』, 『음악 관련 논문·논설 기고문집』, 『全人教育論』 등이 있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초창기 부산음악사』는 부산음악 역사에 소중한 자료이다. 1940년대부터 2020년까지 80여 년을 피아니스트 음악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1960년 면려포장증(대통령) 포상을 비롯하여 문교부 장관상 부산시 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 많은 상과 훈장을 수상했다.



정두환 프로필

문화유목민. 한국음악평론가 협회 이사.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상임지휘. CBS교향악단 지휘. 두레 라움 윈드오케스트라 지휘. 교육부장관상, 부산시장 장, 부산시 교육감상, 부산음악상. 제21회 부산문화대상(문화예술) 수상.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생 5막 계획이요?
이제 손자나 보며 편히 쉬고 싶어요”

대담: 임 봉 수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부산이 낳은 세 사람의 입법부 수장 중 하나다. 그보다 6년 앞서 국회의장직을 맡았던 박관용 전 의장이나 19대 국회 후반부를 책임졌던 정의화 전 의장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된다. 의원 비서관 출신인 박관용 의장이 출

발부터 정치인의 길을 밟았다면, 김형오 의장과 정의화 의장은 각각 공무원과 의사에서 정치로 인생행로를 바꿨다. 운동권 출신인 박 의장이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살았다면 김 의장과 정 의장은 상대적으로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인지 정치성향도 투쟁의 박 의장에 비해 김 의장은 ‘조화와 균형’을, 정 의장은 ‘중용과 화합’을 중시한다.

정치부 생활을 오래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동향인 세 사람을 비교할 때 박 의장을 ‘광야형(廣野型)’, 정 의장을 ‘전문가형(專門家型)’, 김 의장을 ‘중도형(中道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투쟁과 타협 어느 쪽에

도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현안을 풀어내는 김형오 의장의 균형감각을 높이 산 평가다.

실제로 의장 시절 그는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전략가”로 통했다. 언젠가 스스로 “빡도 돈도 없다”고 토로한 그의 말마

따나 사실 그에겐 이렇다 내세울 만한 뒷배가 없었다. 그런 불편향성은 정치인생 내내, 때론 서로 반목하는 권력자들의 도움을 잇따라 받는 장점으로, 때론 뼈아픈 단점으로도 작용했다. 국회의원 박근혜의 정치입문을 도운 그는 그녀의 당내 입지가 확고해지면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연거푸 맡았다. 박근혜 의원의 최대 경쟁자였던 이명박 의원이 대권을 거머쥔 후에도 그는 중용됐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 대통령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엔 국회의장이 됐다. 하지만 이처럼 계파를 불문한 인복을 누렸던 그도 정작 지역구 선거에선 엄청난 애를 먹었다. 영도에서 치러진 5번의 선거 때마다 피를 말리는 박빙의 승부를 벌여야 했다. 18대 국회의 경우 상대 김용원 후보와의 차이가 겨우 968표. 낙선했더라면 국회의장직도 없었다는 얘기가. 정치판에서 지역구 관리는 곧 금전관리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당시만 해도 중앙당의 지원이 지역구 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던 상황에서 치우치지 않은 그의 계파성향이 지역구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게 이른바 정치공학자들의 평이다.

의장시절 그를 기억하는 후배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억척스럽게 해치우며 살아가는 부러운 선배로 불린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고(故)강영훈 총리에 이끌려 외교연구원 연구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된다.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원사격으로 영도에서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기자 3년, 공무원 10년, 국회의원 20년의 인생3막 정점에서 국회 수장에 올랐지만 18대 국회 막바지에 그는 갑자기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듬해 5월엔 아예 정계를 은퇴해 버렸다. 사람들은 “김 의장이 책을 쓰기 위해 정치를 그만둔다”는 등 가지가지 해석을 내놓으며 의아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퇴선언 당시 그의 나이 64세. 한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다. 세인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질 즈음 2012년 11월 어느 날 그는 ‘술탄과 황제’라는 역사서를 출판하고 이번에는 작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금의환향했다. 보통의 경우 정치인이 쓰는 책이란 자서전이나 자신의 정치관련 뉴스를 모은 컬럼 집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의 책은 달랐다. 철저한 팩트 체크를 거친 역사서인 술탄과 황제는 출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문역사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더니 무려 38판을 찍어내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이는 추천사에서 “정치인에게도 지성의 세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몹시 낮은 명제다. 이 해묵은 통념을 일합에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 김형오의 이 저술은 평생 대학에 기대고 산 필자를 부끄럽게 만든 수작”이라고 썼을 정도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4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만났다. 팔걸이 의자에 곳곳이 앉아 점잖게 수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국회의장 시절 단아한 영국신사 모습 그대로였다. 은퇴 선언 후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에 꼬리를 물었지만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직전 선거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 얼마 전 4.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하 김 의장) : 내리 4연패 이후 찾아온 값진 승리였어요. 보수정당이 기사화 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고마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가장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populism)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최고로 맛을 봤는데, 이제는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결과로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에 대한, 그것도 내년 대선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사진은 18대 국회 전반부 의장을 맡고 있던 2009년 마지막 날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며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지키는 김 전의장의 모습.(김형오 의장 홈페이지)

—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 의장 : 포퓰리즘에 대한 실망이지요. 지금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포퓰리스트들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우리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땀 흘리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행복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건전한 기대감 같은 걸 국민에 심어주는 것이 정치인데 그러질 못하고 있

어요. 과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싫어할 지도 모를 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갖춘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 내년 대선에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의장 :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공정과 정의'를 중시해야 하며, 자유와 선택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당의 4.7 보선 패배는 국민이 포퓰리즘 심판한 고마운 사건 안보, 공정·정의, 자유·선택 의식 투철한 사람이 다음 대권 적임자

— 2012년 은퇴 선언을 하신 뒤 9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 의장 : 돌아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책 쓰는 데 보냈더라고요. 직접 쓴 책만 모두 합치면 5권 정도 되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하나 쓰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2012년 말에 '콘스탄티노플 함락 전쟁사'를 다룬 『술탄과 황제』를 펴냈고, 4년 후 개정판인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가 나왔습니다. 백범김구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8년엔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라는 『백범일지』 해설서를 펴냈지요. 그 외에도 컬럼집과 20대 국회 공천회고록 등 정치 관련 서적을 포함하면 모두 5권 정도 되네요.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쓰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9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 전업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군요. 세간에는 김 의장께서 책을 쓰기 위해 정치은퇴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요?

김 의장 :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건 2012년 5월이었지만 결심한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었어요. 60대 초반 제가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었을 때부터였지요. 지역에 이렇다 할 경쟁자도 없어 다들 다음 선거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은퇴선언 즈음에 저는 『술탄과 황제』 저술을 마무리하기 위해 뭐든 포기할 수 있다는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고 언젠가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9년엔 수필로 문단에 등단도 했지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자는 결심에 일을 저지른 거지요.

— 주위의 반대도 많았을 텐데요.

김 의장 : 예상대로 지역구의 반발이 엄청났지요. 친지들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집사람은 처음에 절 미친 사람 취급하더군요. “당신은 남들처럼 돈도 없는 사람인데 정치 그만두면 생활은 어찌하느냐”하면서요. 독실한 기독교인인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은 다 주실 것”이라며 끈질기게 설득했지요. 그러더니 은퇴 직전에는 집사람이 오히려 “언제 은퇴할 거냐”며 더 채근하더군요. 아마 오랜 정치인 내조에 지쳤었나 봅니다. 미안하더라구요.

— 『술탄과 황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 의장 : 1453년 비잔티움제국과 오스만튀르크가 치른 54일간의 격전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전쟁의 주역이었던 오스만의 술탄 메흐메드 2세와 비잔티움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리더십을 비교한 역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은퇴 후 9년여 동안 출간한 서적들. 사진 왼쪽부터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 터키어판 『술탄과 황제』, 『술탄과 황제』

—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김 의장 : 모두 38쇄를 찍었지요. 자랑 같아 송구하지만 인문역사분야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8쇄를 찍고 출판을 중단했습니다. 출판사 결정이 아니라 제 스스로 요청한 겁니다. 한참 잘 팔리던 책 출판을 중지한 것은 자부심으로 여겼던 팩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38쇄 출판 얼마 후로 기억하는데 터키를 방문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현지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시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겠다는 자존심이 흔들렸지요. 귀국 직후 출판사에 출판 중단을 주문하면서 “꼭 6개월만 달라. 부족한 팩트들을 확인하고 보강해서 신판을 건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또 4년이 걸릴 줄은 몰랐습시다.

— 아 그럼 2016년에 나온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는 초판의 팩트를 체크하고 보강해서 출판한 것이군요.

김 의장 : 그렇습니다.

— 역사학자도 아닌 정치인이 이슬람 역사에 관한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김 의장 : 18대 전반부 국회의장 시절인 2009년이었어요. 터키를 방문할 일이 있었지요. 남은 시간에 수행한 의원들과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에 갔는데 안내인이 소개하는 유물 하나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청난 굵기의 쇠사슬이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술탄이 콘스탄티노폴성을 점령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였습니다.

황제가 해상을 봉쇄하자 술탄은 배를 끌고 산을 넘어 성을 공격한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있지만 이걸 역발상이랄까요, 너무 재미있어 완전히 몰입하게 됐어요. 배를 끌고 산을 넘을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이어지는 술탄의 어마어마한 전략전술과 목숨 걸고 성을 지키려는 콘스탄티누스 11세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를 매료시켰습니다. 귀국해서 관련 역사서를 찾았지만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 후 일본의 세계적인 역사소설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터키 역사 관련 소설을 읽어 보았는데 어쩐지 시원치가 않았어요. 나라면 더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후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자료수집과 공부하며 기회를 엿보다 국회의원 은퇴를 계기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 책 한 권을 쓰는 데 4년이나 걸렸다니 보통 공이 든 게 아니군요. 고생도 많으셨겠습니다.

김 의장 : 우리나라엔 해당 자료가 없어 외국 책에 의존했어요.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전에만 약 100권의 책을 읽었어요. 합쳐서 모두 2년간 공부하고 2년간 썼지요. 터키 현지에도 수없이 갔습니다. 한 번 가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취재 여행이었는데 취재 이외 관광 같은 외도는 철저히 지양했지요.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선 뒤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허리가 망가져 요새도 좋지 않아요. 원래 눈은 좋았는데 그때부터 급격히 악화돼 지금도 좋지 않아요.

— 술탄을 ‘달리는 리더십’, 황제는 ‘눈물의 리더십’으로 묘사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현실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의장 :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술탄의 리더십을 ‘달리는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변의 아픔을 함께할 줄 아는 지도자의 자세를 ‘눈물의 리더십’이라고 이름 붙였지요. 술탄에 맞서 성을 지키려 사력을 다했던 황제의 언행이 바로 눈물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보기엔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두 가지 리더십이 모두 부족한 것 같아요. 모두 필요하지만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눈물의 리더십’을 중시합니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야 생겨나는 눈물을 ‘공홍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백범일지』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저서 『백범 묻고 김구 답하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는 어떤 책인가요?

김 의장 : 『백범일지』를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 정리한 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해설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엔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진정한 애국자로서 백범의 모습을 국민에 꼭 알려야겠다는 소신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백범(白凡)을 뜻풀이하면 보통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사람이 묻고 김구 선생이 답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 최근까지 백범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셨지요?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김 의장 : 김구 선생 아드님이신 김신 장군이 그때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내게 “말아 달라”고 하셔서 맡게 된 겁니다. 그 이상의 사연은 없습니다.

— 혹시 새로 준비 중인 책도 있습니까?

김 의장 : 칭기스칸 사후 200년쯤 뒤에 출현한 중앙아시아의 영웅 티무르에 대한 책을 써볼까 궁리 중입니다. 사실 초안까지는 잡아 놓았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이지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면서 체력은 고갈되어만 가네요. 힘들어서 점점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어린 시절 작가 꿈 이루려 주위 반대
무릅쓰고 은퇴 결심
중앙아시아의 불세출 영웅 티무르 관련
책 써볼까 궁리 중

—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인데 대인 접촉은 정상적으로 하시나요?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김 의장 : 그전하고 거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무실 나와서 책 읽고, 글 쓰고, 사람 만나고 평범하게 보냅니다. 눈이 안 좋아 장편 같은 소설은 못 읽겠더라고요. 요즘엔 또, 유튜브에도 빠졌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듣고 있으면 잠이 살살 옵니다. 하루 일과는 이런 식입니다. 교회에서 은퇴장로를 맡고 있어요. 성실하지는 못하구요. 백범 김구 관련 특강을 부탁해서 한 적도 있구요. 건강관리는 가끔씩 골프를 치는 것 외엔 특별한 건 없어요.

— 부산이 낳은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분이십니다. 부산의 현실을 짚어주시고,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오.

김 의장 :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영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과 비교하거나 또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시장, 장관이 되든 부산만 특별배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오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부산의 발전 방향이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없는 것,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장점을 부산은 분명 가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영남권은 물론 남부권 전체에서 가장 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면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일 지역에서 부산이 가장 경쟁력을 갖춘 최대 도시입니다. 부산의 발전 방향을 지경학(geoeconomics)적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독자적 주체적으로 수립하여 시민과 공감대를 쌓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과거 탓, 중앙정부 탓, 남 탓만 하다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영광, 서울과 비교,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서 지경학적으로 지역발전방향 세워야 부산의 미래 밝아

—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어찌해야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얻을 수 있을지요.

김 의장 : 젊은이들이 왜 연애, 결혼, 육아를 포기 할까요. 근본 원인은 못 본 채하고 푼돈이나 임시 방편으로 ‘땀방’만 하려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금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정자들과 정치인 책임이 큼니다. 상황이 이렇진대 우리 젊은이들이 공동체를 지키고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피 땀 흘리는 젊은이가 정열을 불태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어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정책과 정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정책 목표 그 자체입니다. 청년이 시대와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굵직한 자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김 의장 : 왜 나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청와대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경험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큐 높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언젠가 “나는 안 되는구나”하는 결론에 도달한 뒤부터 깨끗이 포기했지요.

— 기자, 공무원, 국회의원, 작가의 인생 4막을 살아오신 흔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5막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김 의장 : 내 나이가 70 중반인데 뭘 더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할아버지인데 손자나 보고 싶어요. 다만, 정치인에게 은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맡았던 공인으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표 받는 일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정치적인 행위로 월급 받는 일도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임봉수 프로필

2010년 9월~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988년 2월~2010년 8월 중앙일보 기자, 논설위원, 디지털뉴스룸 에디터

김형오 전 국회의장 프로필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대통령 비서실(공보·정무)을 거쳐 5선 국회의원(14, 15, 16, 17, 18대),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2008~2010년 제18대 전반기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 『술탄과 황제』,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 등 다수가 있다.

『地域社會(지역사회)』 3호를 펴내며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흔들었다. 나들이가 확 줄었고, 언택트(Untact) 산업이 성장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백신이 속속 개발됐고, 전 세계 접종인구도 늘고 있다. 팬데믹(pandemic)의 도전에 인류의 응전이 이어지고 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웃음꽃은 다시 피어난다던가.

地域社會(지역사회) 3호를 펴낸다. 2호 때는「지역연구 특집 1」인 '커버 스토리'가 난항을 겪었다.

이번 호에는 '부산의 도시 디자인'으로 일찌감치 결정됐다.

동서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소장 장주영 교수)가 기획하고, 관련 필자 선정까지 주도했다.

편집인의 고민을 크게 덜어주신 장 교수님과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연구 특집 2」도 (사)동남권발전협의회(상임 위원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의 협조로

'부울경 메가시티' 주제가 쉽사리 정해졌다. 동남권 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전 총장님의 제안 덕분이다.

한 뿌리에서 나온 부울경이 메가시티로 삼위일체를 이뤄야 지역의 미래 발전과

800만 시민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을 터이다.

이번 호는 잡지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1호, 2호와 달리 본문을 두 단(段)으로 나누었다.

조금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독자분들의 기호(嗜好)에 맞추려는 시도로 곱게 봐 주셨으면 한다.

흔쾌히 3호 작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 필자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특히 100세를 바라보시는 노익장 피아니스트 제갈삼 교수님, 저술가로 인생 2막 꽃을 피우고 계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신공항 전도사'로 명성 높으신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님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께 특별히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반년간지(半年刊誌)인데, 시간이 어떻게 빨리 흐르는지... 잡지를 펴냈나 싶었는데,

다음 호 기획이 신경 쓰인다. 이번 호 작업은 귀인 두 분 덕을 톡톡히 봤다.

편집인 얼굴에 설핏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세상은 역시 감사하며 살 일이다.

장지태 본지 편집인



학교 발전기금 안내

『지역사회』는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가 연간 2회 발간하는 잡지로,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서대의 인재 양성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분께는 가정이나 지정하신 곳에서 발행과 동시에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서대 발전기금 계좌 농협 301-0160-402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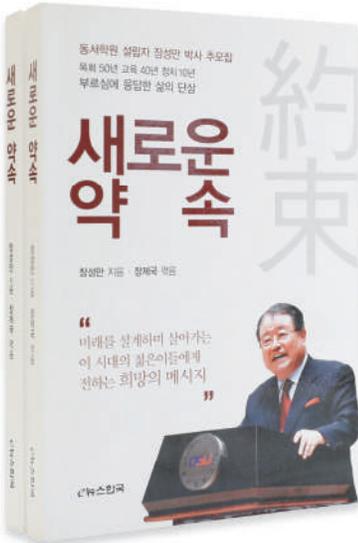
문의처 Tel. 051-320-1500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 추모집
목회 50년 교육 40년 정치 10년
부르심에 응답한 삶의 단상

새로운 약속

장성만 지음 · 장제국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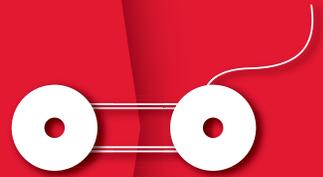
“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約束

MY
BRIGHT
FUTURE

미래형대학 이런 대학 어느 바 입니다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경험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10대 거점 도시에서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국내 등록금으로 마·중·일 해외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시아 각지를 무대로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 1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영어 몰입형 수업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르칩니다**

- 24시간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교내현장실습 강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 영화·영상·콘텐츠·디자인·AI 등 특성화 교육을 집중 육성합니다
- 강의, 교수, 강의실, 시험이 없는 혁신적인 수업이 운영됩니다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언제든지 적성에 맞는 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 희망자 모두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1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 창업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전과정을 지원합니다